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碩士學位論文

濟州 旌義邑城의 風水地理的 解析

嶺南大學校 環境保健大學院

環境設計學科

風水地理 專攻

金 東 燮

指導敎授 朴時翼・朴贊龍

2009年 6月

碩士學位論文

濟州 旌義邑城의 風水地理的 解析

指導敎授 朴時翼・朴贊龍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6月

嶺南大學校 環境保健大學院

環境設計學科 風水地理 專攻

金 東 燮

金　東　燮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審査委員_____印

2009年　6月

嶺南大學校 環境保健大學院

감사(感謝)의 글

사람으로 태어나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에 감사함을 인식(認識)하는 계기가 된 것은 나이가 들면서였다. 이런 나에게 자연관(自然觀)에 대한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은 풍수지리(風水地理)라는 학문이었으며, 이러한 학문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대학원 학과를 개설해 주신 박찬용 학과장님,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박시익 교수님께 진심(眞心)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풍수지리 후학지도(後學指導)에 열성을 다해주신 김기선 교수님, 동양철학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주역(周易)의 원리를 남다른 열강으로 삶의 도리(道理)를 가르쳐 주신 이응문 교수님을 비롯하여 아낌없이 소중한 자료를 내밀고 조언을 해주신 제주관광대학 신영대 교수님, 첫 걸음도 떼기 전에 풍수지리에 대한 사고(思考)의 틀을 일깨워 주신 제주 풍수지리학회 회장이신 변창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야로 좋은 조언과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신 제주 풍수지리학회 강길두 교장선생님, 사업이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답산에 동행했던 오정성, 고정범 사장님을 비롯한 학회 회원님들과 또한 편집에 불편함 없이 돌 보아 준 동화디자인 고봉선 후배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동 대학원의 선・후배님들과 국풍회(國風會) 동기원생인 완당 홍성서, 수경 박재락, 동경 권창근, 경전 엄철현, 원재 손용원, 중원 송대선 선배님, 오영미 선생님께도, 변함없는 동고동락(同苦同樂)이라는 영원한 감사의 마음으로 깊이 새깁니다.

이세상을 아름답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신 양가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교 일로 바쁜 와중에도 주야로 항상 옆에서 논문편집에 열(熱)과 성(誠)을 다해 준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공부 한다는 핑계로 늘 챙겨 주지 못한 딸 미연이와 같이 놀아 주지 못한 어린 아들 덕환이에게도 고마움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2009. 6.

하정 **김 동섭** 올림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풍수지리의 사상과 이론의 형성 ····· 5

제1절 풍수지리의 사상 ····· 5

1. 풍수지리의 사상 ····· 5

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풍수지리 사상 ····· 8

3.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풍수지리 사상 ····· 10

제2절 풍수지리 이론의 형성 ····· 12

1. 개요 ····· 12

2. 풍수지리 이론의 형성 ····· 17

제3장 읍성의 형성 배경과 정의읍성의 공간 구성 ····· 19

제1절 읍성의 형성 배경 ····· 19

1. 읍성의 개념 ····· 19

2. 이념적 배경 ····· 21

3. 정치 사회적 배경 ····· 24

제2절 정의읍성의 공간 구성 ····· 26

1. 정의읍성의 형성 ····· 26

2. 양택배치의 기본 이론 ····· 28
3. 정의읍성의 공간 구성 ····· 34

제4장 제주 정의읍성의 풍수지리적 해석 ····· 66
제1절 정의읍성 입지와 지세의 풍수지리적 해석 ····· 66
1. 정의읍성 입지의 문헌적 해석 ····· 66
2. 정의읍성 지세의 풍수지리적 해석 ····· 74
제2절 정의읍성 공간구성의 풍수지리적 해석 ····· 111
1. 관아건축물 ····· 111
2. 시설물 ····· 121
3. 민가건축물 ····· 127

제5장 결론 ····· 138

참고문헌 ····· 140

국문초록 ····· 143

영문초록 ····· 146

표 목 차

<표2-1> 오행과 각각의 의미 ····· 14
<표3-1> 객사 중요 건물지의 규모 ····· 40
<표3-2> 고문헌 상에 나타난 관아건축물의 위치 ····· 44

그 림 목 차

<그림2-1> 오행의 배치와 상생·상극 ····· 16
<그림3-1> 정의읍성의 위치도 ····· 28
<그림3-2> 배산임수에 따른 배치방법 ····· 30
<그림3-3> 남향집이 나쁘고 북향집이 좋은 예 ····· 33
<그림3-4> 성곽 복원구간 표시도 ····· 37
<그림3-5> 성곽의 복원크기 ····· 38
<그림3-6> 탐라순력도의 정의 강사 ····· 41
<그림3-7> 탐라순력도의 정의 양노 ····· 41
<그림3-8> 관가청 복원도 ····· 45
<그림3-9> 정의읍성의 가로체계 ····· 49
<그림3-10> 조일훈 가옥 배치도 ····· 58
<그림3-11> 조일훈 가옥 평면도 ····· 59
<그림3-12> 조일훈 가옥 정면도 ····· 59
<그림3-13> 조일훈 가옥 종단면도 ····· 60
<그림3-14> 이영숙 가옥 배치도 ····· 61
<그림3-15> 이영숙 가옥 평면도 ····· 61
<그림3-16> 이영숙 가옥 정면도 ····· 62
<그림3-17> 이영숙 가옥 종단면도 ····· 62
<그림3-18> 한봉일 가옥 배치도 ····· 63
<그림3-19> 한봉일 가옥 평면도 ····· 64
<그림3-20> 한봉일 가옥 정면도 ····· 64
<그림3-21> 한봉일 가옥 종단면도 ····· 65
<그림4-1> 여지도의 제주지도 ····· 66
<그림4-2> 여지도의 정의지도 ····· 67

<그림4-3> 정의읍성 주변의 풍수형국도 ····· 68
<그림4-4> 탐라순력도의 정의조점 ····· 68
<그림4-5> 정의읍성 주변의 지형분석도 ····· 70
<그림4-6> 정의읍성 주변의 경사 분석도 ····· 71
<그림4-7> 정의읍성 주변의 수문 분석도 ····· 72
<그림4-8> 정의읍성 주변의 등고선 분석도 ····· 73
<그림4-9> 대동여지도의 용맥 흐름도 ····· 75
<그림4-10> 한라산 용맥 흐름도 ····· 75
<그림4-11> 제주의 지맥도 ····· 76
<그림4-12> 정의읍성 주변의 산세도 ····· 77
<그림4-13> 정의읍성의 용맥의 흐름 ····· 79
<그림4-14> 정의읍성 마을 구분 모식도 ····· 88
<그림4-15> 정의읍성의 유적지 분포 현황도 ····· 89
<그림4-16> 현 일관헌도 ····· 111
<그림4-17> 현 객사도 ····· 116
<그림4-18> 현 향교 대성전도 ····· 120
<그림4-19> 정의읍성 성곽의 방형형태 ····· 121
<그림4-20> 정의읍성 가로체계의 모식도 ····· 126
<그림4-21> 조일훈 가옥 배치도 ····· 128
<그림4-22> 조일훈 가옥 평면도 ····· 129
<그림4-23> 이영숙 가옥 배치도 ····· 132
<그림4-24> 이영숙 가옥 평면도 ····· 132
<그림4-25> 한봉일 가옥 배치도 ····· 134
<그림4-26> 한봉일 가옥 평면도 ····· 135

사 진 목 차

<사진3-1> 동문에서 바라본 성곽 ····· 38
<사진3-2> 남문에서 본 객사 정문 ····· 40
<사진3-3> 현 일관헌 모습 ····· 46
<사진3-4> 현 향교의 대성전 ····· 47
<사진3-5> 향교 옆 사직단터 ····· 52
<사진3-6> 안할망당터 ····· 53
<사진3-7> 동문 앞 돌 하루방 ····· 54
<사진3-8> 원님 물통 ····· 55
<사진3-9> 일관헌 주변의 팽나무 ····· 56
<사진3-10>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 56
<사진4-1> 객사 위에서 바라본 주산 모지오름 ····· 74
<사진4-2> 모지오름에서 출원하는 알봉의 모습 ····· 80
<사진4-3> 포제동산위 포제단 ····· 81
<사진4-4> 포제동산과 황통지동산의 용맥 ····· 82
<사진4-5> 모지오름에서 바라본 알봉과 영주산 ····· 83
<사진4-6> 당남밭 옆의 물의 합수처 ····· 84
<사진4-7> 천미천과 내당수의 파구처 ····· 85
<사진4-8> 현 객사 위 중출맥의 혈판 ····· 87
<사진4-9> 객사 위 좌측 개동산의 바위모습 ····· 87
<사진4-10> 일관헌 뒤 용맥 입수 모습 ····· 90
<사진4-11> 현 향교 뒤 용맥 입수 모습 ····· 91
<사진4-12> 혈증이 서린 느티나무와 왼편 일관헌 모습 ····· 92
<사진4-13> 주산인 모지 오름 ····· 94
<사진4-14> 모지오름 밑 알봉의 모습 ····· 95

<사진4-15> 정의읍성 조산의 사신사들 ····· 96
<사진4-16> 영주산에서 본 주변의 사신사 모습 ····· 97
<사진4-17> 영주산에서 본 모지오름 ····· 99
<사진4-18> 남산봉에서 본 영주산 모습 ····· 100
<사진4-19> 포제동산 ····· 101
<사진4-20> 서문에서 바라본 남산봉 ····· 103
<사진4-21> 정의읍성의 물의 득수처 ····· 107
<사진4-22> 객사의 정면 ····· 109
<사진4-23> 남산봉에서 본 한라산의 산세 ····· 110
<사진4-24> 현 일관헌과 대문전경 ····· 112
<사진4-25> 현 객사 후면 전경 ····· 115
<사진4-26> 현 정의향교의 명륜당 ····· 119
<사진4-27> 현 남문 성곽의 모습 ····· 122
<사진4-28> 정의현 포제단 전경 ····· 124
<사진4-29> 포제단 주변의 바위모습 ····· 125
<사진4-30> 조일훈 가옥 안거리 ····· 127
<사진4-31> 안거리 뒤 용맥입수 모습 ····· 130
<사진4-32> 이영숙 가옥 안거리 뒷면 석맥 입수 ····· 131
<사진4-33> 한봉일 가옥 대문 전경 ····· 136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바람(風)과 물(水)은 집이 들어서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태풍과 같이 강한 바람이 분다든가 홍수나 한발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기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 좋다. 따라서 사람들은 주거지를 선택할 때 바람과 물을 따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풍수'를 관찰하는 인식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1)]

즉 자연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동양적 우주관이 싹이 트이며 자연 법칙에 기인한 대자연이 순환하는 순행의 원리와 법칙을 일깨워 풍수지리라는 자연 학문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것을 형성하는 것 중 특히 땅 속을 흐르는 기(氣 ; 地氣)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氣 ; 天氣)의 도움을 얻어 지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생산하는 원동력이 된다.

천기(天氣)와 지기(地氣)의 밀도와 분포는 일정한 것이 아니다. 밀도가 느슨한 것은 위로 올라사서 기체가 되고 조밀한 것은 응고되어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된다. 기(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추기 때문에 (氣乘風則散界水則止) 바람막이가 되고 물의 흐름에 막혀서 기(氣)가 취결(聚結)되어 있는 자리가 좋은 땅(吉地)이라 한다.

풍수(風水)란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준말이며 풍수지리란 주거(住居)·분묘

1) 박시익, 1999,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도서출판 일빛, p13

(墳墓)·사찰(寺刹)·도성(都城) 등을 축조하는데 있어 산세(山勢), 지세(地勢), 수세(水勢) 등 지상(地相)을 판단하여 이것을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에 연결시켜 설명하는 학설이라고 볼 수 있다.[2)]

이처럼 기(氣)로 형성된 모든 것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우주만물에 대한 실체를 인간의 사고로 그 대상을 인정함으로써 인간과의 상호 관계성을 밝혀 인류문명의 발전을 꾀하였으며 "神은 自然을 만들었고 人間은 都市를 만들었다."라고 J.M.Cowper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역사 이래 정주지(定住地)를 만들어 왔으며, 인간이 창조하는 환경은 가장 이상적인 질서 체계를 반영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지리적으로 그 지형의 자연적인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곽을 쌓아 마을 공간 구조를 이루어 내부 시설물의 위치 및 가로 체계와 행정 구역과 연관되어 발전되어 왔다.

촌락과 전통도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읍의 공간구조연구를 간과하고서는 전통적 한국정주환경의 전체적 맥락을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학문적 추이와 배경 속에서 읍성 구성 연구는 그 독자적 연구 의의와 함께 기존의 마을 연구와 전통도시 연구에도 중요한 보완적 연구의 비중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래에 제기되고 있는 민속마을 보존과 민속촌개발, 전통적 도시미의 보존과 계획수립에 유용한 지침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

그러나 현대는 산업 문명의 발달로 인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도시 공간 구성으로 말미암아 그 지형의 지세와 공간 구조의 변화가 심하게 훼손되어 기(氣)로 형성된 우주 공간의 조화(造化)가 깨져 결국 이상 기후 현상을 초래한 것은 기(氣)의 흐름을 복원하려는 우주 에너지의 조화(造化)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이야기 하듯이 땅, 산, 강, 바다 등에

2) 김기선, 2005, 풍수지리학개론, 형설, pp11~12

3) 박찬용, 1984, 조선시대 읍성정주지의 경관구성연구, 한국조경학회지, p24

대한 형이상학적 이치인 지리(地理)가 좋아야 정주지(定住地)가 제일 조건이듯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풍수지리 사상을 주변의 지형·지세 등 자연 환경의 여건을 토대로 한 양기풍수를 옛 선인들의 계획된 성곽과 읍성 또는 마을의 터잡기로 사용한 전통적인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 정의읍성을 입지의 지형·지세와 공간 배치를 풍수적으로 해석하여 우리 전통사상을 알리며 도시 계획에 있어서 환경과 삶의 조화를 재구성하는 의의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제주에는 역사적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3현 3읍성이 설치되어 운영되어 북쪽에는 제주읍성, 서남쪽에 대정읍성, 동남쪽 중산간에 정의읍성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보존된 정의읍성을 대상으로 계획 당시 입지의 선정과 공간 구성의 배치 관계를 양기풍수 이론에 근거하여 형기적, 형국적, 이기적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로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1423년(세종 5년)에 성산 고성에서 현청이 자리잡은 고을로 설촌되어 20세기 초까지 지방 행정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표선면 성읍에 정의읍성이 설촌된 이후를 연구 범위로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해졌다.

첫째, 일반 문헌과 연구 자료를 통해 풍수지리의 이론을 확인한다. 둘째, 고대 문헌을 통해 읍성에 대한 터잡기와 공간 구성에 대하여 입지와 평면 형태, 중심 공간의 기능과 배치 및 상징성을 양기풍수 이론으로 확인한다. 셋째, 정의읍성의 입지 형성에 대한 지형, 지세 연구는 고지도, 등고선도, 위성항공 사진, 산맥도로 확인한다. 공간 구성의 배치 연구는 고문헌과 풍수지리의 이론에 의해 형기, 형국, 이기적으로 해석한다. 넷째, 정의읍성 내부를 중심으로 고문헌과 현지 답사에 의해 주변 환경을 풍수적으로 해석한다.

제2장 풍수지리의 사상과 이론의 형성

제1절 풍수지리의 사상

1. 풍수지리의 사상

인간의 생활은 자연의 바탕 위에서 영위되고 있으므로 생활에 요구되는 각종의 자원적 근원은 모두 자연의 소산물에 의존하게 된다. 인간의 활동은 일종의 자연과의 “同化作用”이며, 인간의 사고는 자연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느낌이라고 해석된다. 문화는 인간과 자연의 접촉과 느낌의 표면적인 형태를 말하게 된다.

인간의 생활이나 사상은 모두 자연(自然)과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지구상의 공간과 시간에 따르는 자연의 변화는 생활 지역에 따라 독특한 문화가 형성(形成)되게 하였으며 이러한 생활과 사상(思想)은 수천 년을 지내 내려오면서 더욱 현실적 가치(價値)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랜 생활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사실들은 그의 깊은 내용에 대한 시대적인 연구가 지속되어 발전의 바탕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원시생활에서 발견된 불(火), 천체(天體)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인 曆,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밝히는 동양의 철학 등은 모두 고대인들로부터 발견된 생활의 지혜이며 오늘날 현대 문명의 발달은 이러한 고대인들의 업적의 연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풍수지리(風水地理)는 이러한 고대인이 가졌던 생활상의 지혜가 담긴 전통사상의 하나로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4)]

첫째, 단국신화의 환인과 환웅은 천신이나 태양신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태양 숭배 혹은 하늘 숭배 사상을 말한다. 천신은 지신과 결합하여 생명을 탄생시키므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 삼위태백에 관해서는 몇 가지의 이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삼위(三危)와 태백(太伯)을 같은 산으로 보아 삼신산을 태백산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산신(山神)과 통하며 산악숭배 사상과 맥을 같이한다. 여기서 삼신(三神)이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환인, 환웅, 단군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둘은 천신(天神)인 환웅과 지신(地神)인 웅녀, 그리고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탄생한 人에 해당하는 단군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두 정당성이 있으나 天, 地, 人 삼재(三才)의 합일과 조화를 전제로 하는 두 번째 해석이 한국 전통지리의 조화와 상생의 원리에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둘째,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제세이화(在世理化)의 이념은 전세나 후세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이치로 다스려 널리 인간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이상적 국가 건설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치는 자연의 순리, 즉 천지, 사물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조화로움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자연과 조화로운 현실에서의 이상적 국가 건설은 자연과 상생(相生)하고 조화(調和)를 이루는 이상적인 공간 창출이라는 전통지리 사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셋째, 애니미즘(Animism)이란 호흡, 생명, 영혼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Anima에서 유래된 말이며, 정령 숭배, 물신 숭배, 영혼 신앙 또는 만유 정령설로 번역되는 종교의 원초적인 형태의 하나로 정령 신앙이라고도 한다.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가 「원시문화」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즉 자연계의 모든 사물에 영혼(靈魂)이 존재한다는 생각이나 신앙을 말한다. 그리하여 우주에는 무수한 정령(精靈)이 있다고 보았고 이 다수의 정령 활동이 우주의 전 생명의 활동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애니미즘은 인간의

4) 박시익, 1987, 풍수지리설 발생 배경에 관한 분석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9~10

시원적인 신앙(信仰) 형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며, 신까지도 정령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이와 같이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정령 신앙은 우리 선조들의 자연에 대한 시원적인 인식이었고 전통적 민간 사상인 무속 신앙과 토테미즘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인식이 자연의 생명력을 인정하는 한국 전통지리(傳統地理) 사상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산악숭배(山岳崇拜) 사상과 산신사상(山神思想)은 예로부터 인간에게 산은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 이유는 지상에서 높이 솟아올라 있어 시조 내지 시조신(始祖神)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곳이 산 또는 산봉우리이다.

산을 외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민족은 거의 없다. 민족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산과 관련한 신들과 정령들에 대한 신앙(信仰)이 전해져 온다. 높이 우뚝 솟아 있는 모습, 광대한 크기, 세상과 멀리 떠나있는 신비스러운 분위기, 안개와 구름이 산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 산골짜기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 바위가 떨어지는 소리, 산울림의 반향, 힘 있고 고고한 자태 등, 모든 것이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가진 존재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들이다. 특히 산의 정상은 하늘에 가깝고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구름에 둘러싸여 있거나 구름을 뚫고 하늘의 신비한 영역에 닿아 있기 때문에 산은 천신(天神)이나 혹은 비의 신과 관련을 맺고 있다. 산정(山頂)의 세속으로부터의 분리성, 정상의 신비는 곧바로 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관념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산이 많은 한국에서 산신(山神)들이 많이 있다고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다섯째, 지모신 사상은 대지 및 특정 지역 토지가 지닌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초자연적 힘을 인격화해서 신앙화함으로써 형성된 개념이다. 대지가 지닌 위대한 생산력에 바치는 경외감이 대지를 곧 영원한 생명의 힘 또는 근원이라고 간주하게 되면서 대지신이라는 개념은 민간 신앙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

하게 된 것이지만 천신과 짝을 이루게 됨으로써 '천부지모', 곧 아버지인 하늘과 어머니인 땅이라는 가부장제적인 발상을 바탕에 둔 관념이 형성된다. 지모신(地母神)은 땅 자체를 만물의 생명을 잉태하는 주체로 의인화한 신으로서 인간의 전반적인 생활을 관장한다. 이러한 땅의 생명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지모사상은 지리법의 형세론(形勢論)에 수용되어 조산-부모산-태-식-잉-육 체계를 이루고 있다.[5)]

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풍수지리사상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에 「환인이 천하에 뜻을 두고 있는 아들 환웅을 위해 삼위태백을 살피니 가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天符印 3개를 주어 다스리게 하였다. 이에 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내려와 神市를 만들고 風伯, 雨師, 雲師를 거느리고 환웅천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환인이 삼위태백을 살펴보았다는 말은 한울을 건설하기 위해서 풍수지리를 보았다는 뜻이며 삼위태백(三危太伯)은 삼산곧, 주산, 좌청룡, 우백호 이른바 건, 리, 감을 말한 것이며 그 중의 태백산이란 또한 주산 즉, 건산(乾山)이다.」라고 하여서 한국의 고대에 이미 풍수지리의 이론이 국가 건설에 적용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래 산악국으로 도처에 有明堂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풍수조건에 적합한 곳이 실로 무수하여 결국 이러한 지역적 환경이 후에 풍수사상의 성행과 폐해를 유도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거니와 삼국시대에는 아직 중국으로부터 풍수에 대한 술법과 사상을 받아들인 듯한 행적은 없다고 하면서

5) 김연호, 2008, 한국 전통 지리 사상 연구, 영남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0~24

도 고구려 고분벽화가 4세기 후반 이래로 발달, 처음에는 생활도, 풍속도 위주이다가 6세기로 들어가면 사신도가 차차 유행하게 되는데, 이는 풍수의 도입이라 볼 수는 없어도 풍수적 사고의 기본 관념은 마련되고 있었다는 증거(證據)로 생각한다. 중국의 풍수사상이 한반도에 전래되기 이전에 풍수적 사고의 기본 관념은 이미 그 당시에 존재(存在)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유물이 남아 있으므로 이들을 보아서 대체로 풍수설이 신라사회의 상부층(上部層)에 전해진 시기 등을 추정(推定)할 수 있게 한다. 신라는 당이 건국하자 이와 긴밀한 유대를 맺고 각종 문물의 수용에 크게 힘쓰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풍수설이 이 시기에 신라에 들어온 것은 통일을 전후하여 능묘(陵墓)의 위치가 크게 변화한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

풍수설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왕족들의 능묘는 경주평야의 평지 등에 구축되었다. 그러나 진덕 무열왕 등의 능은 풍수설 상 명당에 해당하는 곳에 안장(安葬)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풍수설이 실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경주 삼국의 통일 즉, AD 668년을 전후로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된다.[6)]

중국의 개국 신화와 풍토는 땅을 이리저리 기어 다니며 출렁거리는 산줄기 등을 용이라 하던 중국적 발상에서 그들의 황제를 황룡(黃龍)에 비유하였고, 황하의 물줄기 풍토에서 득수가 우선이라는 풍수를 전개시켜 나갔던 반면, 우리는 천명사상에서 봉황(鳳凰)을 천자(天子)에 비유했고, 산악국가라는 풍토에서 장풍을 중요시한 것이었다.

이러한 민족 정서가 차츰 천명에서 진산(鎭山)쪽으로 흘러가자 숭산(崇山)에 대한 우리의 정서에서 독특한 풍수론이 자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형국론

6) 박시익, 1987,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33~239

이라는 우리 자생 풍수의 형성이었다. 초승달 모양의 지형을 하고 있는 경주 반월성, 불국사의 토함산 옥녀 세발형 등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7)]

3.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풍수지리사상

나말여초의 후삼국 시대에 왕건을 비롯한 지방 호족들은 신라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풍수사상을 이용하여 경주를 단봉포란형(丹鳳抱卵形)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주 남산이 단봉인데 애석하게도 경주에는 알이 없으므로 봉황이 날아갈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지방 호족들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역성 혁명으로 고려를 개국(開國)하여 왕권 강화 정책에 풍수를 이용하여 「훈요십조」제2항에서 모든 사원의 터는 도선이 산수의 순역(順逆)을 보아서 추점한 것이니 함부로 다른 곳에 창건치 말라, 다른 곳에 사원을 함부로 지으면 지덕을 손상시켜 국운이 길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는 사찰을 중심으로 한 지방 호족(豪族) 세력들의 기반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였다.

또한 제5항에서 “짐은 삼한 산천(山川)의 陰佑를 받아 대업을 이룩한 것이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의 지맥의 근본이므로 대업을 이룰 수 있는 만대(萬代) 지지(趾地)다.” 이 내용은 자신의 고려 건국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서경을 예찬하여 고구려 영토 회복의 북방 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제8훈에서는 차현(차령산맥) 이남의 금강 바깥에 있는 산형 지세가 모두 등을돌려 달아나므로 인심 역시 그러할 것이다. 호남 세력을 배제하는 시초가 되었다. 또한 왕권(王權) 강화 정책으로 지방 호족을 견제하려던 중앙 집

7) 장영훈, 2000, 생활풍수강론, 기문당, pp65~67

권 정책은 또 다른 귀족 간 문벌(門閥)로 인해 도참 풍수사상을 이용한 승려 묘청을 중심으로 서경에서 난을 일으켜 실패하기도 했다.

여기서 집권세력 뿐만 아니라,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개혁 세력과 소외되고 천대 받던 일반 민중들에게도 신분 타파의 혁명적 반지배 이데올로기적 이념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도 풍수지리사상을 이용했다.[8)]

공간적으로는 국역풍수, 지역풍수, 도읍풍수, 양택풍수, 음택풍수 등 규모별로 다양하게 펼쳐졌으나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한 호국 불교와 왕도 풍수를 중시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반풍수로 인한 폐단이 많았다.

조선시대의 풍수사상은 고려시대의 호국 불교와는 달리 선조 숭배와 효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왕실과 사대부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수용 되었다. 조선 초에는 풍수 관료들의 사회적 지위 뿐만 아니라 풍수학도 지리학(地理學)으로 개칭되어 그 학문적 지위가 공고하였으나 중기로 접어들면서 지관들의 사회적 지위가 중인 계급으로 떨어지고 또한 지관들이 잡과 출신의 여느 기술관들처럼 생업으로 풍수지리를 봐주게 됨에 따라 풍수사상의 보급과 저변화는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풍수사상은 도입된 중국 풍수서의 각론적인 내용들을 풍수사들이 각기 시각차로 이론적인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채 지리학설의 논쟁이 계속되었다. 유학자(儒學者)들에 의해 중국의 것이 여러 책을 모아 발췌 또는 필사본이 난무하여 반풍수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답산(踏山)을 모은 만산도나, 유산록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풍수와 도참(圖讖)이 구별되어 다소 학구적인 풍수사상이 정립되는 듯 하였으나, 중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사회적 혼란을

8) 정경연, 2003, 정통풍수지리, 평단, pp34~40

타고 풍수도참서인 정감록(鄭鑑錄)이 나와 정치적으로 정씨 왕조 출현을 예언하고, 공간적으로는 십승지(十勝地)라는 피난 보신의 길지를 제시해 주어 민중들의 길지사상으로 정착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 풍수이론상 명당이 아닌 곳이었다.

조선후기에는 유교사상으로 인하여 음택풍수론(陰宅風水論)이 발달되었으나, 암장, 투장 등 각종 풍수에 의한 범죄가 행하여졌고, 특히 반풍수사들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는 매우 심각하였다.[9)]

제2절 풍수지리 이론의 형성

1. 개요

1) 의의

풍수지리는 수천년 동안 내려온 한국의 전통사상으로 집터나 묏자리 또는 도읍을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다.

풍수지리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내려지고 있으나 산세나 땅, 물, 바람 등의 자연현상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인간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자연과의 조화와 안정과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터득하여 우리 인간에게 광명을 주도록 하는 학문으로 그 바탕은 기(氣)의 흐름이며 감여(堪輿)라고도 불리어졌다.[10)]

기는 우주의 본원으로 에너지(energy)이며 만물을 생성 소멸하는 근본인데 이러한 기의 흐름(풍수 고전에서는 이를 生氣라 함)을 풍수지리에서는 산세

9) http://cafe.naver.com/ddurura/1809

10) 강환웅, 2001, 생활과학의 풍수사상과 부동산, p 22

와 지형과 물의 흐름 및 방위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11]

2) 풍수지리의 이론적 기초

고대인들은 우주의 최고의 존재를 하느님이라 하여 숭배하였다. 따라서 하느님은 우주의 본원인 기(氣)라 할 수 있으며 하느님은 삼신과 오제를 통하여 자연과 인간을 창조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삼신오제사상을 이론화 한 것이 음양오행사상이다.

결국, 풍수지리의 이론적 기초는 삼신오제 사상과 음양오행 사상이다.

삼신오제(三神五帝) 사상

한반도에 살던 고대인들은 오래 전부터 강력한 독립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하느님을 숭배하며 높은 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냈다. 하느님은 조물주로서 모든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는 유일한 신이었으며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는 작업은 삼신(三神)을 통하여 이루어진다.[12]

삼신 사상에는 유교에서 주장하는 현실세계와 불교에서 주장하는 마음, 곧 영혼의 세계 그리고 신선사상에서 주장하는 인간과 영혼의 합일사상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삼신의 상징은 삼태극(三太極)이며 삼태극 문양은 신라시대에 왕가에서 사용하던 보검에도 새겨져 있으며 조선시대 왕릉 입구에 있는 홍살문에도 그려져 있다.

오제(五帝)는 하느님의 작용을 도와주는 다섯 신이다.[13]

---

11) 강환웅, 2001, 청오경·금낭경 현대풍수지리학회 교재 p 19

12) 박시익, 1999,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p 41

13) 박시익, 1999.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pp 43~44

이 신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으며 동·서·남·북·중앙이라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서로 떨어져 있으며 각각 고유한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색깔, 곧 오색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은 청제(靑帝)라고 하여 동쪽의 기운인 태양이 솟아오를 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여러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남쪽에 있는 신은 주제 또는 적제(赤帝)라고도 하며 뜨거운 태양처럼 청제가 만들어놓은 기운을 확산시켜 널리 뿌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서쪽에 위치한 신은 백제(白帝)라고 하며 주제가 번성시킨 만물을 수렴하여 다음을 위하여 쉬게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북쪽에 위치한 신은 현제(玄帝)라 하여 백제가 죽인 생명체를 쉬게 하는 신이며, 중앙에 있는 신은 황제이며 동서남북의 중앙에 위치하며 사방의 기운을 종합한 것이고 중심적인 기운으로 토성에 해당한다.

오행	방위	수	계절	색	사신사
수(水)	북	1, 6	겨울	검은색	현무
화(火)	남	2, 7	여름	붉은색	주작
목(木)	동	3, 8	봄	푸른색	청룡
금(金)	서	4, 9	가을	흰색	백호
토(土)	중앙	5, 10	변절기	노란색	사람

<표 2-1> 오행과 각각의 의미

음양오행(陰陽五行) 사상

음양오행 사상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양 철학의 기본 이론이며 한의학이나 사주, 침술, 관상 등 각종 동양 철학들이 대부분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풍수지리 역시 이러한 음양오행 사상에 근원(根源)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음양오행 사상의 음양설과 오행설은 초기에 각각 따로 발생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이론이 서로 이론적으로 결합해서 더욱 완벽한 철학으로 이루어졌는데, 음양설과 오행설이 서로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철학이 모두 자연에 대한 형이상학(形而上學)적인 이론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두 이론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음양설과 오행설이 동일한 이론으로 알려질 정도가 되었다.

음양설이나 오행설의 핵심 개념은 기(氣)이며 기는 자연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하며 분산된 기가 모이면 생명체(生命體)를 이루고 생명체가 죽으면 다시 기로 분산된다.

기에는 양기와 음기가 있는데 양기는 하늘에서 발생되는 기이며 음기는 땅에서 발생되는 기인데 양기와 음기가 결합되면 하나의 생명체로서 작용한다. 오행사상의 근원은 천문(天門) 사상과 오제(五帝)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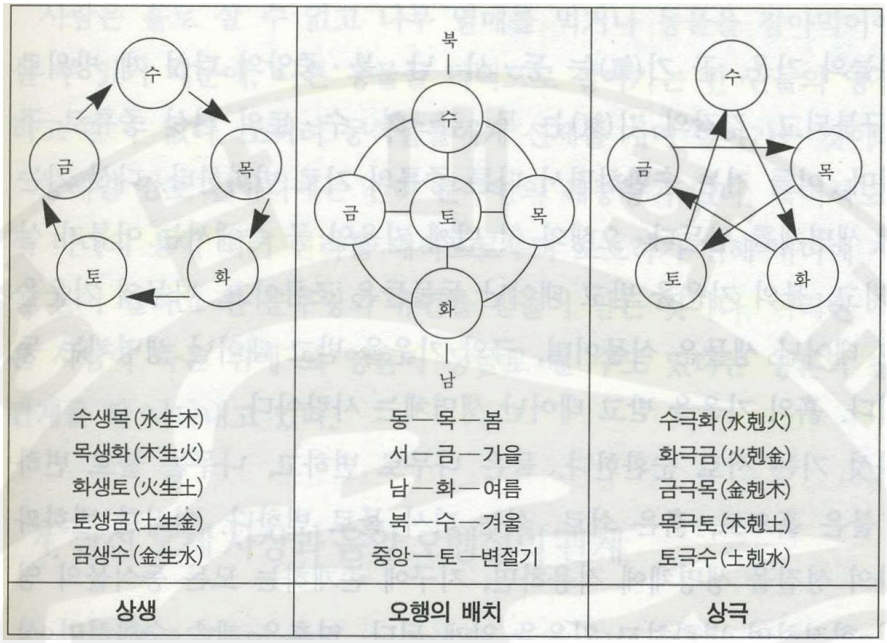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생활이 모두 하늘의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믿었고 별이 사람의 운명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점성술이 나타났으며 음양오행 이론도 이러한 천문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오행이란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의 다섯 가지 기운이다.

수(水)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고 목(木)은 나무와 같이 수직 상승하는 기운이며 화(火)의 기운은 불꽃과 같이 사방으로 확산되어 폭발(爆發)하는 힘을 말한다.

다시, 수축하려고 하는 힘을 금이라고 하며 土는 水・火・木・金의 기운을 골고루 갖고 있는 기운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하며 서로 다른 네 기운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포용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마치 흙이 모든 생명체를 포용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季節상으로는 환절기(換節期)를 의미한다.



<그림 2-1> 五行의 배치와 상생 · 상극

삼신오제(三神五帝)사상과 음양오행설과의 관계

음양사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음의 기본이 되는 땅과 양의 기본이 되는 하늘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이러한 이원적인 해석은 삼신사상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삼신사상에서는 자연을 천일(天一) · 지일(地一) · 태일(太一) 세 가지로 구분한다.[14]

천일은 하늘의 커다란 기운을, 지일은 땅의 커다란 기운을, 태일은 생명력의 근원인 영적인 힘을 말하고 영혼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결합해서 생명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며 삼신은 하늘의 작용인 것이다.

하늘의 작용을 주재하는 자는 하느님이며 우주의 본원인 기(氣)인 것이다. 음양이론에서는 생명력을 단순히 하늘과 땅 두 기운이 결합한 것으로 보고 천(天) · 지(地) · 태(太)의 삼신적인 구분에서 천지를 음양이론에 따라 양

14) 박시익, 1999,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p 51~52

분하는 방법이 발전했다.

여기에서 음양설(陰陽說)의 근원은 삼신 사상에 있고 오행설의 근원은 오제사상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음양오행설의 근원은 삼신오제 사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하느님은 삼신의 작용을 통하여 만물을 주재하며 이는 곧 기(氣)이며 풍수지리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기(氣)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만물은 기의 작용에 의하여 생장소멸이 이루어진다.

풍수지리(風水地理)의 이론적 배경

우주의 만물은 기의 작용에 의하여 생장소멸(生長消滅)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므로 풍수지리에서는 여러 기가 결합해서 인간에게 유익한 기운을 만들면 길한 것으로, 인간에게 나쁜 기운을 만들면 흉한 것으로 풀이한다.

길한 기운을 풍수지리에서는 생기(生氣)[15]라 하며 생기가 흐르는 땅은 산수가 조화롭고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곳이라 하며 이를 명당이라 한다.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이룬 곳은 山・水・方位 등을 고려하여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간이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인간적인 노력에 의하여 자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인간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山)・수(水)・방위(方位) 기타 단서들을 갖고서 지기를 파악하려는 모든 노력이 풍수지리 이론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16]

2. 풍수지리 이론의 형성

위에서 살펴본 생기가 있는 곳, 즉 명당(明堂)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지형(地形)에는 산맥, 평지, 하

15) 김동규 역, 1999, 人子須知, 서선계, 서선술 저.

16) 박시익, 1999,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p 54

천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은 산맥이 내려와서 평지를 이루고 하천이 감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평지는 산맥의 영향에 의하여 그 모습이 좌우되므로 우선 산맥을 살펴야 하며 다음에 평지를 살피고 하천의 모습을 살펴야 하며 다시 주위의 여러 가지 지형물(地形物)을 살펴야하는 것이다.

산맥(山脈)은 능선을 이루면서 진행하므로 이를 용이라 하고 명당을 이룰 수 있는 곳을 혈이라 하며 혈 주위의 지형물을 사(砂)라고 하며 龍 · 穴을 감고 도는 것을 물(水)이라 한다.

풍수지리 이론의 구조는 龍·穴·砂·水의 4대 구분을 따르고 이를 지리사과(地理四科)라 부르며 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간룡법(看龍法), 혈과 사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장풍법(藏風法), 혈과 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득수법(得水法), 龍·砂·水 와의 조화를 구하여 자리를 정하는 방법으로 정혈법(定穴法), 좌향론(坐向論), 형국론(形局論) 등이 있다.[17]

간룡법은 용의 흐름을 보고 그 산이 생기가 흐르는 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며 장풍법은 주산을 중심으로 명당 주변 산세(山勢)를 살피는 방법으로 명당 주변의 산세가 혈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가장 전형적인 장풍법은 사신사, 곧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 네 개의 산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정혈법은 간룡법과 장풍법을 통해 명당의 범위가 대략 정해지면 거기에서 가장 생기가 모이는 자리를 정하는 법이고 득수법은 물의 흐름과 산의 흐름이 조화를 이루는지를 판단하여 명당을 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좌향론(坐向論)은 방위론(方位論)이라고도 말하며 지세의 기운이 방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이며 형국론은 땅을 호랑이, 소 등 짐승이나 매화, 연꽃 등 식물이나 사람 모양으로 규정하고 비유된 동식물 등의 생태적 특징(特徵)을 통해 생기가 모이는 혈을 찾는 방법이다.

17) 박시익, 1999,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p 36

제3장 읍성의 형성 배경과 정의읍성의 공간 구성

제1절 읍성의 형성 배경

1. 읍성의 개념

1) 개념

조선 시대에 있어 읍(邑)이란 행정상의 위계와 상관없는 행정 단위의 명칭이었다. 이 읍은 그 정치적, 군사적 중요도와 읍 자체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읍의 중심을 성곽(城郭)으로 둘러 쌓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성곽을 읍성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邑城이란 명칭은 성곽의 분류상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념적으로 邑城이란 명칭에는 중앙에 대응하는 지방의 邑城을 지닌 도시라는 槪念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18]

邑이라는 집단정주환경은 촌락과 도시라는 대조적 개념의 전이적, 결절점(結節點)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읍성취락은 군현제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성립된 말단자치단위의 중심취락으로서 관아지구와 민가지구가 함께 수용된 밀집되고 기능화된 행정촌으로서 도시형성의 초기단계적 공간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邑城이라는 말은 邑이라는 지방행정단위의 지역적 경계부에 城을 쌓은 것을 의미하며 모든 읍에 성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

18) 李昶武, 1988, 조선후기 성읍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0

우리나라 邑城은 농업경제의 바탕을 이루었던 연안평야와 교역상 유리한 수륙교통의 요지로 특히 하천수계를 따라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며, 인구밀집과 하나의 일정한 행정관청을 가지는 등의 동일한 성격 밑에서 형성되었으므로 비록 외관직의 차등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유사한 취락경관을 구성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19]

邑城은 지방 행정부가 있는 고을에 築城되며 성안에 관아와 민가를 함께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읍성은 행정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함께 갖는 것이다. 또는 읍성은 지방 행정부가 있는 고을에 築城되어 잇고 그 성이 일차적으로 고을 원님에게 책임 지워져 있어 병사 등이 있는 군사적인 진, 보와 구별된다. 따라서 읍성은 행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邑"은 고을의 의미로 독자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각 위계의 행정 구역명에 붙여 京邑, 府邑, 州邑, 郡邑, 縣邑 등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읍은 도시적 정주 체계를 총칭하는 것이며, 府, 牧, 郡, 縣은 행정 체계상의 位階를 나타내는 것이다.[20]

2) 발생 배경

우리나라에서의 성곽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史記」조선전에 평양성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시기는 B.C 2세기에 해당된다. 남한에서는 이보다 훨씬 늦게 성곽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삼국지」위지동이전에 위하면 「변진에는 성곽(城郭)이 있고 진한에는 성책이 있으나, 마한에는 성곽이 없다.」라고 삼한시대의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21]

---

19) 박찬용, 1984, 조선시대 읍성정주지의 경관구성연구, 한국조경학회지, p24

20) 강 현, 읍성의 공간구조 및 건축물 변환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21) 심수보, 1990, 우리나라 성곽도시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삼한 지역의 城郭 축조에 대한 기록은 A.D 3세기 중반 정도라 한다. 城郭의 최초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군사적, 방어적인 면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성곽이 방어적 기능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며, 방어적 기능과 함께 경제적 기능인 영역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22]

2. 이념적 배경

邑城의 공간 계획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음양오행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발달한 풍수지리 사상이며 또한 주례고공기의 도성제(都城制)이다.

도시 형성기에 미친 이런 요소들의 영향은 주로 이념적, 상징적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즉 우주의 중심이라는 개념이나 풍수적 길지라는 개념을 서양의 도시가 상업의 발달에 의해 인구의 밀집 현상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한 것과 근본적인 차이를 갖게 하는 요소이다. 즉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시의 형성 단계에 있어서 하부 구조(사회적, 경제적)에서의 필요성에서가 아니라 상부 구조(정치적, 군사적)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역사적 도시의 모체가 형성됨으로 인해 한국의 도시는 서양의 도시와는 다른 발전 단계를 걷게 된다. 즉 城郭이라는 물리적 구조와 신분적 위계질서를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가로망의 형성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인구의 밀집이 일어남으로써 상업의 발달과 동시에 형성되는 서양과는 다른 단계를 밟아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나미영, 1997, 제주 성읍민속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p20

1) 음양오행 사상과 풍수지리 사상

陰陽五行說은 역사적으로 볼 때 동양의 철학, 사상, 윤리는 물론, 천문, 의학, 지리 등 현실적인 과학적 학문을 비롯하여 민간 신앙, 세시풍속 등 일상적인 생활의 전반에 그 영향을 미친 일종의 사상이다.

陰陽說이란 우주의 현상을 기본적으로 음, 양의 두 가지 상대적 관계로 파악하여 모든 것을 음과 양이라는 상대적 성질로 파악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오행설은 우주만물을 木, 火, 土, 金, 水의 다섯 가지 성질의 것으로 분류하여 이 다섯 가지 요소의 순행과 역행의 과정을 통하여 자연 세계와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을 풀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陰陽五行說로부터 파생된 風水地理의 경우에는 邑城의 발생 초기 단계에서 가시적인 영향력을 보인다. 風水地理說이 陰陽五行說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조선시대의 주택 구성 및 도읍지 선정, 묘의 선정에 큰 영향을 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風水地理說의 논리는 定住地의 선정이라는 측면에서 읍성의 발생 초기 단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즉 읍성의 입지적 측면에서 읍성의 위치는 鎭山을 뒤에 끼고 좌청룡, 우백호의 산세가 호위하는 형국에 앞쪽에 수계를 끼고 있는 형국을 주로 택하고 있다. 이것은 마을과 도성 모두에 양호한 조건의 정주지로 여겨졌던 입지로서 정주지를 선택하는데 주요한 인자로 작용하여 온 사항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주 단위의 향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쳐 그것이 국의 形局에 따라 남향을 피하고 지세적 향과 결합하여 향이 결정되는 현상을 보인다.

2) 주례고공기의 도성제

주대(周代)는 중국에 있어서 도시국가(都市國家) 체계가 완성된 시기로서 마치 서양에 있어서 도시국가 체계를 완성한 그리스처럼 동양에 있어서 형식적인 규범으로 존재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도시 계획에 있어서의 주례고공기의 영향은 이런 전형적인 규범으로서 영향을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다.

풍수지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도시 공간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중국의 고전「周禮」의 冬官考工記匠人條에 실려 있는 도성의 규범적 형태에 관한 기사를 보면, 「匠人營國方九里旁三門, 國中九經九緯. 經途九軌 左朝右社 面朝後市 市朝一夫」[23]

이는 단적으로 都城의 기능 배치는 佐祖(종묘), 右社(사직), 面朝(조정), 後市(시장)이 기본 기법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즉 왕궁을 중앙에 두고 좌편에 종묘, 우편에 사직, 전면에 조정을 그리고 왕궁 후면에 시장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실학자인 정약용 역시 그의 저서인 「경세유표」에서 이러한 내용의 도성계획 기법을 기술하고 있는데 「王城方九里 則 其九邑各方三里 其一區之內九小邑方一里一里三百步也」즉 "왕성은 사방 구리로 하고 그것을 아홉 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고 각 변을 삼등분하여 들어간다."고 하였다.[24]

이러한 주례고공기의 내용은 실제적인 도시 계획의 방법이라기 보다는 중화사상, 즉 중국적 세계관에 입각한 천하국가의 이념을 도시의 모습으로 표현한 일종의 이상 도시 계획으로 이해된다. 이런 이념적인 도시 계획 원리는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변형을 받기는 하지만 엄격한 질서이며 규범으로써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邑城에는 엄격히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며 다만

23) 강 현, 읍성의 공간구조 및 건축물 변환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5~49

24) 나미영, 1997, 제주 성읍민속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p 19~20

지형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본 원리에 있어서 엄격한 적용이 제한을 받음으로써 변형이 일어난다.

邑城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적인 면에서 기본적인 원리들을 일치 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 즉 조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客舍의 건물이 중앙에 위치함으로서 邑城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며 가로의 경우는 城門을 잇는 동서축의 가로와 客舍로부터 이어지는 남문의 중심가로 즉 남북축의 가로가 조명하게 부각이 되며 의식적 중심축을 이룬다.

이와 같이 주례고공기의 이념적 도시 체계는 읍성의 내부 공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념형적인 도시의 간략화 된 구현으로서 직교하는 가로 체계가 도입되었으며 이것은 조선 후기의 도시 발달 과정상에서 상업 기능의 추가와 더불어 공공가로로서의 성격을 획득하는 중심적 매개체가 되었다.

3. 정치사회적 배경

初期의 邑城이 갖고 있던 성격은 시가지 일부를 포함하여 객사, 관아 등의 건물을 두고 있어 행정, 군사적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初期의 邑城의 공간을 결정하였던 기능이 定住的 기능과는 상이함을 나타낸다.

1) 지방제도

조선시대에는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국을 8도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고, 그 하위 행정 구역으로 350개 미만의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등을 두는 등 군현제를 개편(改編)하였다.

이와 같은 군현제는 구한말 개항기(開港期)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졌다. 여기서 조선의 지방 제도는 도시의 규모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성격의 구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행정적인 면에서의 중요성에 의해 설정된 지방 제도는 한양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위계 구조는 읍성의 공간 구조에도 표현이 되어 있다. 즉 도성을 모방한 읍성의 구성은 그러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 제도는 후기의 사회상의 변환과 더불어 도시의 발달에 따라서 새로운 재편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상이 발전과 동일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이 조선의 봉건적(封建的) 사회를 해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들 수 있다.

2) 군사적 중심지로서의 역할

高麗 末의 외침에 시달려 북경 행성의 축조 등 성곽 축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고려 말 왜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沿海邑城의 축조도 계속되었다. 그리고 특히 세종, 성종 때에는 읍성의 축조가 활발하였는데, 당시 읍성 축조의 특징은 土築이었던 것을 石築으로 개축하여 방어력을 높이고 규모가 적은 것은 크기를 늘리는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읍성 중 이때 축조된 것이 많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당시 행정 구역 수 330개소에 읍성이 갖추어진 군현이 160개소였는데 읍성의 수는 190개소였다. 이 당시의 수많은 읍성 축조의 기록에서 살펴보다시피 읍성의 경우 초기 축조 배경에는 방어 목적이 가장 크다.

초기의 읍성은 定住 체계로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정치, 군사적 목적으로 발달하여 후대의 발달 과정상에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하였다.

邑城은 산지에 축조된 산성과는 달리 평지나 구릉지 지역에 축조한 경우가 많아 원형, 방형의 형식이 많았다. 이것은 기존의 방어 중심의 기능에서 後代

로 갈수록 도시적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부터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즉 城郭의 축조에 있어 도시적 성격의 증대에 따라 교통의 요지로 나오는 현상을 보이며 한편으로는 방어(防禦) 기능의 문제에 있어서 邑城과 定住地의 분리가 전란 후 定住地의 파괴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비합리적이라는 인식은 방어 체계와 定住地가 결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으로 발전하였다. 邑城의 경우 평지에 축조되는 것이 많아지며 이에 따라 원형과 방형 등의 정형적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이러한 행정 제도는 後期의 변환과 더불어 도시의 발달에 새로운 개편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상의 발전과는 동일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조선의 봉건적 사회를 해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들 수 있다.

平地城으로 邑城이 축조되는 현상은 조선 후기의 도시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 요소로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것은 방어 기능과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기능이 접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입지 구조이며 이것이 후기의 상업적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입지적 근거라는 사실 때문이다.[25]

제2절 정의읍성의 공간 구성

1. 정의읍성의 형성

1) 역사적 배경

조선 初期의 문신 “배추의 기”에 의하면 전라도는 토지가 넓고 인물이 많으나 제주가 그 절반을 차지하고 옛날의 탐라국이다. 한라산이 가운데 雄居하

25) 강 현, 읍성의 공간구조 및 건축물 변환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8~54

고 제주는 산의 북쪽에 있다. 산의 東西가 모두 제주에서 90리 거리이며 산의 남쪽 또한 멀다. 백성들이 왕래하는데 반드시 이틀이 소요되고 관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며칠 뒤에야 도착한다. 또한 관리 한 사람의 이목으로 민폐를 두루 살피기란 역시 어려운 일이다.

오 식이 부임하여 제주를 안무할 적에 제반 사항을 갖추어 조정에 보고하여 셋으로 나누었다. 서쪽에는 대정현(縣)을 두고 동쪽에는 정의현(縣)을 두었다.

정의현은 태종 16년 동쪽 27리에 있는 성산에 현을 두었으나 牛島에 가까워 새벽과 밤에 고각(鼓角) 소리가 들리고 큰 바람이 여러 번 불어 곡식이 흉년 들고 또 왜적의 침범이 잦아 도안무사 정 간에 의해 진사리(성읍리)로 세종 5년(1423년)에 옮겨졌다.[26]

정의현은 고종 원년(1864년)에 정의군(郡)으로 승격되었다가 고종 17년(1880년)에 다시 현으로 환원되었으며 고종 32년(1895년)에는 정의군으로 개편되었다. 1914년에는 정의군 · 대정군이 폐지되어 제주군에 통합되기에 이른다.[27]

정의 성읍 마을은 행정 구역상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 1리 일원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125m 내외의 산간 마을로서 해안 마을인 표선리에서 서북 방향으로 약 8㎞ 올라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원과 성산포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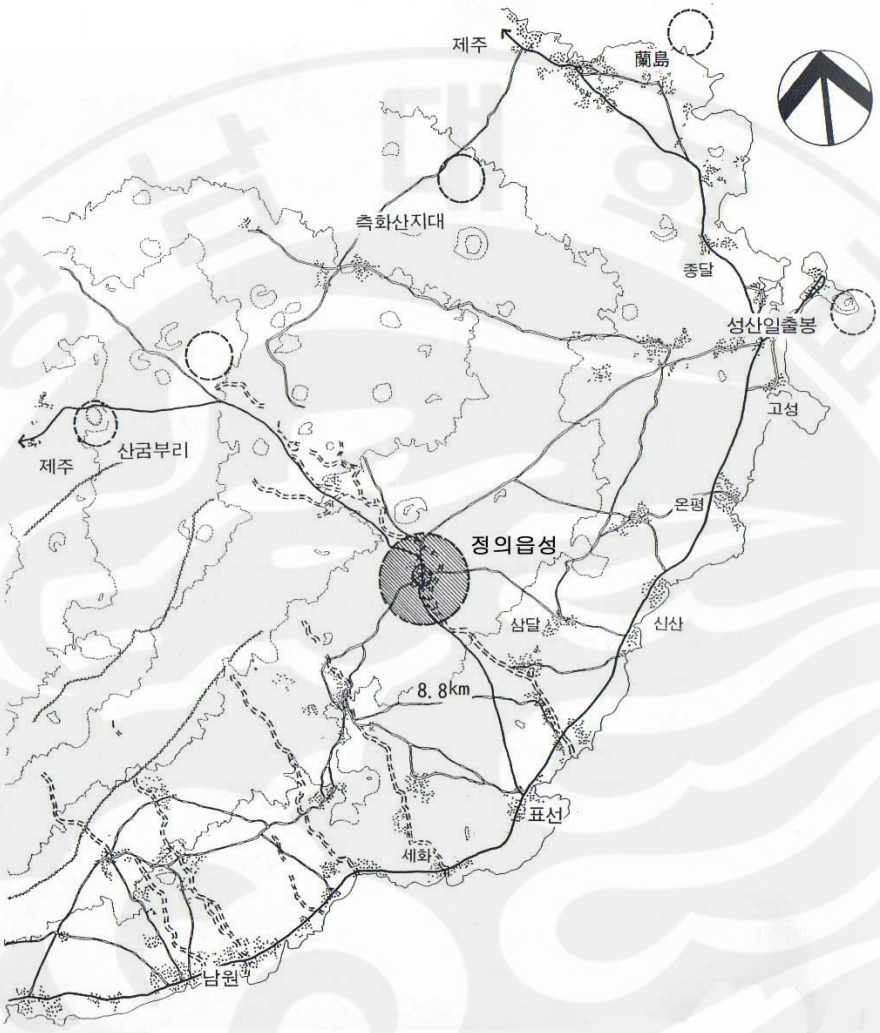
城邑 마을의 면적은 성곽 內가 103,510㎡ 이고 城郭을 중심으로 하여 城邑里 일대의 중요 보호구역의 면적은 총 790,747㎡ 이다. 城郭의 크기는 東西 약 160m, 남북 약 140m 인 약 3만 평의 귀죽인 네모꼴로서 현(現) 위치에 자리 잡은 후 20세기 초까지 지방 행정의 중심지였다.[28]

---

26) 이원진, 2002, 역주탐라지, 푸른 역사, p 231

27) 남제주군, 2006, 남제주군지 I 권, 남제주군, p 641

28) 남제주군, 1994,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남제주군, p 27



<그림 3-1> 정의읍성의 위치도

2. 양택 배치의 기본 이론

1) 입지의 조건

龍·穴·砂·水의 짜임새가 잘 구성되어 藏風得水가 잘 되었는지 물의 흐름

방향은 흘러 들어오는 방향이 逆水가 되고 빠져 나가는 방향은 마을에서 보아 보이지 않게 닫혀 있는지, 그 흐름의 속도는 급하지 않고 서행하는지, 그 폭은 넓은지 등 조수의 상태와 들의 형세는 넓고 적당한 구배로 평탄한지, 主山과 案山, 朝山 등 주변의 산 모양들은 배반격이나 보조격이 아닌 주인격에 해당되어 품위를 가졌는지, 흙의 빛깔은 밝고 양명한지 토질은 좋은지, 그 전체적인 형국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29]

2) 지세에 의한 배치

배산임수(背山臨水)

배산임수는 산을 등지고 물이 있는 쪽을 향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는 전형적인 풍수지리법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생기는 강물과 육지가 陰과 陽으로 조화를 이루는 낮은 지역에서 생겨나 바람을 타고 지상으로 옮겨진다. 생기 있는 바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집이 생기가 불어오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

생기 있는 바람은 물에서 일어나 산의 능선을 따라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다. 그러므로 집을 배치할 때에는 물이 있는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집안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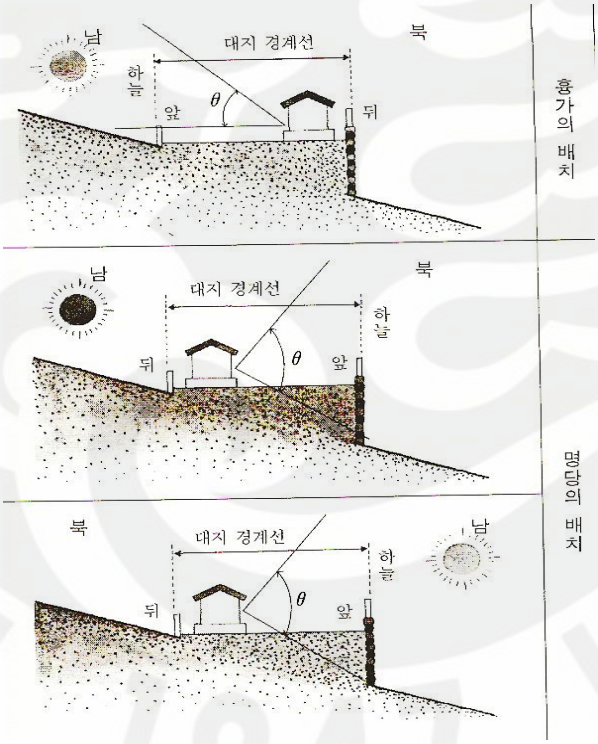
바람은 대류현상(對流現象)에 의해, 해륙풍(海陸風)은 맑은 날은 일사(日射)가 강하여 해면보다 육지가 빨리 고온이 된다. 고온이 된 육지의 공기는 팽창(膨脹)하여 상공으로 올라가고 그 빈 공간으로 해상의 공기가 밀려들어 온다. 이를 해풍(海風)이라고 한다.

밤에는 이와 반대로 육상에서 해상으로 육풍이 분다. 장애물이 없는 해상에서는 공기의 유동이 쉽고, 해상과 육상의 기온차가 대체로 낮에 크기 때문에

29) 이은동, 2007, 전통마을에 관한 풍수지리 분석, 영남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1~32

해풍(海風)은 강하고 육풍(陸風)은 지형이나 지면 마찰(摩擦)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산과 계곡에서는 산곡풍(山谷風)이 부는데 즉 지대가 높은 곳에서 지대가 낮은 곳으로 부는 바람이다. 낮에는 태양 복사로 인해 산의 정상 부분이 골짜기에 비해 빨리 가열되고 따뜻해져서 더운 공기가 산 정상 부분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 자리에는 골짜기의 찬 공기가 정상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를 곡풍(谷風)이라고 하는데 여름에 산 정상에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곡풍이 산 경사면을 따라 불기 때문이다. 주로 낮에 활동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바람은 물가에서 올라오는 바람이다.



<그림 3-2> 배산임수에 따른 배치 방법

배산임수(背山臨水) 배치는 물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실내 공기 압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바람이 집 안으로 불어오는 쪽으로 建物을 配置하면, 집안 기압이 높은 기압의 바람으로 조금씩 높아진다. 기압이 높아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도 氣運을 받아 건강해 진다. 바람을 등지고 배치하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집 앞 부분에서 회오리바람이 되어 집 안 기운을 훑어 나간다. 그러므로 집안 압력은 떨어지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떨어진 압력으로 인해 기운을 잃기 마련이다. 기운을 잃으면 건강을 잃게 되고 건강을 잃으면 경쟁력을 상실해 직업을 잃거나 손해를 보는 등의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

남쪽 지면이 높고 북쪽 지면이 낮은 대지에서는 지면이 높은 남쪽이 건물의 뒷면이 되고, 북쪽이 건물의 전면이 되는, 북향 배치가 배산임수에 따른 배치 방법이다. 그래야 북쪽에서 불어오는 생기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향 건물은 태양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배치 방법이다. 남향으로 배치하면 태양빛이 집 안 깊은 곳까지 들어와 건강하고 따뜻한 집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건물에서 앞을 보면 정면에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 중압감(重壓感)을 느끼게 되고 산이 하늘을 가로막아 넓은 하늘을 바라 볼 수 없다.

또 북쪽에서 불어오는 생기를 막고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운을 빼앗기게 될 뿐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바람이 주택 내부에서 회오리바람을 발생시켜 주택의 기운을 빼앗아 가게 된다.

背山臨水 배치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韓國 傳統 建築 配置 방법이다. 궁궐과 寺刹은 물론 개인 주택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이 방법을 적용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상적인 배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배치 방법은 배산임수와 남향을 동시에 이루는 방법이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햇빛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세, 곧 남쪽으로 경사

진 땅이 가장 이상적인 땅이다.[30]

결국 배산임수란 살풍(殺風)을 피하여 보국된 안정적인 택지를 찾아 천기지기의 조화된 정기(精氣) 속에서 가족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길한 배치의 방법이다.[31]

전저후고(前低後高)

지면에서 조금이라고 높은 부분에 집을 짓고 지대가 낮은 쪽에 마당을 두어 내려다보게 하는 배치 방법이다. 그렇게 배치한 집은 일조와 오폐수 처리가 원활하고 조망권(眺望權) 확보도 용이하다.

지면의 높낮이가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강이나 바다가 직접 보이지 않은 지세에서는 빗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낮은 쪽으로 해서 마당을 만들어, 건물에서 빗물이 내려가는 쪽을 바라보게 한다.[32]

전저후고(前低後高)는 세상에 영웅호걸(英雄豪傑)을 낸다고 하는데 요즈음은 그 반대의 집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경사진 지역에서는 전저후고의 택지조성이 가상법의 원칙이나, 뒤에 축대를 쌓아 남향집을 고집하는 사람이 많다.

경사도에 따라 주위 환경도 불안하고 가상도 불안정하게 되어, 공기순환이 불순하니 불길한 가상이다.[33]

설상가상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고 그 속도가 빠르면 집안에 환자가 끊이지 않게 되는 병폐까지 닥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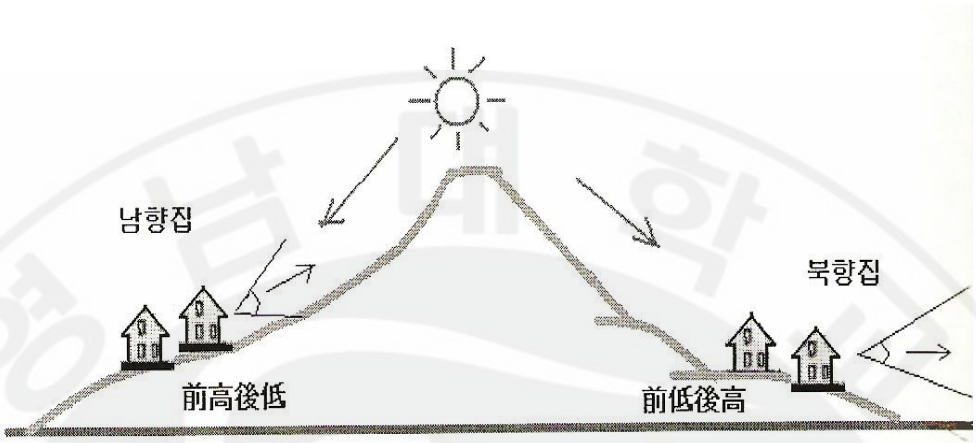
---

30) 박시익, 2006. 한국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pp 184~189

31) 류태우, 명당입문, 음양맥진출판사, p 323

32) 이은동, 2007, 전통마을에 관한 풍수지리 분석, p 34

33) 류태우 , 명당입문 ,음양맥진출판사, p 325



<그림 3-3> 남향집이 나쁘고 북향집이 좋은 예

전착후관(前窄後寬)

전착후관(前窄後寬)이란 건물의 대지는 물론 구조도 사람이 출입하는 대문까지는 좁고 협소하고 대문의 안쪽은 너그럽고 안정감 있게 넓은 형태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의 탁한 공기가 내부의 순환(循環) 공기와 갑자기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하나는 대문으로 들어오는 생기를 밀도 높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폭으로 되어야 하지 너무 넓은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34].

風水에서 도로는 기운, 곧 바람이 통하는 길을 뜻하고 바람은 생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도로에 인접해 있는 정도에 따라 그 집 기운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도로는 주변에 생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바람이 잔잔한 도로 쪽이 명당에 가깝다. 주택의 경우 너무 넓은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의 모퉁이, 직선 도로, 막다른 도로, 대지

34) 이은동, 2007, 전통마을에 관한 풍수지리 분석, 영남대 석사논문 ,p 35

의 앞뒷면에 도로가 있는 대지는 좋지 않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기의 저장과 순환을 위해서 좁은 것은 좋지 않고 넓은 것이라야 한다. 이는 실생활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경공간(造景空間)과 외부 작업 공간 등이 있어 편리하게 된다.[35]

3. 정의읍성의 공간 구성

1) 개요

정의읍성의 역사적 건축물은 크게 城郭과 권위 건물, 민가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곽은 다시 체성(體城)과 성문(城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체성(體城)은 구간 구간 원형이 보존된 부분이 있는데 반해 3개의 성문(城門)들은 모두가 원형(原形)을 잃어 현재 서문과 남문을 복원한 상태이다.

권위(權威) 건물로는 여지도서 및 정의읍지들을 보면 정의현의 관아시설과 관련하여 성내에 문묘, 객사, 현아, 향청, 무학청, 진무청, 가율청, 작청, 현사, 사창, 서별창, 군기고, 대동고, 평역고, 형옥, 남성루, 산정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해오는 건물은 일관헌과 향교 건물인 대성전과 명륜당 뿐이었으나 최근 객사가 복원되었다.

민가 건물은 제주 특유의 초가집인 반원 형태의 지붕으로 성내와 성 밖에 분포되어 있다.

35) 박시익, 2006,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p 189

2) 건축물 및 시설물

성곽(城郭)

정의읍성은 당초 성산읍 고성에 있던 것을 세종 5년(1423년) 축성 당시 성의 둘레는 약 1200m(2980尺), 높이는 4.3m(13尺)이었는데, 동·서·남쪽에 각각 성문을 두었다. 이 읍성은 동서가 남북보다 약간 짧은 자연스러운 장방형의 평지성으로서 옹성은 모두 7개, 문루는 동, 서, 남쪽에 3개가 있으며, 현무암으로 쌓아진 협축성이다.

현재 성체는 남북 관통 도로로 인하여 헐려있으며 동문지 쪽으로도 복원이 안 된 상태이다.

城郭의 높이는 균일하지 않고 2.6m 에서 3.5m 에 이르고 있다. 城體의 폭 역시 변화가 심하여 좁게 1.6m에서 넓은 곳은 3m 에 이르고 있다.

정의읍성의 규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원진의 탐라지(1652)로서 城둘레가 2986尺, 높이가 13尺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제주읍지(1780)에도 동일한 치수로 기록하고 있다. 1793년에 만들어진 제주대정정의읍지에서는 城주위를 尺으로 표기하지 않고 1990步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여장이 180이고 東·西·南에 3개의 문루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신중보동국여지승람에는 城郭의 칫수는 2986尺으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제주읍지(1780)에도 동일한 치수로 기록하고 있다. 되어 있는 것은 오기(誤記)인 것 같다.[36] 그 외의 기록으로는 동국여지, 여지도서, 증보문헌비고 등이 있으며 치수는 위에서 언급된 것과 거의 동일하다.

문루(門樓)

정의읍성은 원래 東·西·南의 3곳에 문루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36) 남제주군, 1994,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남제주군, pp 74~76

현재는 西門과 南門만 복원되어 있는 상태이며 東門은 문지만 있을 뿐이다.

문루는 유사시에 장수의 지휘소가 되며 평소에는 출입의 통제소로 사용되는 곳이다. 중요한 성곽의 성문에는 반드시 문루를 두어 외관을 돋우고 위엄을 갖추었는데 도·읍성의 주요 城郭에는 문루를 중층으로 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성곽에는 단층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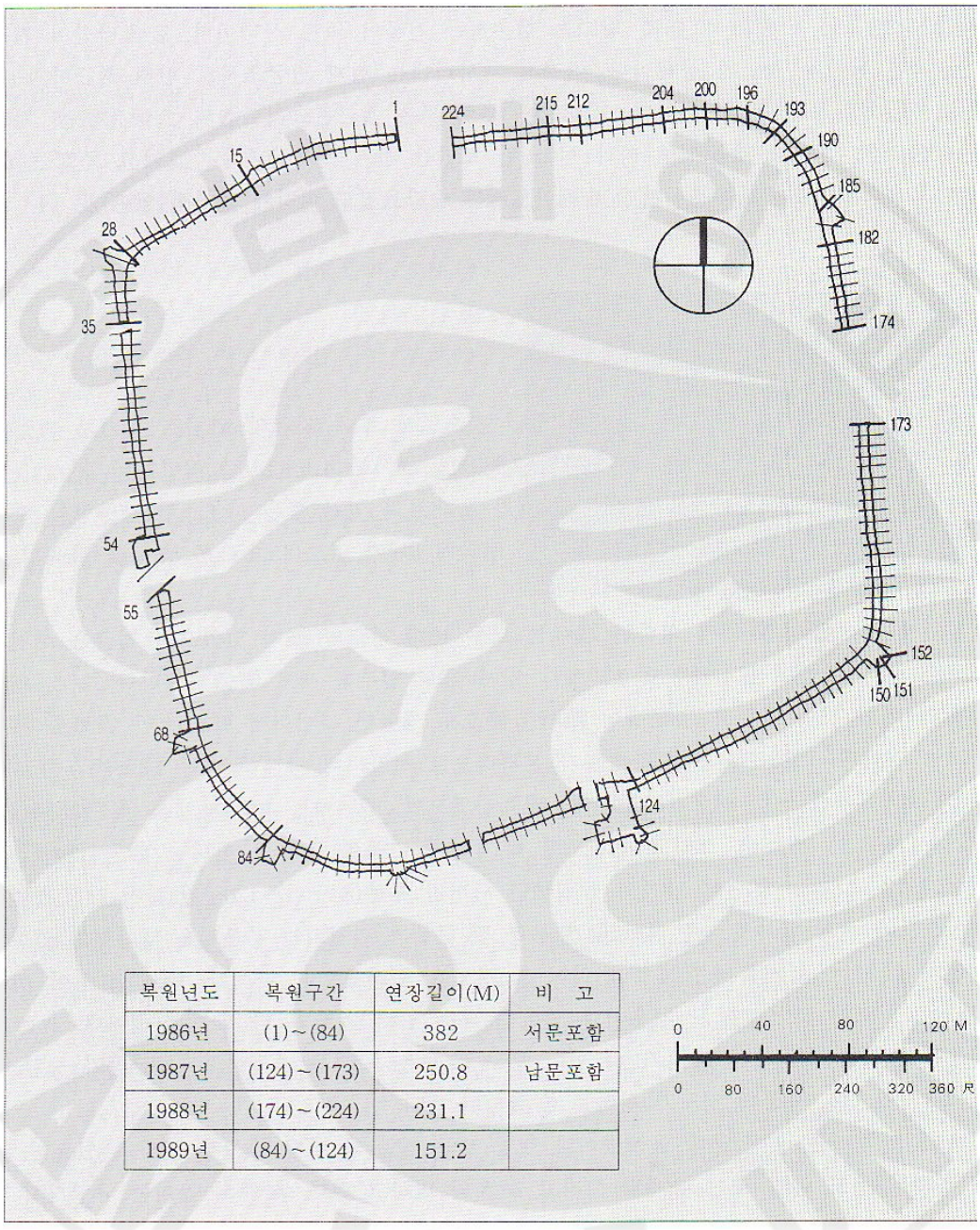
기록에는 정의읍성이 3개의 문루를 갖고 있다고 밝힐 뿐, 그 구조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 서술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북을 울려 출입을 통제했다는 기록을 미루어 볼 때 누각 형식으로 추측된다.

18세기초 이 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에 그려진 문루의 모습이 형태나 구조를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지만 원근법이나 묘사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근사한 지는 규명하기 힘들다. 그러나 여기에 그려진 문루의 지붕이 기와가 아닌 초가로 그려진 점으로 미루어 애초에 초가지붕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37]

지금은 통과 도로에 의해 없어졌지만 북쪽에 기두정(奇斗亭)이라는 누정(樓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체의 높이를 살펴보면 북쪽의 높이가 가장 높으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낮아지는데, 이는 성 안의 북쪽에 위치한 관아 건물들을 방어하기 위함과 동시에 시각(視覺)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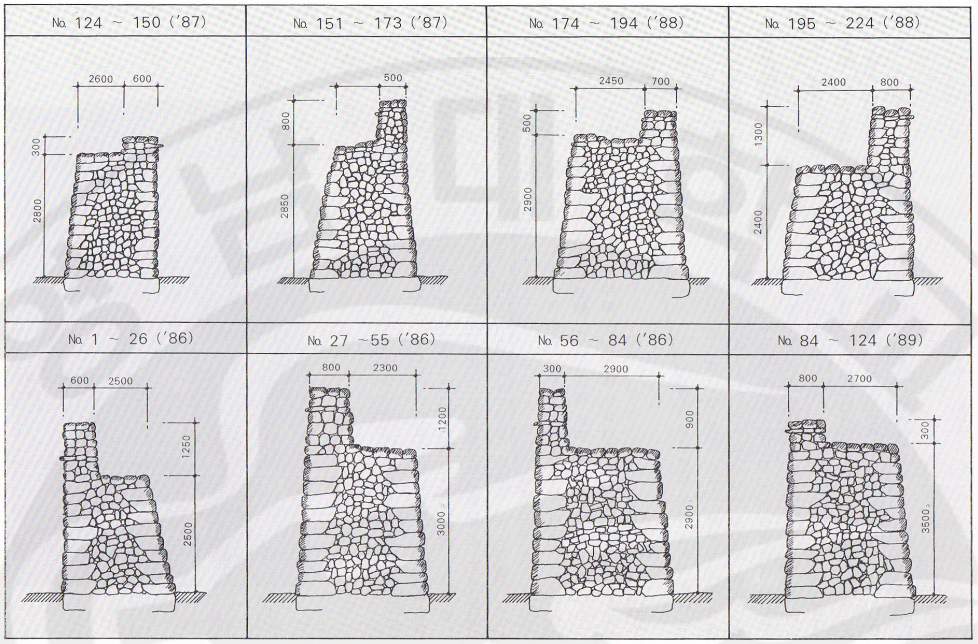
37) 남제주군, 1994,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남제주군, p 78

38) 나미영, 1997, 제주성읍민속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p40



복원년도	복원구간	연장길이(M)	비 고
1986년	(1)~(84)	382	서문포함
1987년	(124)~(173)	250.8	남문포함
1988년	(174)~(224)	231.1	
1989년	(84)~(124)	151.2	

<그림 3-4> 성곽 복원구간 표시도



<그림 3-5> 성곽의 복원 크기



<사진 3-1> 동문에서 바라 본 성곽

객사 (客舍)

邑城의 主 기능이 행정적인 것이었으므로 공간적으로도 행정시설이 중심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건물이 객사로 이곳은 중앙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 공간체계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객사 건물의 주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방관이 임금에게 정기적으로 보름 만에 배례를 올리는 기능과 둘째, 중앙관리가 내려오면 이곳을 거처로 사용하는 숙소의 기능이다. 또한 객사 안의 마당은 종종 경로잔치나 연회를 베푸는 곳으로도 사용되었다.[39]

보통 객사의 위치는 성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헌을 중심으로 논할 때는 동헌의 동쪽 또는 서쪽이거나 북쪽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동쪽에 놓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40]

객사 건물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솟을지붕을 한 정청 3칸을 두고 좌우에 동서 익사를 정청과 나란히 두면서 익사의 지붕은 정청보다 한단 낮게 만들었다. 이정청이 전패를 모시어 정기적으로 배례를 올리는 공간이며 익사는 숙소로 이용했던 곳이다.

정의현 객사의 위치는 동현, 혹은 성중(城中)이나 남(南) 성내(城內) 등 문헌마다 기록이 다르다. 1702년 (숙종28) 이형상 제주 목사가 남긴 탐라순력도 가운데 정의현 순력 광경을 그린 “정의강사”와 “정의양노” 등에는 당시 객사의 모습이 팔작지붕에 4칸 건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객사 마당 앞에 8칸 규모의 문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객사건물이 관아나 향교에 비해 매우 크게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앙의 권위가 강하게 표현되는 초기 읍성의 공간구조를 나타낸다.

현재 객사는 2000년 정청과 좌우 익사를 둔 건물로 복원되었으나 탐라순력

39) 남제주군, 1994,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남제주군,pp 215~217

40) 나미영, 1997, 제주성읍민속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p42

도와 달라 논란이 되었고, 실제 탐라순력도에 그려진 객사는 “一”자 평면의 좌우에 익사가 없는 단일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현의 객사에 대해서 조사한 제주대학교 박물관 측은 1993년 12월 객사지 중요 유구로서 건물지(2)와 전물지(3)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면 1칸, 측면 여러 칸의 건물지(1)를 발표하였다.[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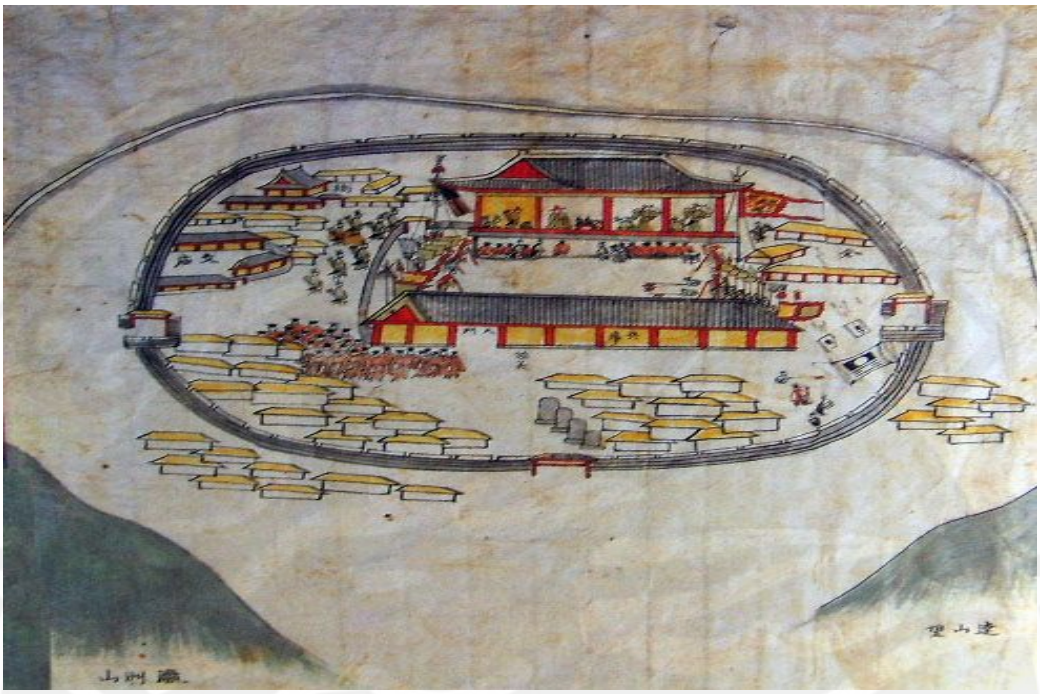
건물지명	발굴된 추정 규모	건물지의 성격
건물지(1)	남북 12.8m 동서 8.2m	남북장축 건물, 1칸 온돌시설, 정면다칸 측면 1칸건물 추정
건물지(2)	남북 12.5m 동서 14.0m	동벽과 서벽 시설, 내부는 판석군으로 부석
건물지(3)	남북 12.5m 동서 22.4m	정면(남쪽)기단석렬 정연하게 축조, 내부 부속시설

<표3-1> 객사 중요 건물지의 규모



<사진 3-2> 남문에서 본 현 객사 정문

41) 남제주군, 1994,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남제주군, pp 218~219



<그림 3-6> 탐라순력도의 정의강사



<그림 3-7> 탐라순력도의 정의양노

일관헌(東軒)

동헌은 고을 수령이 집무하는 장소로 수령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 건물은 격식적인 면에서 객사 건물에 비해 한 단계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기능 면에서는 객사보다 훨씬 복잡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 역시 동헌이 포함된 관아 쪽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헌의 위치는 읍성 내에서 중앙의 북쪽에 자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도성 계획적 측면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데, 비록 북쪽에 위치하여 방어 상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공간에 위계감이 생겨 지배계급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치는 도성(漢城)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원리로서, 읍성이 비록 도성보다 규모 면에서는 작을지라도 계획원리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원리는 정의읍성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의현의 동헌인 일관헌 역시 객사를 왼편에 둔 성안의 중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42)]

현 일관헌은 정의 현감이 정사를 보던 현청으로서 세종 25년(1443)에 창건되어 고종 광무 2년(1898)에 중수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75년에 복원된 것이며 정면 4칸, 측면 3칸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이다. 이는 동헌의 일반형인 5칸이 아닌 4칸이고 측면이 2칸인 19세기 이후 민가의 간잡이를 하고 있다. 단지 두벌대 현무암 기단 위에 합각지붕으로 외형적인 권위를 갖추고 있을 뿐이다.[43)]

현 일관헌은 당시의 위치에 있으나 그 향이 正南에서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이 건물 서쪽에는 동면(東面)하여 내아가 있었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5칸 규모의 건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44)]

---

42) 나미영, 1997, 제주성읍민속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p44

43) 제주특별자치도, 2008, 성읍민속마을 주변 현상변경처리 기준 보고서,p44

44) 남제주군, 1994,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p84

실제의 관아들의 향을 살펴보면 꼭 정남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정의읍성의 관아 건물의 실제 향도 정남쪽이 아닌 서쪽으로 15° 돌려서 향을 잡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마을이나 民家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폐쇄적인 공간보다는 개방적인 공간을 選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성읍마을에서 시계가 트이는 곳은 水口가 위치하는 곳으로 성읍에서 보면 남산봉의 끝자락에 위치한 동쪽과 아심선이 능선이 내려오는 남서쪽에 있다. 또한 예로부터 건물을 배치하는데 있어 안산은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좌우에 비껴두며, 대개는 조산의 8부 능선을 향하며, 아무리 빼어난 조산이라도 정면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45] 따라서 官衙가 향을 서쪽으로 바라보니 아심선이 稜線이 내려오는 끝자락이 시계를 트이게 하면서도 멀리 한라산의 한자락인 매봉을 朝山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즉, 지역적 특징과 원리가 잘 충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정의현에는 관아에 속하는 많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특히, 문헌상 나타난 관아의 건물 위치를 整理하면 다음 <표3-1>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 위치를 추정하여 그려보면 다음 <그림3-8>과 같이 나타난다.

45) 김홍식, 성읍리 공간구성의 연구, p 25

旌義縣 官衙施設 時期別槪要

官衙 \ 時期	耽羅誌 (1652年)	濟州邑誌 (1780-1789年)	濟州/大靜旌義 邑誌 (1793年)	耽羅誌 草本 (1842年)	輿地圖書 보유 旌義邑誌(1899)	備考
客館(舍)	東 軒	역 중	○	남 역 내	左 同	
縣 衙 (日觀軒) (지방문화재 제7호)	客 館 북 쪽	客 舍 북 쪽		현감의 정 당	左 同	1443창건, 1898중수, 1903년 홍종우 牧使「주시현감정당」이라 제편, 1975년 개수
官 廳	衙 남쪽					
鄕 廳 (향사당)		客 舍 서 남	○	日觀軒 남 쪽	左 同	1907년 私立의명학교 창설, 1909년 훼철하여 재와를 객사 중수에 사용
武學廳	縣 에 부속된 관 청	衙 남 쪽			今 無	
出身廳						
鎭撫廳		衙 남 쪽				
軍官廳			○	日觀軒 동 쪽		
假率廳		衙 남 쪽				
人事廳			○	日觀軒 남 쪽		
作 廳	衙 의 동 쪽	衙 동 쪽				
縣 舍		鄕 廳 남 쪽			今 無	1738년 創建, 호장 소거
司 倉		客 舍 동 쪽		東城내	今 無	
軍器庫	客 舍 동 쪽	客 舍 동북쪽		客 舍 동 쪽		
大同庫		鄕 廳 남 쪽			今 無	
刑 獄		衙 동 쪽				
倚斗亭	東 軒 뒤	客 舍 북 쪽		북 쪽 성역위		1830년 創建 1898년 중수
鄕 校		西 城 내	○	화원동		1809년에 성 북쪽 화원동으로 移轉
별과위	東 軒 동북쪽					
산 정	東 軒 뒤	客 舍 북 쪽		日觀軒 뒤		

<표3-1> 고문헌상에 나타난 관아건물의 위치[46]

46) 남제주군, 1994,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남제주군, p 241



<그림 3-8> 관가청 복원도[47)]

47) 남제주군, 1994,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남제주군, p 203



<사진 3-3> 현 일관헌 모습

향교(鄕校)

조선시대의 향교는 문묘를 보관하는 제례적 기능과 유교의 내용을 보급하는 교육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교는 한 마을에 하나씩 존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양지 바른 곳에 입지하였다.

정의향교의 대성전은 세종 5년(1423) 성산읍 고성리에서 진사리(현 성읍리)로 이설할 때 향교를 서성(西城) 안에 건립되었다가, 헌종 15년(1849)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고 1967년 보수하였다.

명륜당은 영조 14년(1738)에 세워졌으며 명륜당 남쪽의 수선당은 정조 2년(1778)에 세워진 것이다.

현재 복원된 건물은 대성전, 명륜당, 수선당, 수호사, 내삼문, 협문, 동재, 서재 등이 있다. 동재가 1997년 복원되었으며 수호사는 원래 수복고로 정의서

당 터이다.

대성전은 정동향을 하고 있으며 평면은 정면 5칸에 전후퇴 집이다. 구조는 7량집으로 제주향교의 대성전과 구조가 같다. 현재는 전면 왼쪽에서 두 번째 열의 중앙에 기둥이 하나 첨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보수하면서 받친 것 같다.



<사진 3-4> 현 향교의 대성전

전면퇴의 바닥에는 돌을 깔았으며 기단은 높이가 21cm 로 낮은 반면 초석은 원뿔 대형으로 높다. 기둥은 약한 민흘림 기둥이고 직경은 38cm로 굵다. 양식은 제주향교와 비슷한데 외출 목도리와 첨주로 해결한 점이 다르다.

명륜당은 평면이 정면 5칸 전후좌우퇴 집이다. 전퇴는 앞으로 개방되어 토방으로 사용되고 중앙 3칸은 마루로 되어 있어 청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온돌방은 좌우에 각각 있는데 제주도 민가의 평면 형식과 같으며, 구조 역시 7

량집으로 이것 역시 민가와 같은 방식이다.

전퇴는 바닥에 돌을 완자깔기 방식으로 깔았다. 기단은 45cm 높이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초석은 원뿔대형의 높은 것이고, 기둥은 약한 민흘림 원형기둥이다. 양식은 주택의 방식과 같은 것으로 기둥 머리에 양퇴를 맞추고 창방을 직교시켜 사괘 맞춤으로 올려놓으면서 창방 위에 바로 도리가 올라가는 형식으로 짰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나 최근 많은 보수로 원형이 변조되어 용마루끝과 추녀 끝이 올라가는 육지풍이 되었다.[48]

가로체계 (街路體系)

읍성 내에서의 가로는 儀禮的인 상징성과 交通路의 기능 및 주거지를 구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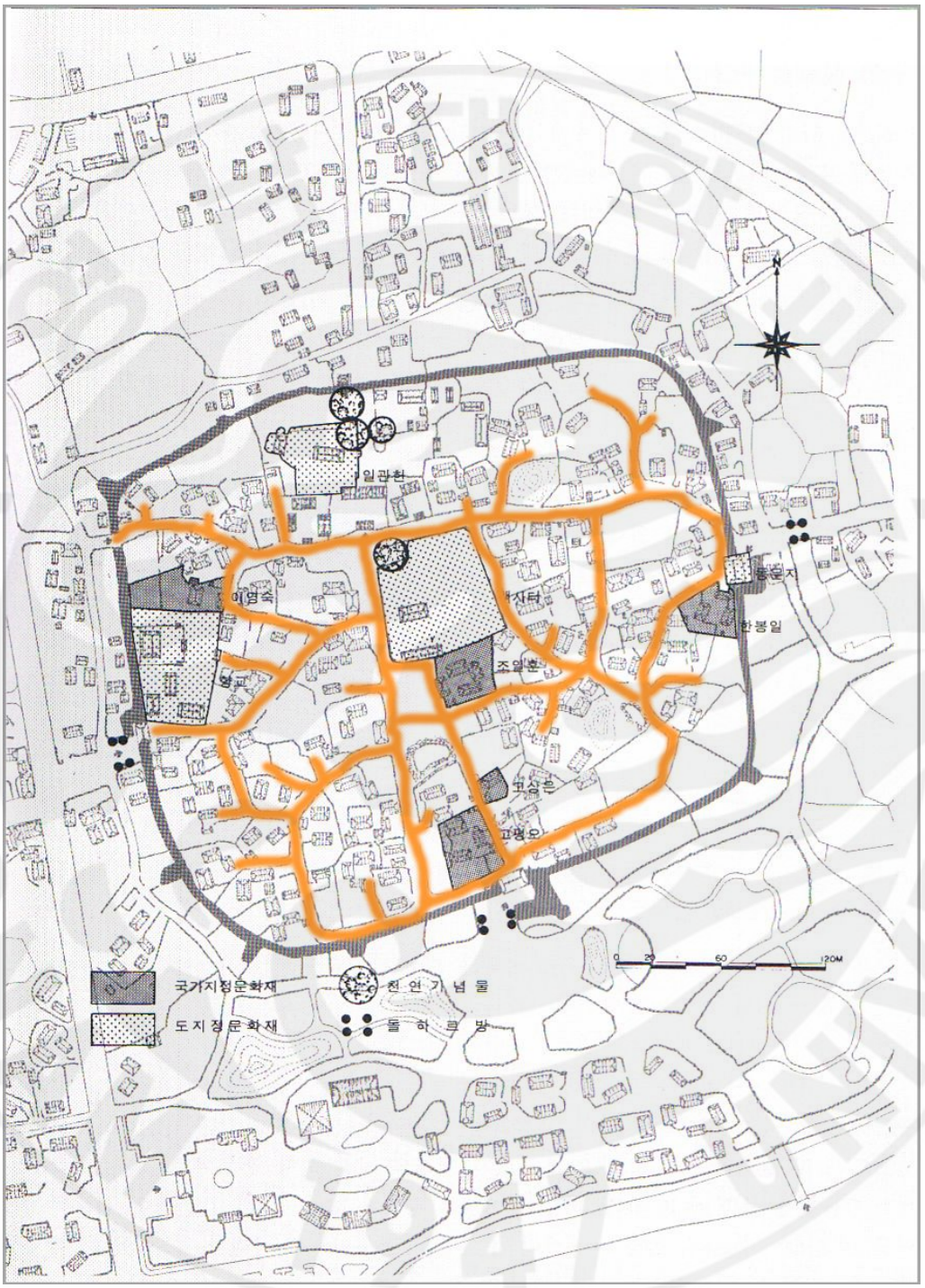
여지도서에 나타난 읍성 街路形態의 대부분은 十자형이나 T자형이었으며, 그 중에서 T자형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또한 북쪽에 城門이 있는 경우에도 지형상 막혀있거나 또는 죽은 자를 위한 통로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간선도로 유형은 T자형이 支配的이었다고 볼 수 있다.

T자형 간선도로체계는 의례적 기능과 읍성의 공간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즉 이것은 행정의 중심지인 관아 건물로 통하는 상징적 축을 형성하여 전체 읍성의 공간 구조의 骨格을 이룬다.

남북의 축을 형성하는 가로가 상징적인 축을 상징한다면 읍내의 중앙부를 동서로 관통하여 T자형의 결절점을 형성하는 도로는 읍내의 근간을 이룬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징적 가로'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동양의 전산업도시의 가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서양의 Vista를 이루는 가로의 개념과는 상이하다. 서양의 가로축이 直線的이며 遠近法的인 시각을 바탕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동양의 가로는 그러한 축의 개념보다는 宇宙論的 상징성에 그 기반

48) 남제주군, 1994,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남제주군, pp 84~89



<그림 3-9> 정의읍성의 가로체계

을 두고 있다. 즉 동일한 형태의 직교하는 가로축의 경우에도 서양의 가로는 機能的인 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데 반하여 동양의 가로는 상징적인 축의 표현으로서 구현된다. 이것은 그러한 가로가 한눈에 관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서양의 가로는 축의 개념이 명확한 단일초점을 가진 시각적 개념임에 반하여 동양의 축을 이루는 가로는 한눈에 관통되지 않고 공간의 겹침으로 인하여 연결되어지는 心想的 의미로 그 존재가치를 부여받는 가로라고 할 수 있다.[49]

남북의 축을 형성하는 가로가 象徵的인 축을 상징한다면 읍내의 중앙부를 동서로 관통하여 T자형의 結節點을 형성하는 도로는 읍내의 근간을 좌우로 관통하는 도로로 이 도로에서 官衙 및 鄕校와 같은 주요 시설의 진입로가 뻗어 나간다. 또한 성내에 필요 없는 통과교통은 성곽 밖으로 둥근 고리형의 길을 내었고, 성내의 길은 평탄하게 하기위하여 같은 높이로 길을 내었기 때문에 자연히 지형에 따라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다.

정의읍성의 경우도 그림을 통해 보면 중앙에 입지한 객사 건물로부터 남문까지 이어지는 남북축의 가로가 상징적 중심축을 형성하여 客舍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T자형의 결절점 부근은 객사의 대문과 연결되어 마당과 같은 공공의 공간 구성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망의 하나인 동서방향의 가로도 나타나는데, 이 도로는 직선이 아닌 활처럼 휘어져 있으며 이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길을 처리하는 것은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것과 함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행해 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관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작은 공간의 깊이감을 높여준다.

49) 이왕기 譯, 1987, 중국의 건축과 도시, 기문당, pp 106~107

세부가로 (細部街路)

T자형 길의 접합체계는 주도로의 줄기와 그곳에서 가지쳐 나가는 골목의 위계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즉 住居地의 진입을 위해서는 주간선도로에서 활꼴형태의 세부가로를 만들고 이 도로에서 직접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힌 길 수법인 올레를 두었다. 올레는 進入道路에서 주택으로 출입하는 길을 뜻하는 것으로 진입로에 면한 집은 짧은 올레를 그리고 안쪽에 있는 집은 긴 올레를 이용하였는데, 짧은 올레는 주거가 밀집해 있는 都市形 주거에 그리고 긴 올레는 農村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읍성의 세부가로는 읍성이 상업도시로 발달하게 되면서 그물형이나 격자형의 가로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읍마을의 세부가로는 그물형에 비해서는 단순한 나뭇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성읍마을이 조선초기의 읍성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市街地化나 商業化가 활발하게 나타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사직단(社稷壇)터

정의향교의 서쪽 담장에 연이어 있는 공터이다. 조선시대 사직(社稷)에 제를 지내던 장소로 관에서 올리는 제사를 공사(公祀)라 하며 중요도에 따라 대사(大祀), 중사(中祀) , 소사(小祀)로 나뉜다. 사직제는 중사에 해당되며 토지를 관장하는 신인사(社)와 오곡을 관장하는 신인 직(稷)에게 올리는 제사이다.

이원진의 “탐라지” 정의현조 사묘조에는 정의현 서쪽 4리에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자니모루 지경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며 문묘와 각 마을 포제를 제외한 공사는 1908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자취도 남아있지 않다.



<사진 3-5> 향교 옆 사직단터

안할망당

일관헌과 바로 담 하나를 두고 있는 신당으로 벽돌 기와집이다. 원래 신앙처는 일관헌 옆의 팽나무 밑에 돌담으로 둘러막아 있었다.

신체(神體)는 기왓장 두개를 마주 붙인 모습으로 그 속에 여인이 노리개나 구슬, 쌀이 있었다고 한다.

일제시대에는 일관헌 서쪽의 광주 부인당과 함께 모셨다가 광복 이후 현재의 자리로 이전되었다.



<사진 3-6> 안할망당터

점경물 (點景物)

성읍에는 제주도 특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돌하루방이 3개의 성문 앞에 4개씩 12개가 놓여있다. 기록에 의하면 돌하루방은 영조 30년(1754)에 김몽규 (金夢奎) 목사가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돌하루방의 기능을 살펴보면 하루방이 놓인 위치가 대부분 성문 입구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보아 첫째, 위치 표시의 기능이 있으며 둘째, 문 앞에서 성을 지키는 守護神의 기능과 함께 주술 宗教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내륙마을의 장승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륙지방의 장승이 제주에 와서는 돌하루방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영호남지방에서도 가끔 벅수 · 벅시라고 불리우는 돌장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읍에서도 돌하루방을 벅수머리라는 유사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사진 3-7> 동문 앞 돌하루방

이외에 읍성 안에는 옛 지리지[50] 등에 기록이 나타나는 3개소의 못(노다리못, 남문못, 빌레못)이 存在하고 있다. 이중 노다리못과 빌레못은 성내 주민들의 食水로 사용되었으며, 이들의 분포는 성내의 남쪽 즉, 민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가로 옆에 위치한 원님물통은 고상은 가옥 바로 앞에 있으며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 지금은 生水量이 豊富하지 않으나 비교적 깨끗한 물로, 식수로 사용되었으며 관아에서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님물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 원님물통을 제외하면 T자형의 가로체계를 중심으로 구획된 두 공간에 川이 하나씩 위치하고 있다.

50)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증보문헌비고 등



<사진 3-8> 원님물통

또한, 성읍리에는 예부터 제주에서 귀하게 여겨온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으며 정의현청인 일관헌 주변에는 천년의 수령을 머금은 느티나무 한그루와 팽나무들이 마치 圓의 중심을 이루듯 마을의 균형을 잘 잡고 있다. 이 중 天然記念物로 지정된 느티나무는 마을에 있어서의 정자나무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중심으로 도로가 배치되어 空間構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느티나무를 둘러싼 속신[51]이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신목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52]

51) 이 느티나무의 잎이 동쪽으로부터 돋아나기 시작하면 성읍리 동쪽 지방에 풍년이 들고, 서쪽으로부터 돋아나기 시작하면 성읍리 서쪽지방에 풍년이 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잎이 한가운데서부터 돋기 시작하면 성읍을 중심으로 풍년이 든다고 한다.

52) 나미영, 1997, 제주성읍민속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p67



<사진 3-9> 일관헌 주변의 팽나무



<사진 3-10>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민가배치(民家配置)

우리나라 초가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그 평면 및 지붕의 형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붕의 形態는 그 지역의 기후 특성에 알맞도록 제각기 특색을 띠고 있다.

제주의 초가는 한 집안에 안채와 바깥채, 두 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이른바 목거리가 가로 세워진 집안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정의읍성의 민가는 한 울타리 안에 4채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으나 평면은 “一” 자 겹집이 대부분이고 안채와 바깥채의 두 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안채의 방위는 正南쪽이 월등하게 많으며 다음은 東南쪽과 그 중간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의읍성은 골목이나 올래의 規模가 비교적 크고 시원하게 뚫려 있는 점과 관아 건물을 제외하고는 草家들로 이루어져 있다.[53]

정의읍성 성곽 안에 주거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마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計劃的 요소가 加味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통마을(자연부락)과 차이를 갖고 있다.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성읍은 마을과는 달리 성곽이라는 物理的 요소에 의해 정주지가 한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마을과 같이 한 정점을 중심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획 지어진 공간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마을의 경우 주거지의 향은 대체적으로 마을의 중심축의 향을 따르고 있는 반면 읍성은 내부의 밀도가 마을보다 높기 때문에 인접 건물들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絶對的 향을 선택하지 못하고 인접 건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相對的 향을 선택하였다.

성읍마을의 경우 한양으로 통하는 대도로 주위에 위치해 상업화가 이루어진 내륙의 다른 읍성들과 달리 시가지화가 활발히 일어나지 못하여 초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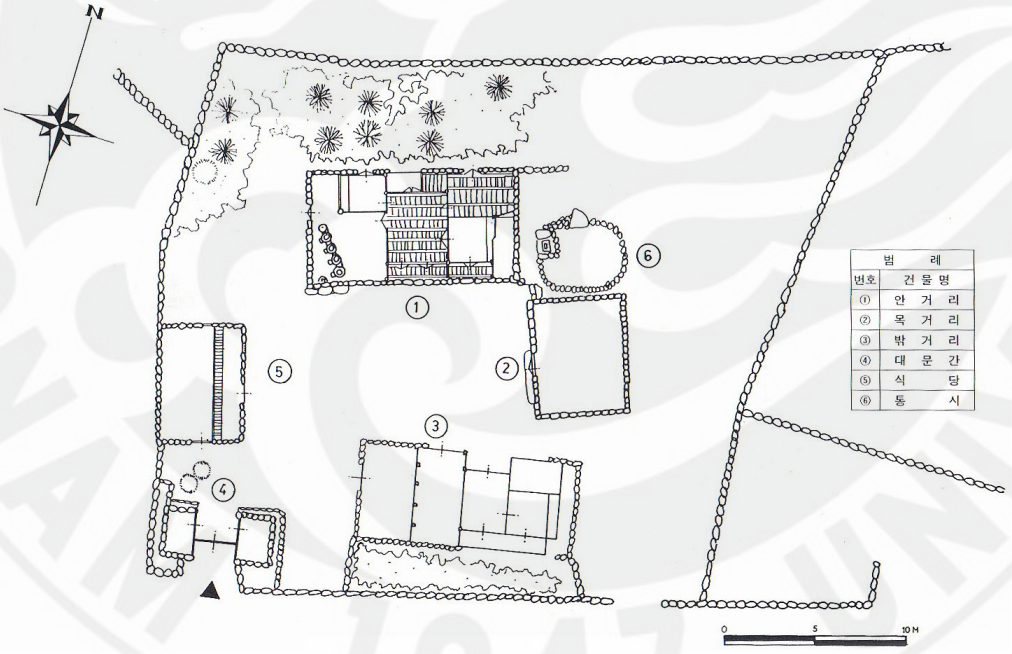
53) 남제주군, 1994,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남제주군, pp 93~94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민가의 향이 읍성의 향인 남향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54]

조일훈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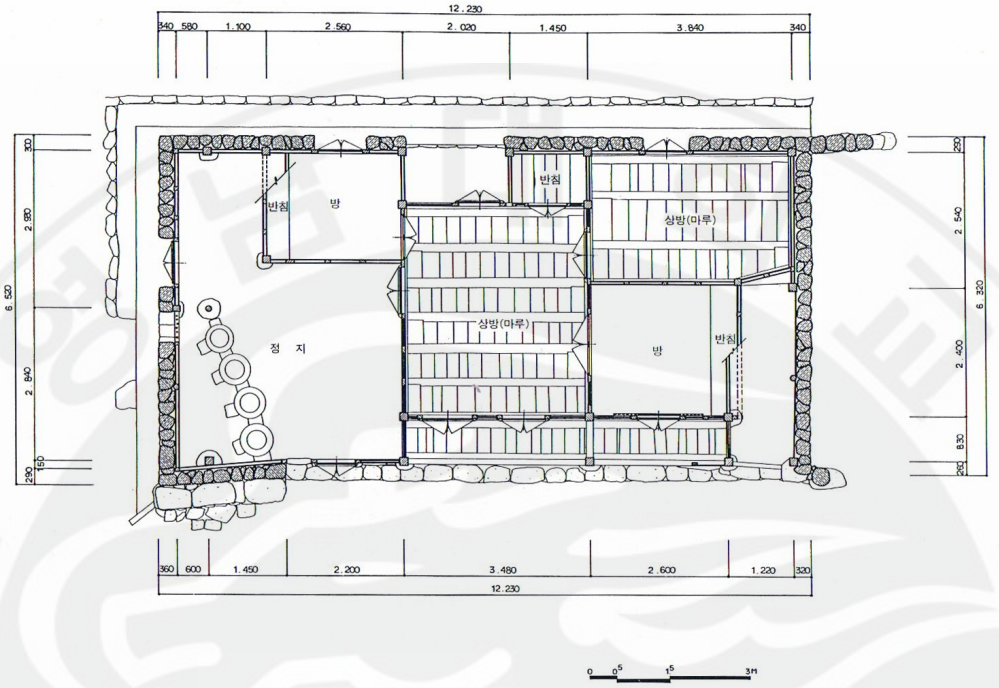
조일훈 가옥은 옛 정의 고을의 객사와 이웃하여 있던 객주집으로, 18세기 말에 建立되었다고 한다. 이 집은 객사터 남쪽에 위치하여 남향하고 있는데, 마을의 要地에 配置되어 있다.

공간구성은 중앙에 마당을 두고 안거리(안채), 밖거리(바깥채), 목거리, 창고, 이문간 등의 건물이 모두 "一"자형으로 마당을 中心으로 튼 "口"자형을 취하고 있다. 안체는 3칸 집이고, 바깥채는 4칸 집이며 중앙에 중턱 대문을 설치한 대문칸은 3칸집으로 構成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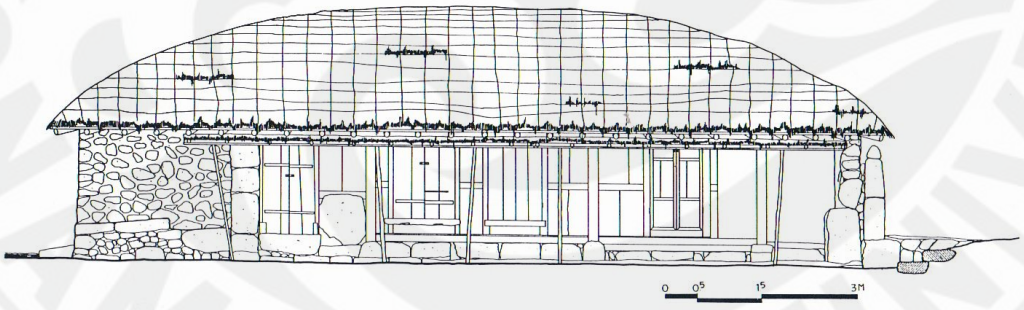


<그림 3-10> 조일훈 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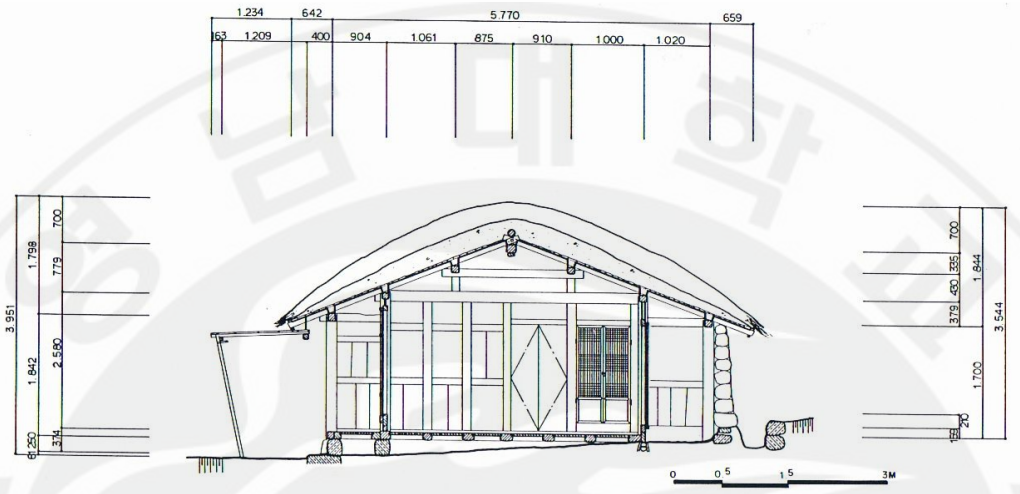
54) 나미영, 1997, 제주성읍민속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p48



<그림 3-11> 조일훈 가옥 평면도



<그림 3-12> 조일훈 가옥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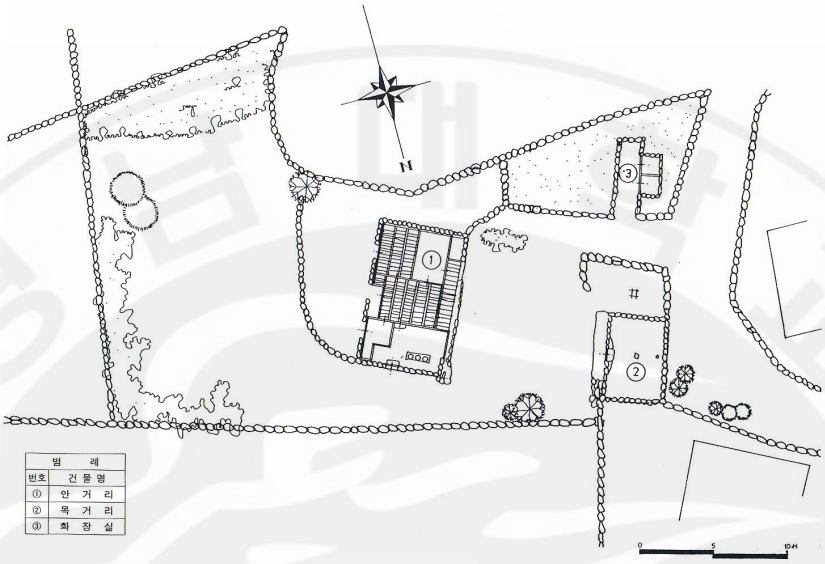


<그림 3-13> 조일훈 가옥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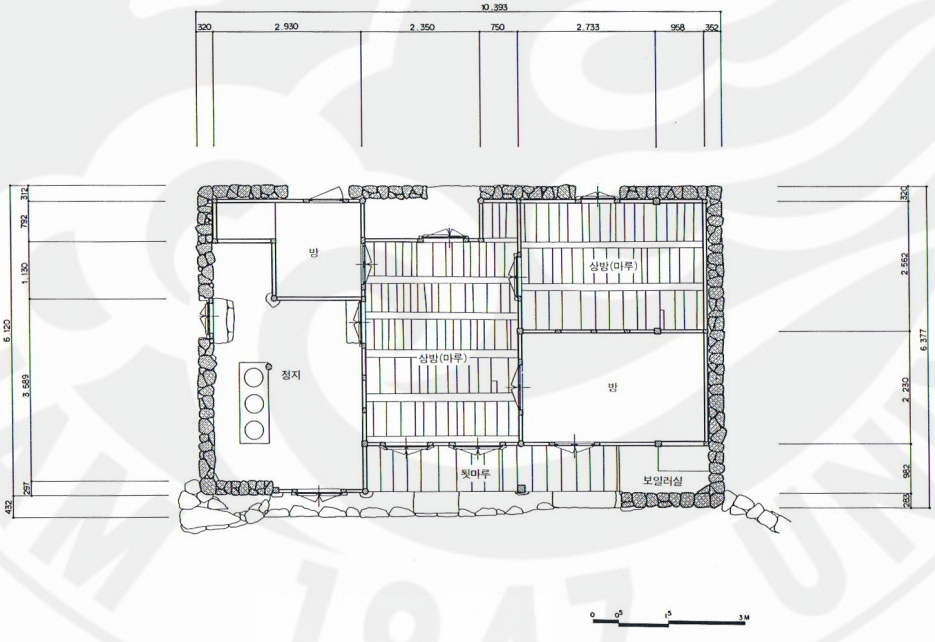
이영숙 가옥

이영숙 가옥은 20세기초 정의고을의 旅人宿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19세기초에 건립되었다. 이 집은 정의향교와 이웃하여 東向하고 있으며 큰 길에서 올레길을 따라 들면 이문과 정낭 없이 바로 집안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다.

안채와 헛간채가 마주 앉은 "一"자형 가옥으로 안채 뒤에는 텃밭이 있고 제주 남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3칸집이다. 안채의 중앙에 부엌과 작은방이, 우측에 큰방과 창고가 각기 앞뒤로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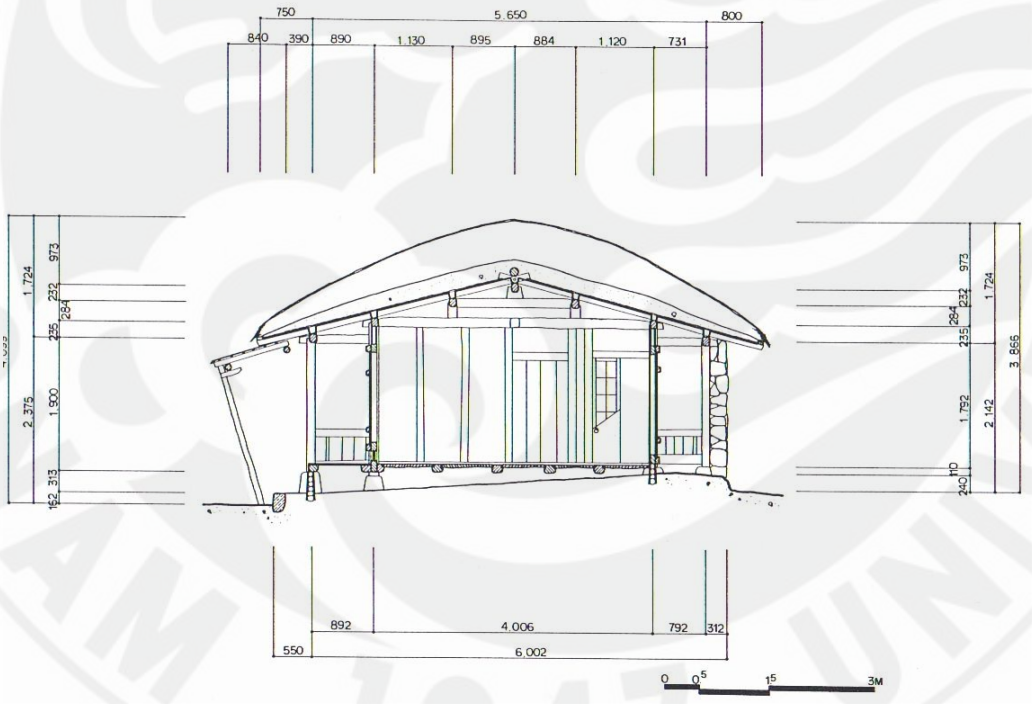
<그림 3-14> 이영숙 가옥 배치도



<그림 3-15> 이영숙 가옥 평면도



<그림 3- 16> 이영숙 가옥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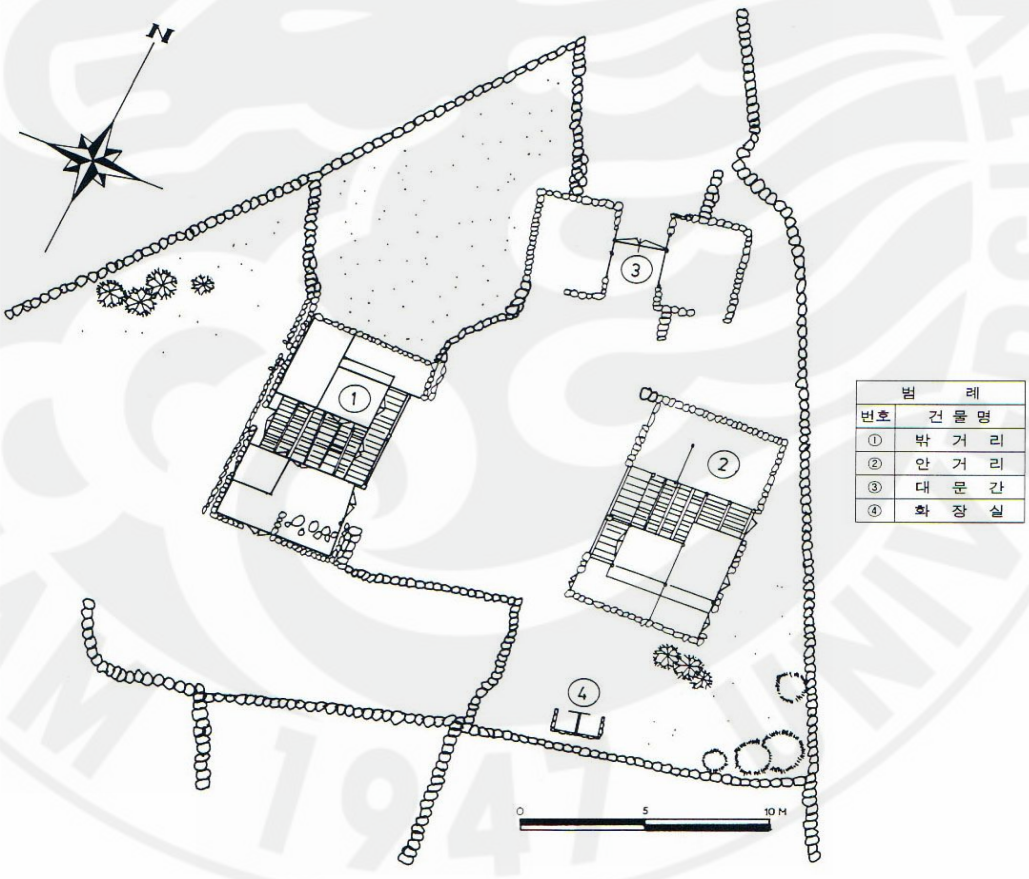


<그림 3-17> 이영숙 가옥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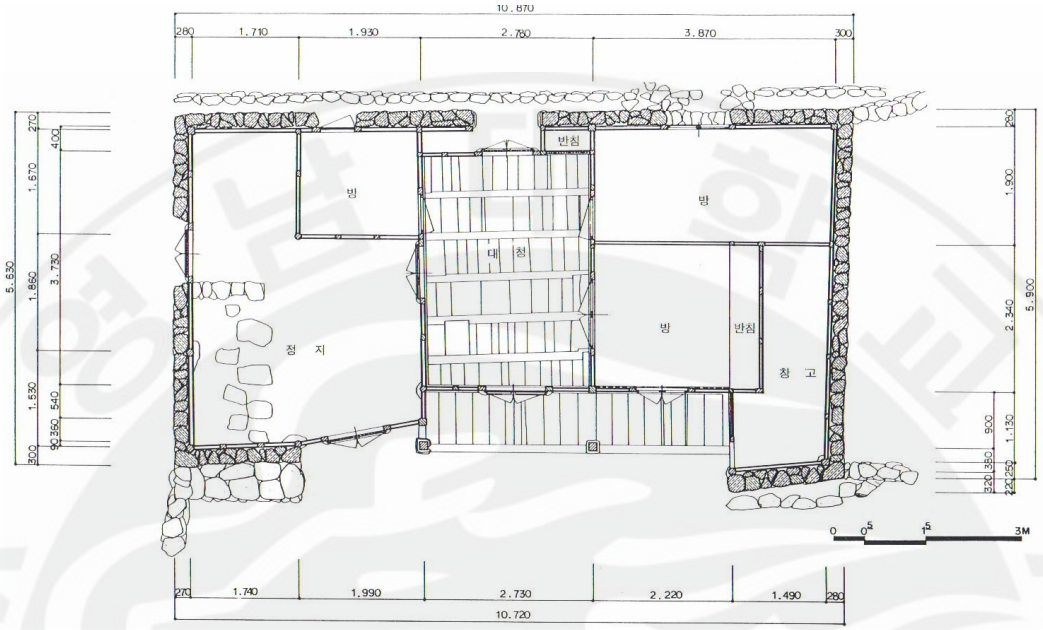
한봉일 가옥

한봉일 가옥은 19세기초에 건립된 것으로 마을의 중심가에서 동쪽으로 들어선 곳에 北向으로 하고 있다. 평면은 濟州 南部 民家의 전형적인 家屋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안채의 中央에 대청마루가 있고, 대청마루의 좌측에 부엌과 작은방이 우측에 큰방과 창고가 각기 앞뒤로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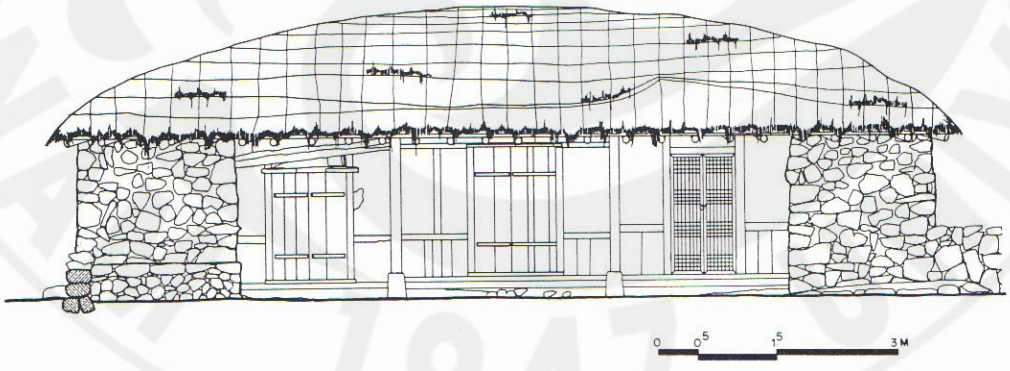
방에 불을 넣는 공간인 굴묵으로 들어가는 곳을 별도로 두지 않고 툇마루쪽에서 출입하도록 하였다. 바깥채는 3칸으로 다른 민가와는 달리 대청마루를 앞뒤가 긴 1칸으로 꾸미지 않고 대청마루의 뒤쪽에 작은 방을 둔 점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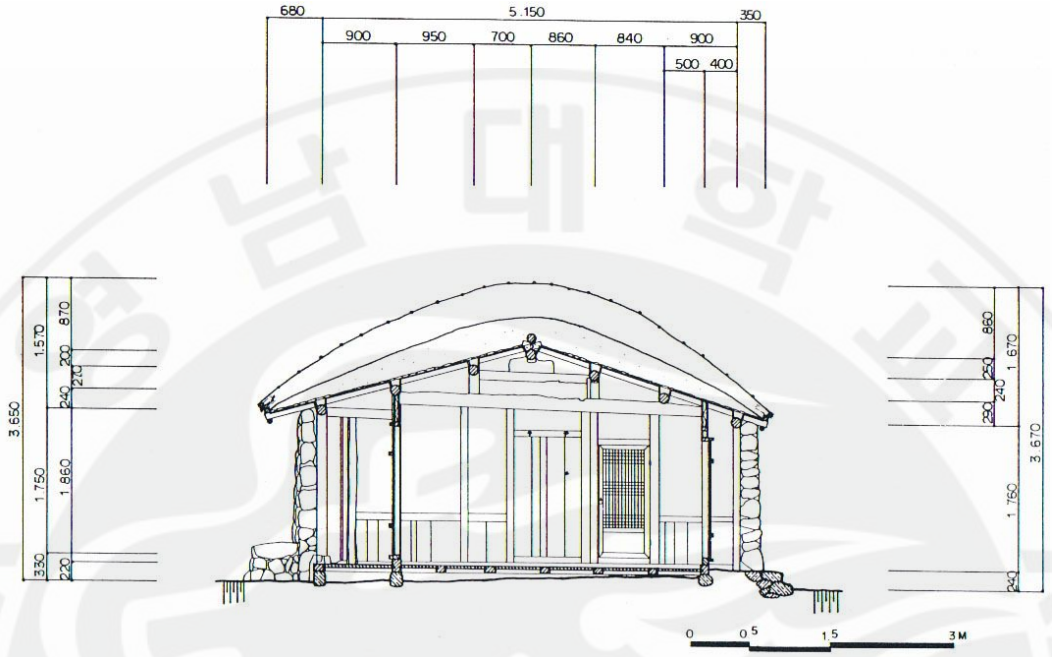
<그림 3-18> 한봉일 가옥 배치도



<그림 3-19> 한봉일 가옥 평면도



<그림 3-20> 한봉일 가옥 정면도



<그림 3-21> 한봉일 가옥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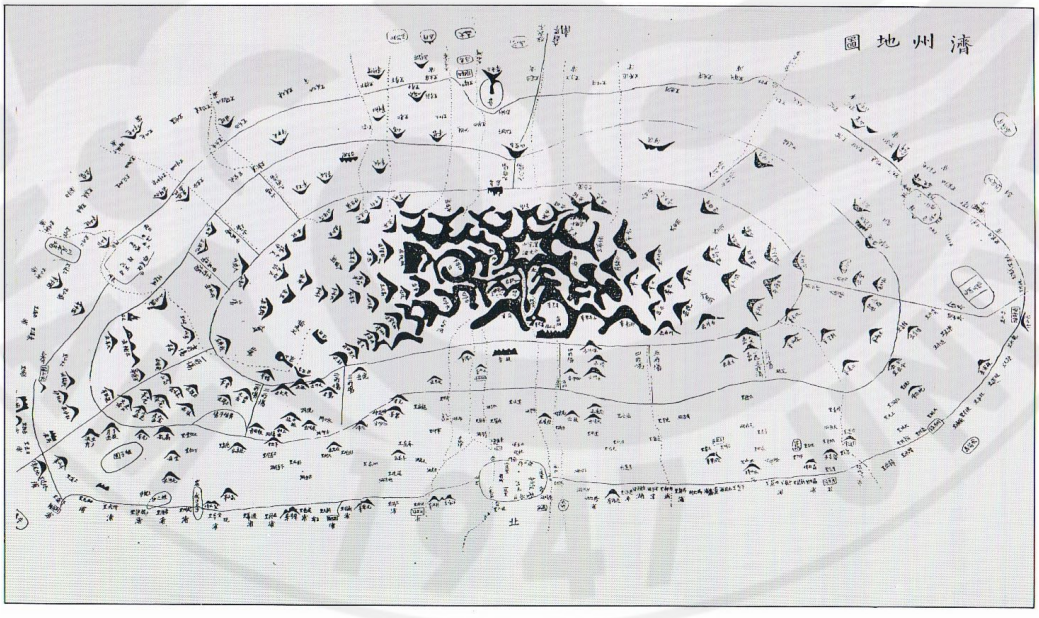
제4장 제주 정의읍성의 풍수지리적 해석

제1절 정의읍성 입지와 지세의 풍수지리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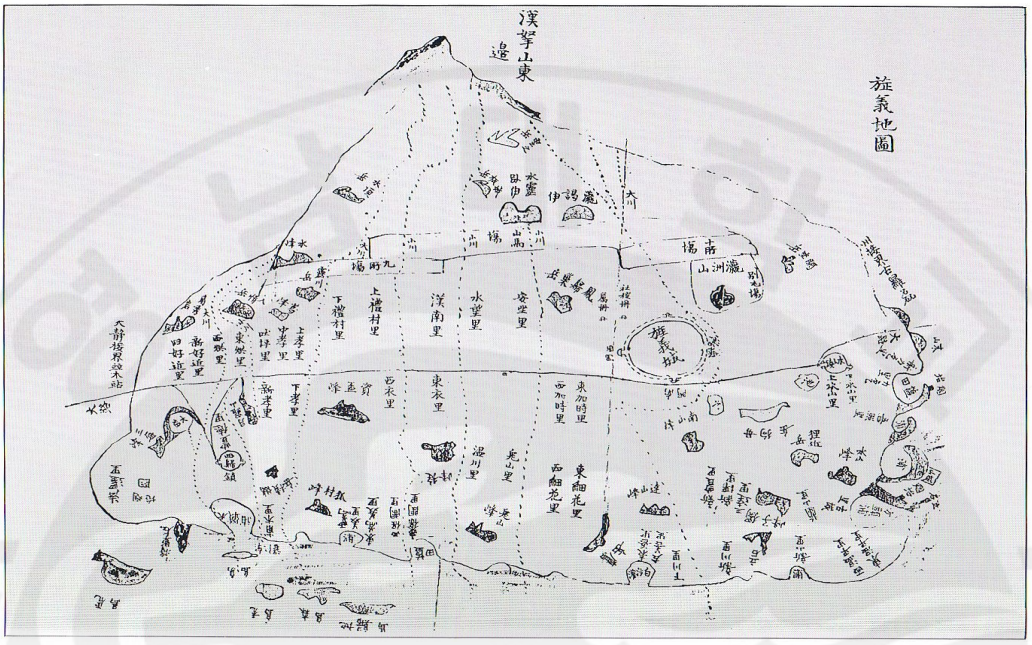
1. 정의읍성 입지의 문헌적 해석

1) 문헌 해석

연구문헌 기록에 의하면 정의읍성의 지세를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는 포구에 정박해 있는 배의 형국이라는 해석과 또 하나는 한라산의 맥을 중심으로 장군대좌형이라는 해석이다.



<그림 4-1> 여지도의 제주지도



<그림 4-2> 여지도의 정의 지도

배형국이라는 의미는 마을이 강이나 냇물을 끼고 있을 때 그 마을이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형국이라 하였으며 정의읍성 또한 성곽 주변으로 천미천이 마을을 끼고 흐르고 있으므로 여름 장마철에는 동남쪽으로부터 물이 넘쳐 한 두 번씩 물이 잠기곤 한다. 따라서 배형국이라 할 때는 주위에 키와 닻을 象徵하는 산이나 오름이 있기 마련이며 정의읍성 또한 남산에 키와 닻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정의읍성 마을의 뱃머리는 西北쪽을 향하고 있으며, 그 끝은 곧 남산봉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배형국에 사는 사람은 어려서 그 곳을 떠나면 立身出世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將軍對坐形이라는 의미는 군사적으로 볼 때 장군이 앉아있는 큰 자리로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상 대단히 유리한 분지라는 뜻이며 정의읍성 또한 한라산의 脈 중심으로 동쪽의 영주산, 본지 오름, 남산봉, 성곽 서쪽의 모

지 오름, 장자 오름, 갑선이 오름 등이 마치 장막처럼 읍성을 둘러싸고 있는 형상에서 기인한다.



<그림 4-3> 정의읍성 주변의 풍수형국도



<그림 4-4> 탐라순력도의 정의조점

2) 정의읍성의 지형 및 지세

정의읍성은 北쪽의 영주산을 중심으로 남사면으로 완만한 경사의 분지 형태로 성곽 주변의 東쪽으로는 天尾川이 읍성을 끼고 흐르며 南쪽으로는 메 오름(137m), 백약이 오름, 西쪽으로는 모지 오름(300m) 등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우며 성곽 내부에서 밖으로의 전망은 오름에 의해 차단된 공간감을 갖게 한다.

성곽 주변의 지세는 한라산으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형성된 모지오름(306m)이 서북쪽에 위치하며 여기에서 성곽 쪽으로 장자 오름(216m) 이 이어진다. 이에 성곽 안(120m)의 지세는 경사가 없는 거의 평탄한 盆地形을 형성하고 있으며, 성곽 내 중심(125m)은 약간 隆起한 형태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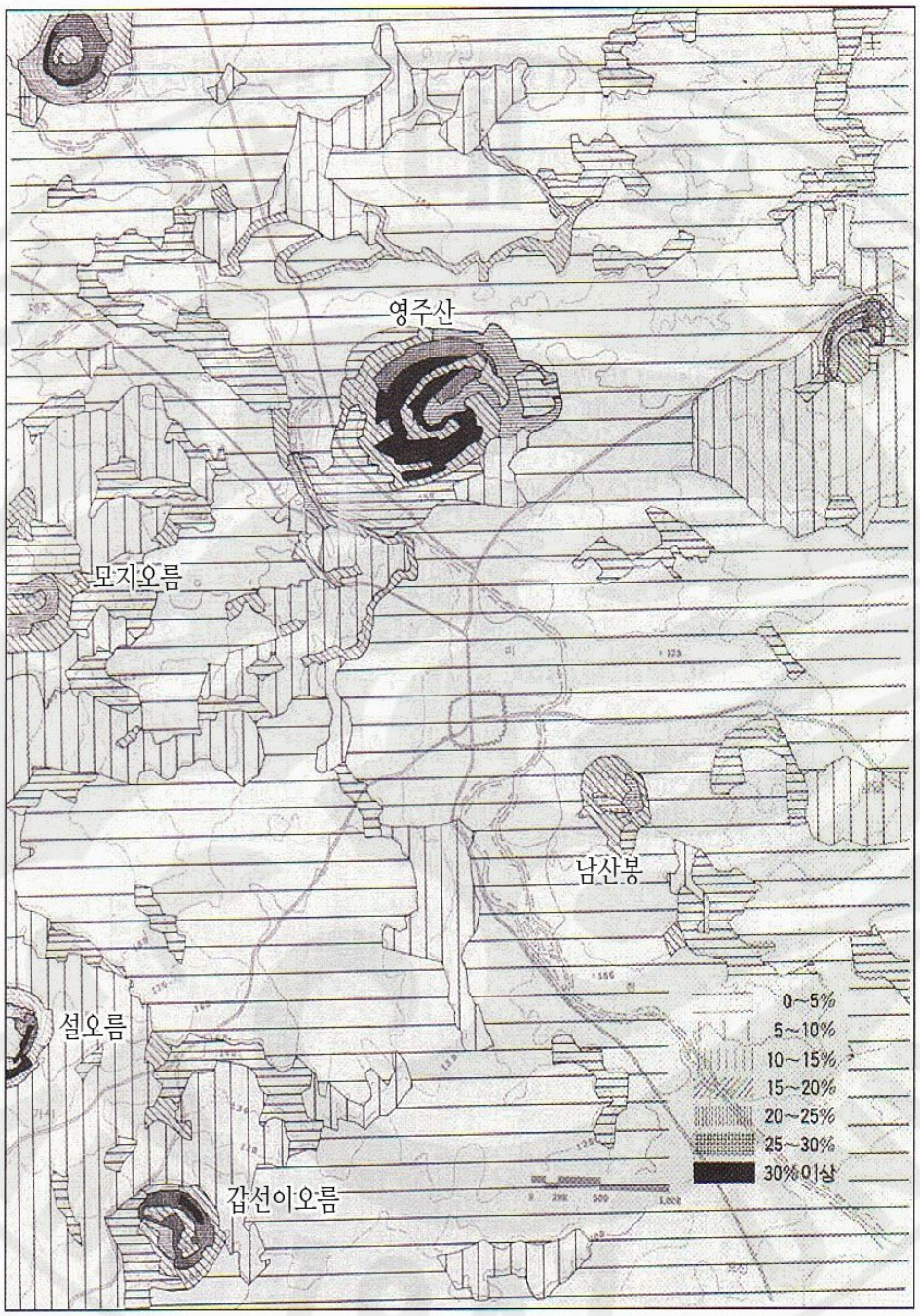
따라서 성곽을 중심으로 대체로 경사도 5% 미만의 평탄한 부지에 주거의 입지가 선정되어 雨期時에 천미천이 범람하여 자연 유하가 힘들어 逆流 현상이 생긴다.[55]

55) 남제주군, 1994,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남제주군, pp 26~30



<그림 4-5> 정의읍성 주변의 지형분석도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그림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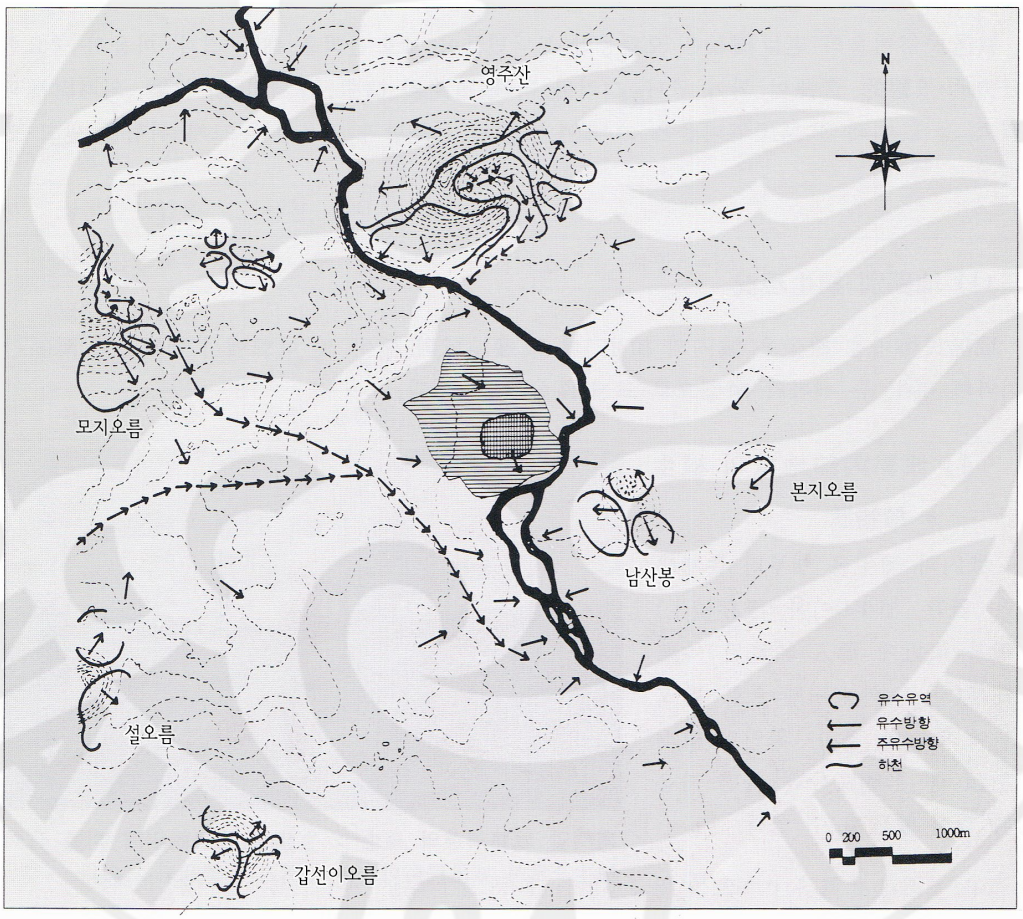


<그림 4-6> 정의읍성 주변의 경사분석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육성 기본계획 그림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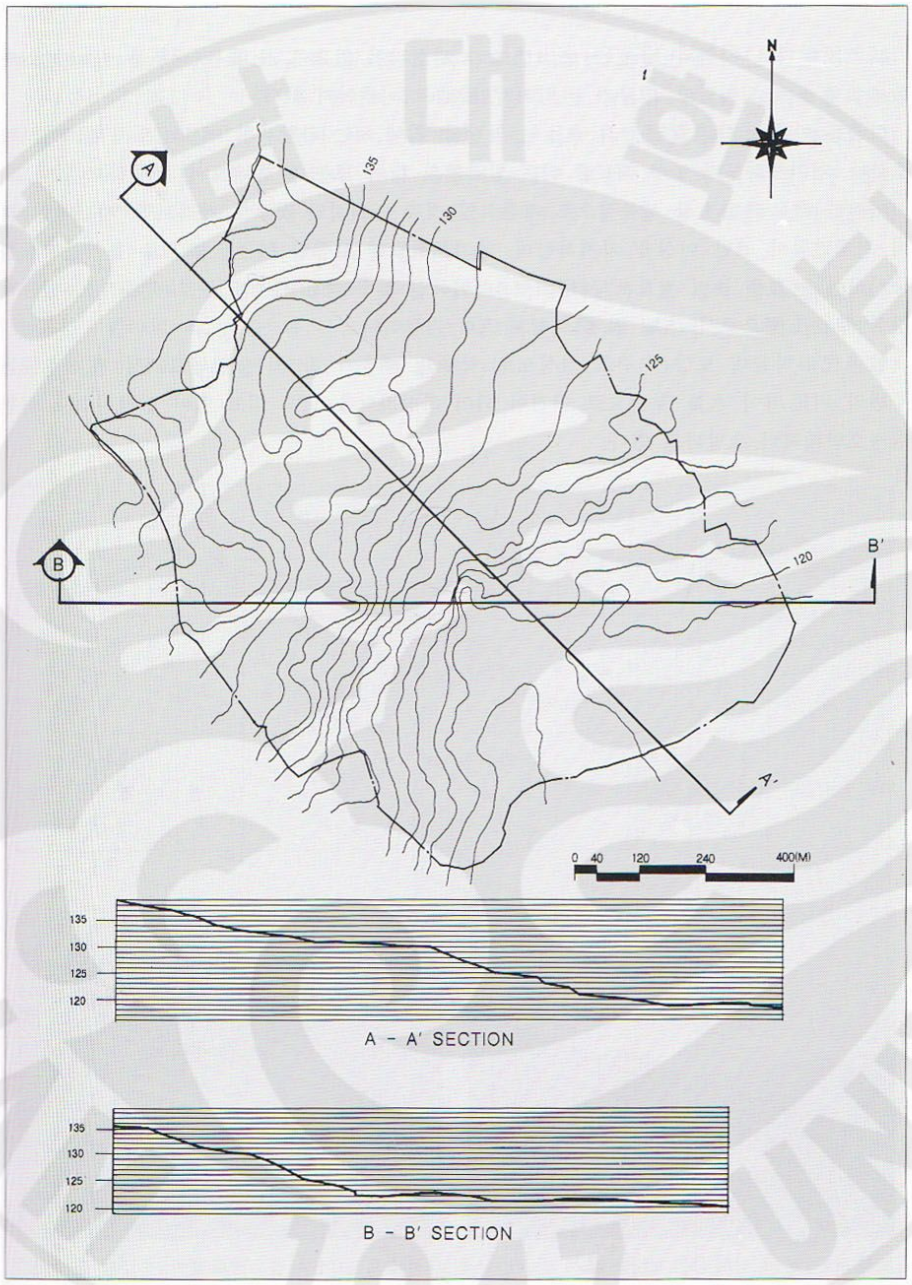
3) 수계 및 등고선 분석

정의읍성의 水界는 한라산의 북서쪽에서 水源을 발하여 南流하는 천미천이 영주산을 통과하여 읍성 마을의 동쪽으로 휘돌아 바다로 流入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물이 거의 없는 건천이다. 갈수기와 홍수기의 수위 변동차가 심하고, 河川의 폭과 길이가 좁고 낮아 지금은 하천을 확장하고 있는 공사가 한창이다.



<그림 4-7> 정의읍성 주변의 수문분석도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그림 인용



<그림 4-8> 정의읍성 주변의 등고선 분석도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그림 인용

2. 정의읍성 지세의 풍수지리적 해석

지세(地勢)란 산이나 강, 들판 등 한 지역의 지기를 이루고 있는 자연 조건을 말한다. 지세는 크게 산과 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세를 이루고 있는 산에는 主山, 靑龍, 白虎, 朱雀, 玄武의 四神砂와 朝山, 그리고 案山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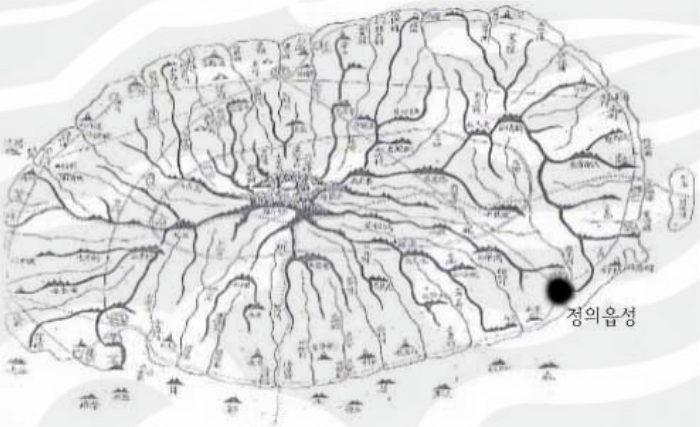
주산은 한 지역을 대표하는 산으로 주위에 있는 산보다 월등하게 높고 커야 하며, 다른 산에 비해 위엄을 보여줄 수 있으며 주산의 기운이 하나로 뭉쳐진 산에서는 강하고 進取的인 인물이 많이 배출되며, 서로 화목하고 단결해서 평화롭게 살아간다.

주산(主山)은 그 지역 전체 기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위에 주산을 호위해 주는 산이 있으면 더욱 강한 기운을 지니게 되며 같은 규모의 산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이 주산 옆에 있으면 기운이 分散되어 나약한 인물이 나오게 되며 의견이 분열되어 큰 發展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진 4-1> 객사위에서 바라본 주산 모지오름

정의읍성의 지세는 한라산 동북면에서 발원하여 사라오름, 성널오름, 물오름, 궤펜이, 물찻오름, 볽은 오름에서 분맥하여 대록산을 거쳐 새끼오름에서 다시 분맥하여 주산 모지오름에서 중출맥(中出脈)이 나와 말이 달리듯 강한 지기를 모아 알봉을 이루며 내려오다 청룡과 백호를 만들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만들기 위해 탈살 과정을 거치며 포제동산에서 낙맥하여 완만한 지세를 만들며 현재 성읍리 사무실과 성읍사거리를 지나 일관헌 뒤쪽을 통해 현 객사 위 느티나무 쪽으로 용맥(龍脈)이 흐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좌선하는 지세를 보인다.



<그림 4-9> 대동여지도의 용맥 흐름도



<그림 4-10> 한라산의 용맥 흐름도



〈그림 4-11〉 제주의 지맥도 (신영대 교수 자료 제공)

左旋龍(청룡)은 모지오름에서 출원하여 몇 개의 알봉을 통해 기복과 굴곡을 지으며 영주산 서남쪽으로 하나는 내려보내고 한줄기는 황통지동산과 땅동산을 거치며 천미천을 따라 여러겹으로 읍성을 향해 내려와 완만한 평지를 만든다

右旋龍(백호)는 모지오름에서 출원하여 나지막한 장자오름을 거쳐 완만하게 내려오다 벤저리동산과 서문통과 담낭밭쪽으로 해서 현재 성읍초등학교 밑으로 외백호가 펼쳐져 있다.

내백호는 포제동산에서 出脈하여 성제동산과 개동산을 거쳐 현재 서문옆 향교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세를 하고 있다.



<그림 4-12> 정의읍성 주변 산세도

정의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영주산의 측면을 통과하는 한라산 서북쪽에서 발원한 천미천이 동남쪽으로 흘러 남산봉 앞에서 읍성을 휘감아 돌아

나간다.

정의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영주산, 서북쪽에는 모지오름, 서쪽에는 장자오름, 서남쪽에는 설오름, 남쪽에는 갑선이와 아슴선이 오름, 동남쪽에는 남산봉, 동쪽에는 본지오름 등으로 둘러쌓여 있어 장풍이 잘되며 천미천으로 흐르는 물은 九曲水로 환포가 어느정도 이루어져 읍성으로 내려온 龍脈을 강하게 응집시키고 있는 지세로써 中出脈 중앙이 마치 사람의 손등처럼 좌우가 균형이 잡힌 볼록한 형태의 분지형을 이루고 있다.

용(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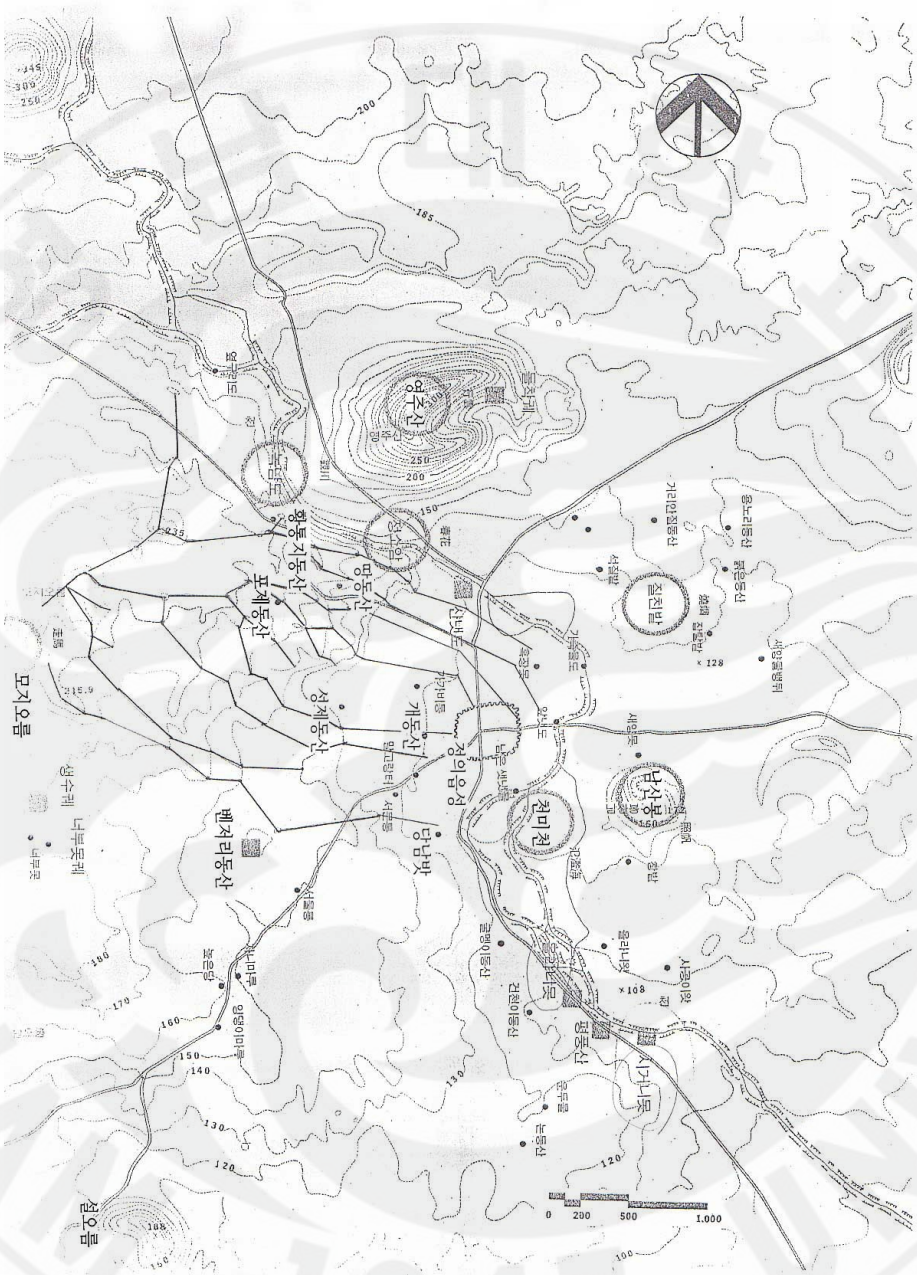
風水地理에서 말하는 龍이란 산과 능선을 말한다. 풍수에서 산과 능선을 용이라고 말한 것은 산과 능선이 갖고 있는 신비하고 강한 기운 때문이다. 산의 變化無雙한 흐름을 마치 용이 살아 움직이는 형상과 같이 본 것이다.

용은 산맥의 표면 형태이고, 기운은 맥 속에 흐르는 힘이다. 따라서 용을 통해 흐르는 기운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 정상에서 출발한 용이 穴에 이르기까지는 直線 형태와 曲線 형태 두 가지가 있다. 직선적인 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좌우로 약간의 변형을 갖고 있다. 앞으로 진행하는 직선 형태의 용을 中心龍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곡선적인 용이란 산 정상에서 혈까지 커다란 곡선을 이루고 있는 용으로 형태에 따라 좌선룡, 우선룡, 혼합곡선룡 등으로 구분된다.

左旋龍은 주봉에서 연결되어 내려온 용이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 쪽으로 곡선 방향이 변하는 것을 말하고 右旋龍이란 주봉에서 내려온 용이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곡선이 방향이 바뀌면서 연결되는 용을 말한다. 혼합곡선룡은 산의 주봉에서 연결된 용이 좌선과 우선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용으로써 S자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림 4-13> 정의읍성의 용맥의 흐름

혈은 중심룡이나 곡선룡에서 이루어지며 혈을 이루고 있는 지세에서 혈을 중심룡에, 청룡은 좌선룡에, 백호는 우선룡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이다.

용은 산봉우리에서 시작해서 능선을 이루며 평탄한 들판을 향해 조금씩 낮게 내려가기도 하고 물이 있는 쪽을 향해 내려가기도 한다. 용의 앞면은 비교적 지면이 균일하게 安定的이어서 아름답고 밝은 빛을 띄며, 뒷면은 험한 바위가 튀어나와 있어 지면이 안정되지 못하고 땅 색도 어둡고 陰散하다.



<사진 4-2> 모지오름에서 출원하는 알봉의 모습

정의읍성으로 내려오는 용을 보면 모지오름 아래 지명이 주마라고 하는 것은 말이 달리는 광경으로도 볼수 있으나 風水的으로 해석하면 地勢의 흐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모지오름 아래에는 실제 알 모양의 지세들이 말이 달리는 형상처럼 屈曲과 起伏을 하며 펼쳐져 있다.

실제 알봉들이 중출맥을 이루며 박환이라는 탈살 과정을 거쳐 포제동산까지 이른다. 포제동산까지 來龍이 내려오면서 청룡과 백호를 만들고 중출맥으로 내려온 내룡은 포제동산에서 다시 分脈하여 중출맥은 落脈되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현재 마을리사무실과 성읍사거리를 지나 현청인 일관헌 뒤쪽으로 들어 온 中心來龍은 마치 사람의 손등처럼 약간 솟아오르듯 좌우 均衡이 넓게 퍼져 아름답게 형성되어 천년 넘은 느티나무 쪽으로 흘러 내려와서 현재 객사 위에 머문다.



<사진 4-3> 포제동산위 포제단

정의읍성의 포제단은 한 마을의 수호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마을 어귀에 가장 내룡이 힘차게 들어오는 곳인 포제동산 위에 두므로서 주산 모지오름에서 발원한 본신룡이 머물러 읍성을 향해 강하게 기운을 토해내며 좌우, 중출맥으로 나뉘어 내룡이 분맥되고 있는 곳이다.



<사진 4-4> 포제동산과 황통지동산의 용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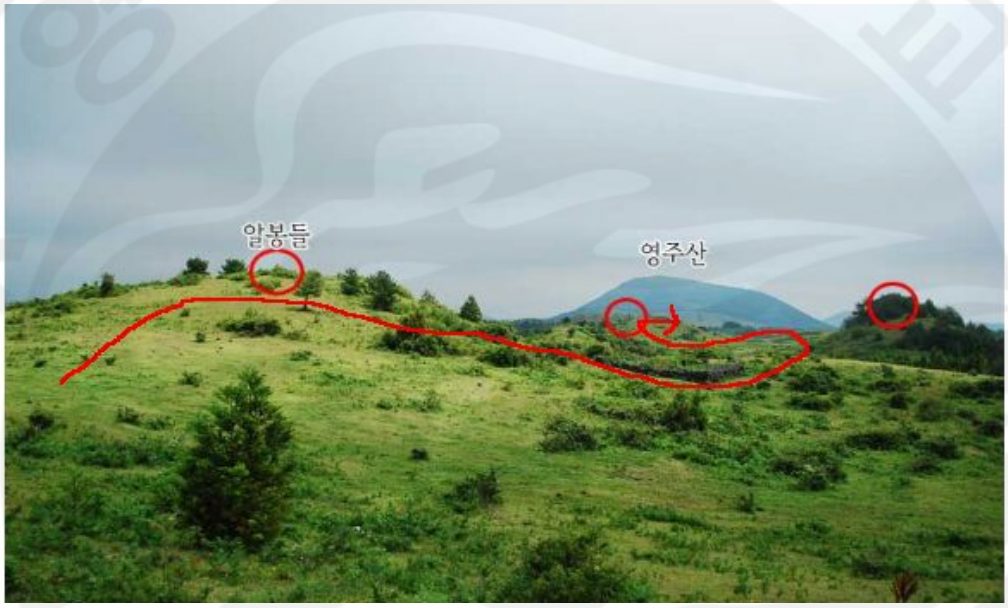
주산에서 내려온 내룡은 포제동산에서 좌청룡, 우백호로 나뉘어지며 主人格인 중출맥을 잘 보좌하였으며, 補助格용인 청룡과 백호가 나지막하게 완만한 지세를 이루고 용의 단면 형태를 보면 좌우가 균형있게 가운데가 둥글게 솟아 있어 강체인 용으로 깨끗하고 강하며 여유있는 기운이 통과해서 穴과 明堂을 이루었다.

명당은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결합하는 비교적 낮은 지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탄한 地面의 용은 크지 않아도 명당이 많다.

주산의 기운이 혈과 명당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산과 혈 사이 용이 끊어지지 않고 용 중간 중간에 일정한 형태의 변화 과정을 거쳐야 기운이 통하는 생룡이며, 용의 변화없이 직선으로만 연결되면 死龍이 된다. 용의 진행되는 변화는 용이 갈 지(之)자와 같은 좌우진행형이 좋으며 건강한 용의 진행 폭 15m ~ 20m 사이가 한폭으로 보며, 변화 각도는 30도가 대표적이다.

좌선룡(청룡)은 모지오름 밑, 알봉에서 동북쪽 천미천을 향해 변화무쌍하게

내려오다 중간 알봉에서 分脈하여 하나는 영주산의측면인 서북쪽으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本身龍의 청룡이 되어 황통지동산에 이르러 영주산의 측면과 천미천을 사이에 두고 천미천을 따라 흐르다, 하나는 땅동산을 통하여 현재 농협사거리로 틀어 들어오며 하나는 계속해서 천미천을 따라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며 흐른다.



<사진 4-5> 모지오름에서 바라 본 알봉과 영주산

青龍의 山勢가 유순한 지세에서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반면, 청룡의 산세가 상부보다 하부에서 높이 뭉쳐 있으면 下剋上의 비극을 만드는 사람이 나오고, 등을 돌리고 있는 지세에서는 부모에게 不孝하고 사회를 등지는 後孫들이 나온다. 또 이런 지세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변사람들에게 배반 당하거나 부도 같은 일을 겪게 된다.

청룡의 끝부분이 등지고 멀리 뻗어 나간 지세라면 형제관계를 끊고 멀리 떠나게 된다. 기운으로 보면 청룡은 자손의 繁昌, 權力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

의 기운을 갖는다.

右旋龍(백호)을 보면 모지오름 밑 장자오름에서 나온 용과 알봉인 본신룡에서 나온 백호가 있다. 알봉에서 나온 백호는 중출맥을 보호하며 내려오고 여러개의 백호를 만들어 포제동산에서 다시 분맥하여 성제동산과 개동산을 거쳐 현재 서문옆 향교로 향하는 내백호와 장자오름에서 완만하게 내려온 외백호는 벤저리동산과 서문통을 거쳐 지금의 성읍초등학교 밑의 당남밭으로 들어오며 여기가 읍성의 모든 물의 合水處로 파구가 된다. 역수 형태를 띄는 주걱형 지세이다.



<사진 4-6> 당남밭옆의 물의 합수처

정의읍성은 동북쪽에서 천미천이 흘러 들어 청룡수가 내당수를 만들고, 서쪽에서 흘러든 물은 백호수가 되어, 읍성 전체의 물이 합수처가 백호쪽에서 역수가 되면서 수구가 막히는 지세가 되어 생기터를 이루고 있다.



<사진 4-7> 천미천과 내당수의 파구처

따라서 혈과 명당을 찾기 위해서는 生龍과 强龍 위에 있어야 하며 정의읍성으로 향하는 내룡 또한 강한 龍脈旋上에 있어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적합한 명당터를 이루고 있다.

혈(穴)

風水地理의 궁극 目的은 명당과 혈을 찾는 것이다. 명당 중에서도 특히 기운이 많이 모여있는 땅을 혈이라고 한다. 혈은 곧 생기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산에서 혈이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뿌리에 해당하는 봉우리와 줄기에 해당하는 능선(용) 그리고 잎에 해당하는 청룡과 백호가 모두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혈의 기운은 主峰의 기운이 용을 통해 모여서 이루어진다. 주봉이 힘차면 혈에도 강한 기운이 모인다. 그래서 주봉의 形態나 그 氣運은 혈의 기운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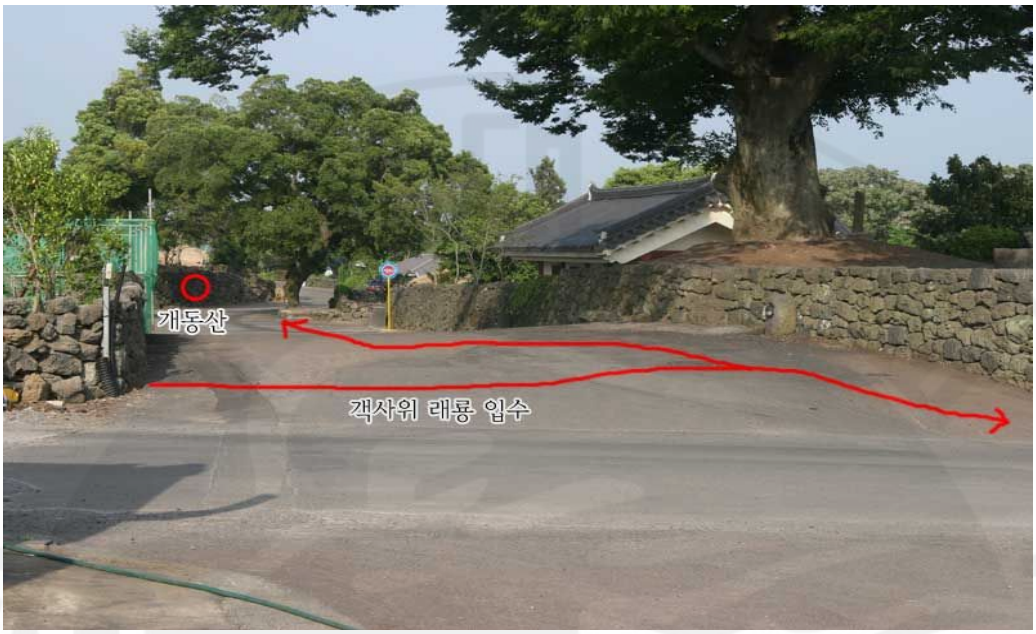
산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을 보통 主山이라고 한다. 주산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세를 分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산봉우리는 갓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圓形이고 탐스러운 형태가 가장 좋다.

주봉이 神聖하면 훌륭한 人物이 배출되며, 기운이 旺盛하면 강력한 指導者가 배출되며, 厚富하면 財閥이 배출되며, 아름다우면 英雄이 태어나며, 散漫하면 불화하는 자손이 태어나며, 주봉이 흩어져 있으면 賤한 자손이 태어난다.

혈은 용의 거의 끝부분, 경사진 면이나 평탄한 지면 위에 형성된다. 대부분의 용이 암석으로 되어있듯 혈도 암석으로 구성된 堂板의 중상 부위에 자리잡는다. 혈은 당판에서 入首와 朱雀, 좌우 양쪽의 蟬翼에 둘러싸여 있으며, 용, 입수, 선익, 전순등 여러 가지의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다. 혈의 생기는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많으며 지하로 깊이 내려갈 수록 밀도가 낮아진다.

정의읍성에 혈을 맺기 위한 전단계로 주산 모지오름에서 여러번의 탈살변환과 屈曲과 起伏하며 알봉을 거쳐 내려오면서 산의 능선이 높았다 낮아지고를 반복 하며, 용이 승천하기 위한 몸놀림처럼 용이 강한 기운을 갖고 포제동산에 이르러 중출맥과 청룡, 백호로 나뉘어 落脈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장막을 펴듯 날개를 넓게 펼쳐 현재 성읍사거리 옆에서 일관헌 뒤쪽으로 중출맥이 입수하여 백호 자락인 향교쪽에 혈판을 하나 만들고, 중출맥에서 나온 생룡은 지금의 객사 위 느티나무 위쪽에서 혈판을 맺은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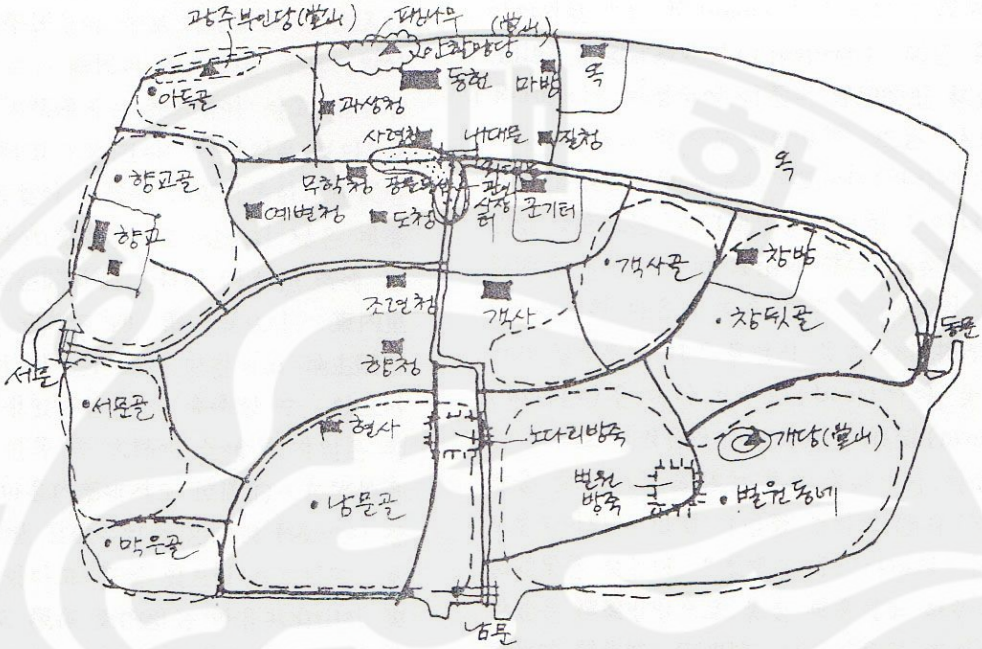
1978년 제주도 民俗村 지정 보존대상자 조사 보고서의 “유적지 분포 현황도”에 의하면 현청 밑에 공문동산이 있고 창방 위쪽에 개동산과 향도정 밑 오른쪽에 빌레동산이 있으며 그 아래는 못이 여러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4-8> 현 객사위 중출맥의 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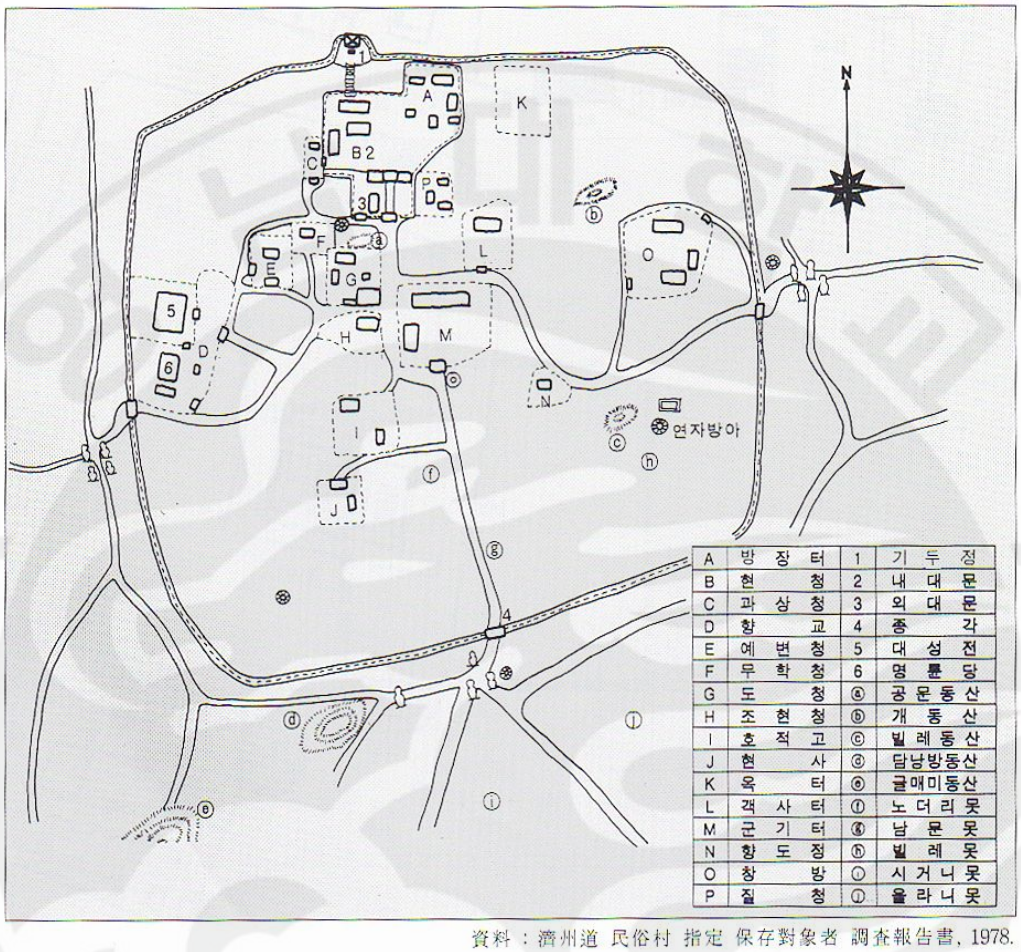
<사진 4-9> 객사 위 좌측 개동산의 바위모습



<그림 4-14> 정의읍성 마을 구분 모식도 56)

혈(穴)은 혈을 들러싸고 있는 산이나 물 같은 자연 조건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혈을 만들어주는 물은 혈판의 앞쪽에 있는 물을 말한다. 혈판이 우선 할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물이 혈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왼쪽 물이 처음 시작되는 위치가 得水이며, 왼쪽 물이 흘러서 朱雀 끝을 감돌고 나가서 흘러나가 보이지 않게 되는 지점이 파구이다. 혈판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득수지점은 왼쪽에, 파구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즉 용의 진행방향과 물이 흐르는 방향이 서로 마주치게 된다. 혈판이 좌선할 때는 위와 반대로 보면 된다. 혈판이란 혈을 중심으로 상하좌우에 들러싸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말한다. 중심에 혈을 두고 상부에는 入首, 하부에는 氈循,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蟬翼으로 구성되어 있다.

56) 박찬용, 1984, 조선시대 정주지의 경관구성 연구, 한국조경학회지,p38



資料 : 濟州道 民俗村 指定 保存對象者 調査報告書, 1978.

<그림 4-15> 정의읍성의 유적지 분포 현황도

여기서 현청 일관헌 뒤로 들어온 중출맥은 공문동산으로 이어지고 포제동산에서 내려온 청룡은 현재 농협사거리를 통과하여 개동산과 빌레동산으로 힘있게 좌선(左旋)하여 혈판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여기(餘氣)에 의해서 읍성에서 보면 동남쪽 아래 부분의 천미천 흐름이 餘氣에 밀려 환포 되듯이 형성되어 당낭밭 쪽으로 흘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左旋龍(청룡)이 좌선함으로써 노더리못과 남문못이 우선수가 되고 中出脈에서 나온 혈을 기가 分散되지 않도록 앞에서 막아주므로 明堂을 이루게 만들

고 있으며 당낭밭 동산이 백호로써 감싸 안으며 수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혈판(穴板)은 혈을 만드는 바탕이 되므로 혈판의 힘이 크면 혈의 기운도 크고 혈판의 힘이 약하면 혈의 힘도 약하다. 혈판 상부에는 입수가 주룡(主龍)에 연결되어 있으며, 입수 아래로는 혈이 있고 혈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선익이 위치하고 있다. 혈과 양쪽 선익 아래에는 전순이 있어서 혈과 혈판을 만들어 준다. 혈은 혈판에서 상하좌우로 둘러싸인 중상부분에 자리잡고 있다.



<사진 4-10> 일관헌뒤 용맥 입수 모습

입수(入首)는 용에 흐르는 기운을 끌어당겨 그 기운으로 혈과 선익, 주작을 만든다. 입수는 용이 하단에, 혈의 상부에 위치하며 형태는 용보다 약간 높이 솟아있으며 좌우가 비슷하게 안정을 이룬다. 입수는 내룡(來龍)의 기운 외에 주변 지세, 곧 산이나 물등의 기운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용의 기운이 입수에 기운을 가장 크게 좌우한다. 입수의 기운이 크면



<사진 4-11> 현 향교 뒤 용맥 입수 모습

혈의 기운도 크고 입수의 기운이 약하면 혈의 기운도 약하다.

정의읍성의 용맥의 입수를 보면 포제동산에서 중심맥으로 완만하게 내려온 내룡은 현 일관헌 뒤편에서 내려 현 객사위 공문동산에서 머물고 있으며, 또 하나는 내백호쪽으로 하여서 현 향교 뒤편으로 내려 머물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포제동산에서 내려온 청룡맥은 현 객사 동쪽위 개동산으로 들어와 빌레동산에 머문다. 따라서 혈판은 현 객사위 넓은 공터라 사료된다.

선익(蟬翼)은 혈판의 혈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말한다. 선익은 입수에 모인 기운 가운데 일부가 좌우로 나뉘어 뻗어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기가 혈에 모이도록 돕는다. 선익은 바위와 같이 단단한 토질로 지반을 이루며, 용 좌우에 평탄하면서도 두둑하게 둘러쳐져 있다. 혈판(穴板) 상부에서 입수가 혈로 전해지는 중심 축을 기준으로 좌우 각 30도 각도를 이루며 그 크기는 한 절의 길이인 15m 정도이다.

전순(氈盾)은 입수 기운이 혈과 선익을 만든 뒤, 남은 기운이 혈 아래로 평탄하게 모여 있는 공간을 말한다. 혈판(穴板)과 이어지는 지면을 이루며 혈 앞에서는 마치 새 주둥이와 같은 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상적인 전순은 혈에 생기가 모이도록 혈 앞에서 기운이 끝나는 형태이며 전순에서 생기는 기운은 재물을 만들어준다.

따라서 정의읍성이 혈판은 현청(現廳) 일관헌 뒤쪽에서 들어온 중출맥이 공문동산에서 개동산과 빌레동산으로 청룡이 되어 나즈막하게 머물며, 일관헌 뒤쪽에서 향교쪽으로 백호날이 되어 완연(完然)하게 벌려 넓게 혈판을 만들고 있다.

중출맥에서 나온 용맥은 객사위 천연기념물인 느티나무 위에서 혈을 만들고 느티나무와 밑은 남은 여기(餘氣)인 전순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혈은 느티나무 위쪽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사진 4-12> 혈증이 서린 느티나무와 왼편 일관헌 모습

사신사(四神砂)

산의 전후좌우 사면에 있는 산을 사신사라고 한다. “사신사” 각각의 명칭은 주산을 등지고 지대가 낮은 곳을 향해 내려다보는 자세에서 왼쪽에 있는 산을 청룡, 오른쪽에 있는 산을 백호, 앞에 있는 산을 주작, 그리고 뒤에 있는 산을 현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라고 말한다.

청룡가운데 주산에서 맥이 연결된 청룡을 “본신청룡”이라고 하고, 주산에서 맥이 연결되지 않고 다른 산에서 연결된 청룡을 “외산청룡” 이라고 한다. 백호 또한 마찬가지이며, 본신(本身)과 외산(外山)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주합용호(主合龍虎)”라고 한다. 본신용호는 주산에서 맥(脈)이 연결되어 있어 외산용호보다 명당에 생기를 많이 발생시킨다.

사신사는 고대인의 신앙인 삼신오제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삼신이란 하느님의 조화, 치화, 교화 세 가지 능력의 삼위 일체을 말하고, 오제는 동서남북과 중앙의 5개 방위에서 하느님의 업무를 나눠서 수행하는 분신을 말한다.

신선사상은 고대인들에 의해 하늘에서 산을 통해 내려와 청제(青帝)는 용의 형태로 동쪽에 , 백제(白帝)는 호랑의 형태로 서쪽에, 주제(朱帝)는 봉황의 형태로 남쪽에, 북제(北帝)는 거북이의 형태로 북쪽에 그리고 황제는 사람의 형태로 내려와 중앙에 머문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고구려의 고분벽화(古墳壁畵)에도 잘 나타나 있다.

사신사에는 생기를 만드는 사신사는 명당과 혈을 이룰 수 있으나 생기를 만들지 못하는 사신사는 그러지 못한다. 생기가 있는 사신사는 청룡과 백호가 명당이 있는 쪽을 앞면으로 해서 공손(恭遜)한 자세로 마주보고 있는 반면, 생기가 없는 사신사는 청룡과 백호가 명당을 등지고 있는 형태(形態)를 이루어 명당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



<사진 4-13> 주산인 모지오름

정의읍성의 혈맥(穴脈)이 되는 주산(主山)은 서북쪽에 있는 모지오름이다. 모지오름의 기상을 보면 밝은 보름달이 몸을 내어 수평선 넘어서 솟아나 듯, 장군의 투구를 덮어 놓은 듯한 금형의 기상을 갖고 있다.

한 지역의 기운을 나타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지세를 가늠질 할 수 있는 산세가 중요하며, 그 지역의 산세(山勢)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산이다. 주산이 강체(剛體)이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강건하게 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연약하게 살아간다.

주산 모지오름은 금형산(金形山)으로써 산의 중심(中心)이 안정되고 단아하게 좌우 균형을 이루어 위엄을 갖추고 있다. 산의 중심에는 강한 기운이 집중(集中)되어 있으며 주인격으로써 산의 능선(稜線)은 중심 봉우리가 산 아래 들판을 향해 힘차게 뻗어 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다.

모지오름이라는 명칭에 맞게 오름 밑에는 알봉들이 염주알을 꿰메 듯, 좌우로 널리 펴져 있으며 다른 하나는 백호 쪽에 장자오름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사진 4-14> 모지오름 밑 알봉의 모습

마치 참한 자식을 기르는 듯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의읍성을 품기에는 충분한 주인격(主人格) 산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이 있는 지역은 명당이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력한 지도자가 배출되며, 둥근모양이 마치 농사를 끝내고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형태와 유사하여 재물(財物)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이 배출된다.

사신사의 기능은 주룡에 있는 혈에 생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혈이나 명당은 사신사에 의해 만들어지며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신사가 바람막이 기능, 곡면 반사경 기능, 볼록렌즈 기능 등 세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신사가 바람막이 기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생기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강하게 부는 바람은 기운을 분산시켜 생기가 되지 않으므로 강한 바람을 약하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처럼 바람을 막고 생기를 만들고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을 “장풍”이라고 한다.



<사진 4-15> 정의읍성 조산의 사신사들

용호(龍虎)가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당을 앞으로 해서 혈을 마주보고 있어야 하며, 삼태기처럼 둥그렇게 원형(圓形)으로 감싸고 있어야 한다. 또는 명당 쪽을 향해 아름답게 마주 보고만 있어도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용호가 명당 쪽에 등을 보이고 있으면 오히려 강한 바람을 일으켜 기운을 분산시키므로 바람막이 기능을 할 수 없을 뿐이다.

곡면반사경 기능은 곡면반사면이 이루고 있어 빛을 한 점에 집중적으로 모으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대표적이다. 산, 나무, 강을 포함해 모든 물체는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햇빛이나 달빛을 반사한다.

이때 반사된 빛이 한 지점에 모여 하나의 초점을 이루면 그 곳에서 신비한 기운, 곧 생기(生氣)가 발생된다. 바로 이 부분을 혈이라고 하고 혈 주변을 명당이라고 한다. 즉 여러 종류의 빛이 모이는 공간(空間)은 아름다운 명당을 이룬다.

볼록렌즈 기능은 흩어져 있는 빛을 한 점으로 모아 매우 밝고 뜨겁게 한다. 사신사의 이상적인 형태는 혈을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청룡은 혈의 왼쪽에서, 백호(白虎)는 오른쪽에서, 주작(朱雀)은 앞에서, 현무(玄武)는 혈의 뒤에서 각각 볼록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 네 렌즈의 공통 초점이 되는 곳이 바로 혈(穴)이 되어 엄청난 생기가 모이게 된다. 혈에 생기를 만들어주는, 四神砂 곧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은 각각의 생기를 갖고 있다.

정의읍성 주변을 넓게 살펴 보면 주산이 모지오름이 되고 외청룡은 영주산이며, 외백호는 장자오름이 되고, 안산은 남산봉으로 이루어진 형상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국세(局勢)를 보면 정의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쪽에 주산인 모지오름과 서쪽에 장자오름을 비롯하여 북쪽에 영주산, 동쪽에 본지오름과 동남쪽에 남산봉이 있으며, 서남쪽에 설오름과 남쪽에 갑선이와 아슴선이 오름 들로 잘 짜여진 장풍형(藏風形) 명당을 이루고 있는 형국(形局)이다.



<사진 4-16> 영주산에서 본 주변의 사신사 모습

특히 정의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라산 서북쪽에서 발원한 천미천은 북쪽 영주산 배면을 관통하여 구곡수로 반궁수에 가깝게 읍성을 환포하며 흘러가는 모습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기에도 좋은 땅이며 풍수적으로는 산과 물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명당터로 해석하기도 한다.

청룡(靑龍)에서 발생되는 생기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갖고 있다. 청룡지세(靑龍地勢)의 형태에 따라 산세가 강건하면 힘차고 용감한 남자가 배출되며, 유순하면 국가에 충성과 부모에 효도하며 청룡의 산세가 상부보다 하부에 높이 뭉쳐있으면 하극상의 비극을 만드는 자가 나온다. 등을 돌리고 있는 지세에서는 부모에 불효하고 주변 사람에게 배반 당하거나 사회를 등지는 후손들이 나온다.

청룡 능선을 삼등분하여 상부는 장남. 중앙은 차남. 하부는 막내 아들로 해석하며 기운이 어디에 뭉쳐 있느냐에 따라 발복이 달라진다. 청룡 뿐만 아니라 백호의 길이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다.

정의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내 청룡은 황통지동산, 포제동산, 땅동산으로 흐르는 내룡이 내청룡으로 보이고 외청룡쪽 사(砂)로는 영주산으로 보인다.

내청룡인 포제동산은 본신용(本身龍)이기도 하며 또하나가 분맥(分脈)되어 내청룡을 이루고 있으며 정의읍성에서 바라다 보면 낮은 토형체(土形体)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땅동산은 포제동산 바로 밑에 연결되어 포제동산과 땅동산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또한 주산모지오름 밑 알봉에서 분맥된 황통지동산은 천미천을 따라 좌선(左旋)하며 강하게 내려오고 있으며 모두 정의읍성쪽으로 향한 내 청룡은 땅동산 밑에서 낙맥(落脈)하여 거의 평지에 가깝게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읍성과 주변의 마을을 만들고 있다.



<사진 4-17> 영주산에서 본 모지오름

옛부터 외청룡쪽 사(砂)인 영주산을 정의읍성의 진산(鎭山)으로 보았으며 지금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읍성 조성 당시 중앙집권적 통치이념을 강화하기위해 왕권에 대한 위계질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쪽에 있는 산을 두고 주산 또는 진산으로 한 경우가 앞 연구논문에 의한 사례가 많다.

즉 한양도읍을 향한 위계질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했던 방법중이 하나인 것 같다.

영주산은 정의현의 진산이라고 옛부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정의읍성에서 보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주변산들 보다 가장 높기 때문에 마을을 대표 할수 있는 상징성으로 보기 위함이 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진 4-18> 남산봉에서 본 영주산의 모습

풍수적으로 해석하면, 산과 물이 조화에 의해서 생기가 생겨나며 기(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는 의미는, 지상에 부는 바람에 의해 기가 흩어지므로 주변 사신사(四神砂)에 의해서 장풍이 잘되어 부드러운 바람을 만들고, 땅속에 흐르는 지기는 물을 만남으로 해서 기운을 모아 응축시킨 덩어리가 되어 명당을 이룬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산과 물은 서로 만나 조화를 이루어 생명체를 만들지만, 산이 물을 건너지 못하고 지기를 응축시킨 덩어리를 만들어 명당터를 만든다는 의미로 즉, 영주산은 천미천을 만나 계수즉지(界水卽止)하였다.

영주산은 정의읍성에서 바라다 보면 금형산에 가깝고 동남쪽에서 바라보면 금형산(金型山)과 목형산(木型山)의 쌍봉을 이루는 형상을 하고 있다.

옛부터 정의읍성의 지세를 장군대좌형으로 연구된 문헌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남산봉의 동남쪽에서 영주산을 바라다 본 해석이 아닌가 사료된다.

장군대좌형 지세는 주로 목산형태로서 주변에 산을 전부 거느리는 모습을 의미하므로 영주산이 가장 높고 정의현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오름들이 둘러쳐진 지세이므로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다.

백호(白虎)에서 발생되는 기운은 재산과 여성의 생명력을 갖고 있다. 백호가 기능을 다하는 지역에서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며 딸은 물론 며느리에게 그 영향(影響)이 미친다. 여성의 체질이나 성격에도 반영되어 백호의 지세에 따라 효도를 다하며 정절을 바치는 여성이 나오는 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백호가 뒷면을 보이는 배반격인 경우에는 재물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정의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내백호는 포제동산에서 분맥(分脈)하여 성제동산까지 급하게 내려오다 개동산에 이르러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향교 위쪽으로 용맥(龍脈)이 형성되고 있으며 외백호는 알봉에서 여러개가 분맥하여 외백호의 역할을 하며 현재 성읍초등학교 위로 형성 된 것이 있다.



<사진 4-19> 포제동산

또 하나는 모지오름 동남쪽에서 발원한 장자오름에서 벤저리동산을 내려 당낭밭 쪽으로 해서 현 성읍초등학교 아래로 흘러들어오는 외백호가 정의읍성 전체의 물을 거두는 곳이고 파구처이며 역수가 잘 되는 수구처이다.

결국 용호는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급하게 내려오다 낙맥(落脈)하여 정의현 읍성을 전체적으로 넓게 형성하여 양기(陽氣) 터로써의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며, 또한 멀리는 외백호의 나성(羅城)도 잘 짜여 있어 안정적이고 장풍이 잘 되도록 하는 형국을 만들고 있다.

주작(朱雀)은 혈판 하부, 곧 전순(氈脣)부터 멀리 있는 조산(朝山) 사이에 있는 산을 모두 말한다. 주작 중에서 집터 가까이에 있는 안산(案山)은 재산, 지위, 평판 같은 기운과 연관된다. 주작이 좋은 집터에서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반대인 경우에는 해를 입게 된다.

주작은 현무(玄武)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현무가 주인이라면 주작은 손님 또는 보조자이다. 안산과 조산에서 생기를 보내는 지세에서는 매우 높은 신분으로 상승하며 명예와 재물까지 동시에 얻게 된다.

안산은 집터에서 가깝고 조산은 집터에 멀며, 안산은 본래 “책상”이라는 뜻으로 신분이 높고 낮음과 연관이 있다. 안산의 형태가 안정되고 힘이 있어서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 같으며 부자가 배출되고, 문필봉 형태이면 관직으로 출세하는 인물이 나온다. 반대로 안산의 형태가 불안하거나 흉하면 흉사가 발생한다.

정의현 읍성 중심에서 바라보면 ‘아슴선이 오름’이 안산으로 보아야 될 것 같으나, 옛부터 문헌 및 사람들에 의하면 남산봉을 안산으로 하고 있다.

좌향(坐向) 개념은 앉은 자세에서 낮은 쪽을 바라다 보는 것이므로 모지오름에서 보았을 때는 정의현성과 남산봉이 일직선상에 있으며, 영주산과 현성은 일직선상에 없어 보인다.



<사진 4-20> 서문에서 바라 본 남산봉

정의읍성의 중심에서 보면 땅의 기운인 지맥(地脈)은 모지오름 쪽에서 흘러들어오거나 천미천(天尾川)을 따라 횡룡(橫龍)해 내려오는 것으로 보이며 일관헌 뒤로 입수(入首)된 내룡(來龍)의 혈판은 일관헌 아래쪽으로 형성 되었다고 사료되며, 혈판의 중심 상부에 혈을 만들고 남은 여기가 천년된 느티나무 쪽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왜냐하면 느티나무 아래와 현재 지세의 높이차가 크므로 혈(穴)을 만들고 나서 남은 전순 부위로 판단된다.

일제 강점기를 통해 우리 문화 유산들이 많이 훼손되어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 마저 변형 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수(水)

인류 역사가 물가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물이 사람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잘 나타낸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물을 찾아 물이 가까운 곳에 마을을 이루며 살아왔다.

정의읍성 또한 북서쪽에 위치한 한라산에서 수원(水源)이 발원하여 남류하는 천미천이 영주산 앞을 통과하여 마을의 동쪽을 휘감아 돌며 바다로 유입(流入)되고 있다.

풍수지리(風水地理) 이론으로 분석 하더라도 물은 명당(明堂)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풍수는 곧 바람과 물이라는 용어에도 나타나듯이 물이 있어야만 명당이 이루어진다. 어느 땅이나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물과 짝한 다음이라야 생성(生成)의 묘(妙)를 다할 수 있다.

기(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

강이나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도 물의 형태(形態)에 따라 기운(氣運)이 모이는 위치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에서도 지세를 볼 때 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정의읍성 또한 물과 지세의 흐름에 의해서 천미천을 사이에 두고 영주산 남쪽 밑에는 정소암이라는 계곡(溪谷)이 있고, 읍성을 중심으로 모지오름 남쪽에는 너부못이 있고, 남산봉 밑에는 새앙못이 있으며 읍성의 북쪽에는 흙장못, 남쪽에는 올라니못, 시거니못 등이 있으며 읍성(邑城)안에는 원님물, 노더리못, 남문못, 빌레못이 있었으나 지금은 하천정비 및 읍성 주변 정비로 말미암아 거의 원형을 잃은 상태이다.

정의읍성을 중심으로 천미천이 동쪽에서 휘감아 돌아가는 것을 보면 풍수적으로 조종산(祖宗山)인 한라산 서북쪽에서 주산 모지오름을 거쳐 포제동산에서 내룡이 흘러 들어 옴으로써, 읍성을 중심으로 물의 흐르는 방향을 보면 동남쪽 방향에서 물이 휘감아 돌아 나감으로써 지세의 흐름과 물의 흐름이

조화를 이루는 명당터(明堂攄)이다. 곧 풍수에서 이야기 하는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는 이치와 같다.

마을을 이루는 양기풍수는 음택풍수(陰宅風水)와 달리 크게 국세를 이루어야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지세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터가 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

이러하듯이 하나의 도읍, 읍성, 취락이 형성되려면 제일 먼저 입지(立地)의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감(坎)에 산을 업고 태(兌)에 구가 펼쳐지며 손(巽)에 하천을 끼고, 이(離)에 평야를 포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풍수리지적으로 해석하면 사신사라고 칭하며 가장 이상적인 입지 조건으로 보았으며,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비보(裨補), 염승 행위로 결점을 보완 하려고 하였다.

내부의 공간은 입지의 조건과 가로체계의 형태에 따라 행정관아 시설의 자리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설의 자리가 형성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건물의 좌향을 정하여 세우는데 택보요전, 민택삼요, 양택삼요등 종합적으로 분석(分析)하여 결정하였다.

물의 지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물의 성격을 따져 보아야 한다. 풍수에서는 물의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물의 규모, 흐름의 상태, 수질, 물의 흐르는 방위 등을 살핀다.

정의읍성에 흐르는 천미천은 영주산 남쪽밑을 휘감고 흘러 읍성의 동남쪽에서 마치 꿈틀거리듯 흐르는 구곡수(九曲水)로써 반궁수에 가까운 활의 시위를 당긴 듯한 모습으로 환포(環抱)하여 현재 성읍 초등학교 밑에서 합수(合水)되며 해안쪽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다.

풍수에서 이상적인 물의 형태를 궁수(弓水)라고 하는데, 활의 둥근 모양이나 굽이쳐 돌아가는 형태에서 곡선 중심의 안쪽을 말하며 이러한 지세에서는 물이 잔잔하고 지기가 모여 좋은 명당터를 이룬다.

곧 강물이 흐르는 형태가 직선으로 흐르면 강가 좌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기가 모일 수 없다. 따라서 곡선으로 흐르는 강이나 천이 명당을 이루며, 이는 바람의 속도를 낮추어 생기(生氣)를 만들기 때문이다. 정의읍성 또한 궁수에 가까운 구곡수로써 생기터를 만들 수 있다.

명당은 물의 흐름이 산의 기운과 서로 마주치는 지역에서 발생한다. 강가나 하천에서 물이 방향은 아래로 일정하게 흘러 가기 마련이다. 이러한 강가에서 명당(明堂)이 발생되려면 물의 흐름을 걷어 올리는 듯한 주걱과 같은 지세여야 가능하다. 물이 흘러 오는 쪽을 향해 산이 앞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역수를 이루는 곳이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지세(地勢)에서는 물의 기운이 음양으로 결합되어 명당을 이룬다

정의읍성의 전체적인 국세를 보면 주산 모지오름에서 중출맥은 포제동산을 거쳐 현재 성읍사거리에서 일관헌으로 내려오고, 좌선룡인 청룡은 모지오름에서 황통지 동산을 거쳐 천미천을 따라 현재 농협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우선룡인 백호는 장자오름을 거쳐 벤저리동산에서 현재 성읍초등학교 밑에 당남밭쪽으로 흘러들어 온다.

즉, 읍성쪽으로 흘러들어 온 내명당의 물은 남쪽으로 흐르는 천미천과 서남쪽에서 내려온 외청룡에 의해서 당남밭에서 합수(合水)되어 거두면서 물이 동남쪽으로 흐르는 역수(逆水) 형태를 취하고 있다.

풍수지리 이론인 4대국 포태법으로 해석한다면, 읍성의 입지는 자좌오향(子坐午向)으로 화국(火局)이며 득수(得水)는 간(艮) 방향에서 오며, 합수처이며 파구(波口)는 이(離)방향이 되고 있다.

정의읍성의 수구는 물이 한 지역으로 모여 빠져나가는 곳이 되므로 외백호의 역수가 되는 당남밭쪽이 되고 수구가 막혀 있어 생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큰 부자나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명당형 지세이다.



<사진 4-21> 정의읍성의 물의 득수처

옛부터 정의읍성을 연구한 문헌(文獻)에 의하면 천미천을 중심으로 배형국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뱃머리는 서북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끝은 남산봉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는 강이나 냇물이 마을 을 끼고 돌때 항상 범람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곳을 배형국이라고 규정하며 성곽안에는 일체 우물이 없고 봉천수를 이용한다.

풍수리지에서 해석하는 행주형(行舟形) 지세는 강물을 따라 형성 되는 명당의 대표적인 형태다. 행주형 지세는 강가에 물이 굽이쳐서 그 지역의 마치 배의 형태 또는 반달과 같은 형태의 지역을 말한다.

행주형은 흘러내려가는 강물을 마주보고 퍼 올리는 숟가락 또는 배형태를 이루고 있다. 숟가락 형태인 경우는 움푹 패인 음식물이 고이는 부분이 명당이고, 배형태로 보면, 상부에 가까운 부분이 명당이 되며 하부는 명당이 되지 못한다.

행주형은 반달 또는 초생달의 형태라고도 말한다. 한쪽이 우묵하게 패인 형태로써 이러한 행주형은 강물이 흘러가는 지세의 한쪽에 위치하게 되며, 강물의 하부에서는 물이 휘어 나가게 되어 있다. 이 휘어 나가는 부분이 수구가 된다. 경주의 반월성(半月城), 청주, 평양 등이 행주형 명당이다.

정의읍성을 배형국으로 해석했던 것은 남산봉에서 바라다 본 시각으로, 서북쪽을 향하는 뱃머리와 반달은 아니지만 곡선적인 면과, 비가 많이 내린 우천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풍랑 등으로 인해 해석 했던 것 같으며, 남산봉이 닻이다 키다 하는 것도 남산봉에서 내려온 용맥이 천미천을 만나면서 내룡의 기운과 물의 조화(造化)를 표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좌향(坐向)

좌향이란 사람이나 집터가 남북을 기준선으로 할때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지세에 따라 동향이든. 서향이든 배치 방향에 따른 기운의 차이를 구분하는데 패철을 사용해 왔다.

용의 형태는 주봉에서 시작해서 그 기운이 끝나는 물가까지 이른다. 용의 기운은 그 진행하는 방위를 따라 서로 다르게 흐른다고 본다. 즉, 용의 기운에 따라 방위의 기운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질수 있으며 용의 형태가 생룡(生龍)이면 패철의 방위도 배합(配合)의 방위로 읽으며 용이 사룡(死龍)이면 배합 방위이라 하더라도 불배합 방위로 해석한다.

패철의 24방위는 땅이 갖고 있는 24가지 기운과 의미로써 양택(陽宅)은 지상에 흐르는 기운을 위주로 하며, 음택은 지면을 따라서 그 밑에 흐르는 기운을 기준으로 한다. 패철의 24방위에 각각 오행(五行)의 기운이 포함되어 있다. 양택의 기운을 해석할 때는 패철의 24방위를 8등분하여 동기(東氣)와 서기(西氣)로 나누어 해석 하는데 동기는 지표면에서 상승(上昇)하는 기운이고 서기는 하강(下降)하는 기운이다. 오행중 수, 목, 화는 동기이고, 토, 금은 서

기이다. 따라서 상승하는 기운은 상승하는 기운끼리 잘 조화를 이룬다.

정의읍성의 전체적인 공간의 좌향을 보면 현재 객사(客舍)를 중심으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지세를 이루고 있어 자좌오향을 한 건물배치(建物配置)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진 4-22> 객사의 정면

현재 일관헌과 객사는 감(坎)좌 이(離)향을 하고 있으며 향교는 태(兌)좌 진(震)향을 하고, 고상은 가옥과 한봉일 가옥은 건(乾)좌 손(巽)향을 하고 있다.

객사를 중심으로 좌향을 보면 중심선상과 북쪽에는 감좌이향을 하고 있으며 좌·우측면에는 지맥의 선상에 좌향을 택하고 있었다.

주산인 모지오름에서 청룡쪽으로 흘러 들어온 내룡 일부는 건좌손향의 지세를 만들었고 중출맥 및 내청룡으로 흘러들어온 내룡은 감좌이향을 만들었으며 백호쪽으로 흘러들어온 내룡 일부는 태좌진향(兌坐震向)의 지세를 만들었다고 사료된다.

영주산은 상징적인 의미로써 진산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 정의읍성의 주산은 모지오름으로 풍수지리 해석의 논리로 보면,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만나 조화를 이루어 기가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강한 응어리가 생겨야 명당터가 된다.

정의읍성은 양기지역으로써 배산임수(背山臨水)와 전저후고가 잘 이루어지고 중출맥 중심선상은 건좌손향(乾坐巽向)과 감좌이향(坎坐離向)의 남향배치가 되어 사람이 모여 살기에는 아주 좋은 명당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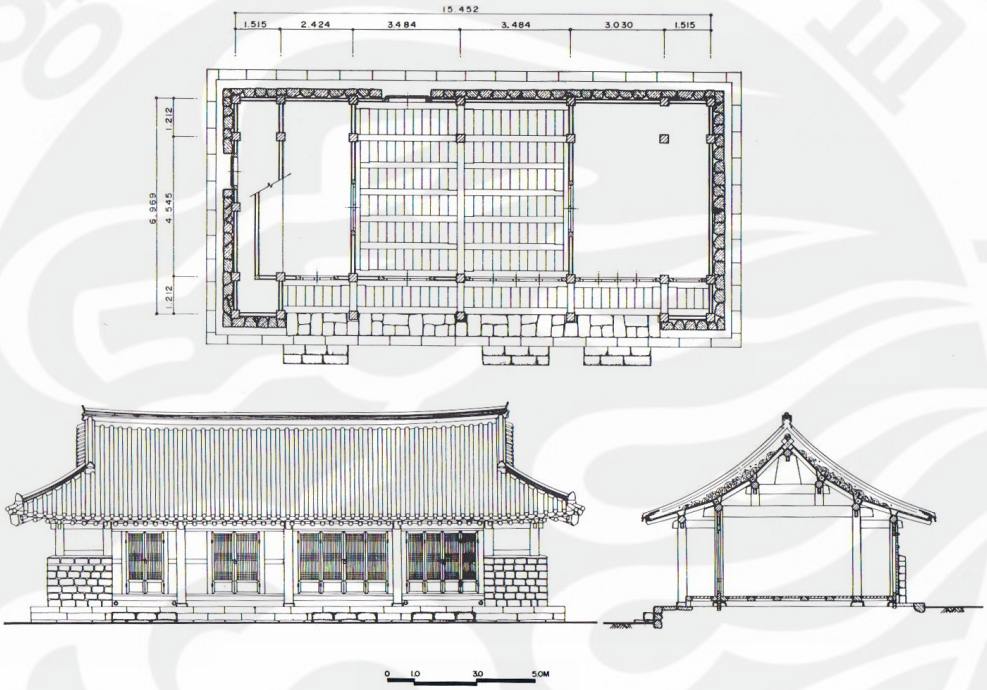
<사진 4-23> 남산봉에서 본 한라산의 산세

정의읍성은 조종산인 한라산에서 주산인 모지오름까지 힘차게 내려와 천미천을 만나며 지기를 응축시켜 명당터를 만들고, 천미천 너머 모지오름과 직선의 축이 되는 안산 남산봉이 마치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듯, 금형산 모양을 하고 있어 읍성의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터이다.

제2절 정의읍성 공간 구성의 풍수지리적 해석

1. 관아 건축물

일관헌(東軒)



<그림 4-16> 현 일관헌도

주산 모지오름에서 내려온 용맥이 현재 일관헌 뒤편으로 해서 들어 오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택삼요(陽宅三要)의 전저후고, 배산임수, 전착후관의 이론에 따라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입지에 배치 되어져 있었다.



<사진 4-24> 현 일관헌과 대문전경

비록 천미천 넘어 영주산을 상징적인 진산으로 해서 배산임수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좌향으로는 감좌이향(坎坐離向)으로 동사택 기운을 취하고 있다.

현재 대문의 위치는 마당 중심에서 보았을 때 진(震)방위에 배치되고 있어서 동기운 끼리 조화를 이루는 배치를 하고 있다.

풍수지리에서 해석하는 동기운은 북방, 남방, 동방, 동남방의 방위를 말하고 서기운은 서방, 서북방, 동북방, 서남방의 방위를 말한다.

건물과 대문의 방위는 서로 상생 관계를 이루는 것이 좋으며 일관헌은 동기운인 감(坎)방위을 하고 있으므로 중남수에 해당되고 대문은 마당중심에서 보았을때 동기인인 동방의 진(震)방위를 하여 장남목으로 음양으로는 안 맞으나 오행으로는 수생목이 되어 좋은 기운이 회전 되고 있다.

풍수지리에서는 건물의 평면 형태에 따라 길흉(吉凶)을 해석한다. 정의읍성의 일관헌의 평면은 직사각 형태로써 굽이굽이 흐르는 물처럼 좌우로 길게 늘어선 산을 수산(水山) 형태로 보고, 가로로 길게 “一”자를 이루고 있는 직

사각형 평면은 수산 평면으로 구분한다.

전통한옥 학교 건물이 대표적이며, 외관상 커 보이면서 채광(採光)과 환기(還氣)가 잘되고 외부 마당과 연결이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직사각 평면에서 발생하는 생기는 평면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비율(比率)이 1 : 1에 가까운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생기가 많이 생기고, 깊이에 비해 가로가 길면 길수록 기운이 좌우로 분산 되어 생기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직사각형이라도 가로 세로 비율이 1 : 2 미만을 명당 평면으로 본다. 특히 가로, 세로 비율이 1 : 1.7(= 3 : 5)까지인 평면은 기운의 회전이 원활한 대표적인 명당으로 구분된다. 경복궁(景福宮) 근정전과 창덕궁 인정전 등 궁궐 중심 건물과 해인사 등 유명 사찰의 대웅전이 직사각형 명당의 대표적인 예다.

정의읍성의 일관헌은 평면의 가로 세로 비율이 1 : 2.2 가 되어 기운이 중심에 모이지 않고 흩어져 명당을 이루지 못하고 기운이 좌우로 분산되어 생기가 빈약한 흉가로 구분된다.

풍수지리에서는 건물의 지붕 형태에 따라 길흉을 해석한다.

지붕은 건물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지붕형태에 따라 건물의 기운이 달라진다.

명당형 지붕은 건물 중심에 기운이 모이는 형태를 말한다. 원형(圓形), 돔형 지붕이나 피라미드형 모임지붕이 대표적 명당형 지붕이다. 돔형이나 피라미드형 지붕은 용마루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特徵)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운이 중심점(中心點) 한 곳으로 모여 명당을 이룬다.

반대로 한옥 기와집은 긴 용마루를 갖고 있다. 또한 지붕 중심은 낮고 좌우는 높이 솟아 있다. 이렇게 용마루가 긴 건물은 기운이 중심에 모이지 않고 좌우로 분산되어 생기가 부족해서 명당 건물이 되지 않는다.

정의읍성이 일관헌의 지붕은 팔작지붕에 합각을 하고 있으며 지붕 정상 용마루 선이 아래로 약간 처진 지붕 형태를 하고 있어, 자연 형태의 산의 유형으로 해석하면 수산 형태에 가까워 대체로 차분하고 안정되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운이 좌우로 분산돼서 중심에 모이는 힘이 부족하다.

한국 기와 지붕의 기운은 안정적이며 고요한 특징을 갖고 있으나,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심부분이 낮고 좌우가 높은 형태는 기운이 좌우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와 지붕의 기운에 의해 한옥 집에 사는 사람들이 분당(分黨)과 분열(分裂)이 심하고 단결심이 부족하다고 보여 진다.

객사(客舍)

현재 정의현 객사는 복원된 건물로써 1702년 (숙종28) 이형상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남긴 “탐라순력도” 가운데 정의현 순력 광경을 그린 “정의강사” 등에는 당시 객사의 모습이 팔작지붕에 4칸 건물로 그려져 있는 것을 기초(基礎)로 하여 2000년 정청과 좌우 익사(翼舍)를 둔 건물로 복원 되었다.

“탐라순력도”에 그려진 객사는 “一”자 평면의 좌우가 익사가 없는 단일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위치 또한 동헌, 혹은 성중(城中)이나 남성(南城) 내 등 문헌마다 기록이 다르다.

현 객사의 위치는 현재 일관헌(日觀軒) 보다 밑에 정중앙 쪽에 옛 성읍초등학교 터에 자리 잡고 있다. 현 일관헌 보다 경사면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모지오름에서 내려온 용맥이 일관헌을 따라 천년(千年)된 느티나무 아래에 객사가 있으며 전저후고(前低後高)가 뚜렷하며 배산임수가 되며 남향 배치가 되어 있어 햇빛이 잘 들어 건강한 건물의 형태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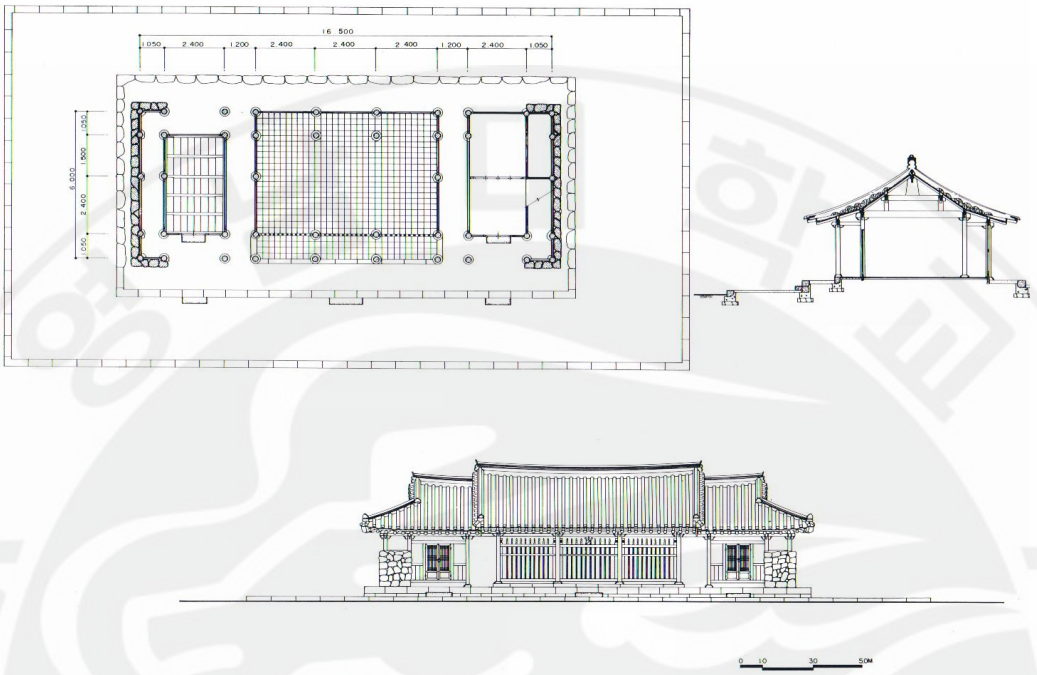


<사진 4-25> 현 객사 후면 전경

1978년 “제주도 민속촌(民俗村) 지정 보존 대상자 조사보고서”의 유적지 분포현황도의 그림에 의하면 객사의 대지면이 동쪽과 남쪽도로에 접하여 있어 지세의 흐름을 잘 따른 풍수지리적으로 명당터가 되는 곳이다.

풍수에서 도로는 기운, 곧 바람이 통과하는 길을 뜻한다. 바람은 생기를 모으는 역할을 하므로 두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垈地)는 바람을 많이 모으기 때문에 바람이 잔잔한 도로쪽이 명당에 가깝다.

직선도로에서는 바람이 속도가 빠르고 곡선도로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느리다.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바람의 세기와 속도가 다르며, 직선도로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빨라서 생기가 분산(分散)되기가 쉽기 때문에 기운이 모이지 못하므로 불리하다.



<그림 4-17> 현 객사도

현 객사의 정면 도로는 직선으로 대문 쪽으로 남문에서 관통되어 있어 생기를 모으지 못하고 도로에서 부는 바람이 직통으로 대문으로 불어오므로 불리하다. 그러므로 현 객사의 위치가 풍수적(風水的)으로 잘 맞지 않는 배치라고 할 수 있다. 풍수지리에서는 건물의 방위에 따라 길흉을 해석한다.

건물의 방위를 보는 것은 좌향에 의한 기운을 구분함으로써 건물의 기운을 구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방위라고 하면 외부 방위를 말하는데 마당의 중심점에서 건물과 대문의 방위를 측정한다. 내부 방위는 문(門), 주(主), 조(燥)의 양택삼요에 의한 내부 중심점에서 각 공간(空間) 방의 방위를 측정하여 방위에 의한 기운을 정확히 분석 하여야 한다.

양택은 지상에 흐르는 기운이 중요하며, 지표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르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난류(暖流)와 한류(寒流)를 일으켜 일정한 방위를 따라 흐른다.

지표면에 수직 회전하며 흐르는 기운은 동기와 서기로 구분된다. 동기는 지표면에서 상승하는 기운이고, 서기는 하강하는 기운이다. 오행중 수, 목, 화는 東氣, 그리고 토, 금은 西氣로 구분한다.

동기는 같은 동기끼리 잘 어울리고 서기도 같은 서기 끼리 잘 어울리지만 기운이 다른 동기와 서기는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한다. 서로 다른 기운끼리 혼합되면 기운이 탁해 지기 때문이다.

즉 건물 중심부에는 동기든 서기든 한 기운만 모여 있는 것이 균형과 안정을 만들어 주며 대문 또한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이므로 건물과 대문에 기운이 같으면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게 되어 건물에 좋은 기운이 만들어 진다.

현 객사의 좌향을 보면 감(坎)좌 이(離)향을 하고 있으며 마당 중심에서 바라본 대문에 위치는 이(離) 방향에 있어 같은 동기운 끼리 조화를 이루어 건물에 좋은 기운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음양오행으로 보면 현 객사는 중남수(中男水)에 해당되고, 대문의 방위는 중녀화(中女火)에 해당되어 음양과 오행이 서로 상생(相生) 관계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 항상 생기를 만드는 곳이 된다.

현 객사 건물은 풍수적으로 해석하면 동사택이고 陰陽과 五行이 서로 상생하는 이치를 가지고 있어 최고의 건물 방위 배치라고 할 수 있다.

풍수적으로 건물이 갖고 있는 기운을 분석 할 때는 건물의 형태와 비슷한 산이 기운을 적용시키면 된다. 산의 생기 유무(有無)가 형태에 따라 결정되듯이 집이나 건물도 그 형태에 따라 생기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다.

주인격(主人格) 평면은 건물의 중심에 기운이 모이는 평면의 형태이고, 원형, 수직선형, 정사각형 평면이 주인격 평면에 속하며, 보조격(輔助格) 평면은 건물의 기운이 분산되어 생기가 부족 형태의 평면으로 직사각형 “ㄱ”자, “ㄷ”자 평면이 보조격 평면이고 배반격 평면은 건물이 마당을 등지고 뒷면으로 꺾어져 “ㄴ”자, “ㄷ”자 형태를 이루는 평면이다.

현 객사의 평면 형태를 보면 가운데 정청을 두고 좌우에 익사가 있는 건물로 가운데가 직사각형 형태이지만 평면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 : 1.75가 되어 풍수에서 해석하는 생기가 원활히 흐르며 기운이 회전이 용이(容易)하다. 익사 또는 각각으로는 평면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풍수적으로는 맞으나 전체의 건물로는 "一"자형이 되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기의 흐름을 분산시켜서 그다지 좋지는 않다.

객사 또한 건물의 지붕형태나 입체적인 형태 또한 일관헌과 똑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한옥에서 주는 차분하고 안정되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주는 장점은 있으나 기운이 좌우로 분산되어 중심에 모이는 힘이 부족하다.

정의 향교(旌義鄕校)

정의 읍성의 서문 옆 약간 높은 언덕에 동향으로 위치해 있다.

주산 모지오름에서 발원하여 포제동산에서 분맥되어 성제동산과 개동산을 거쳐 향교의 대성전 쪽으로 용맥이 입수하고 있다.

대성전(大聖殿)은 전면 5칸, 측면 2칸에 전후에 퇴가 있다, 앞퇴는 트여 있고, 바닥에 박석을 깔았다. 기단(基壇)은 낮고 원뿔대형의 장주초 위에 민흘림 두리 기둥을 굵게 썼다. 천정은 연등 천정이며 완만한 물매의 겹처마 합각지붕이다.

명륜당(明倫堂) 역시 전면 5칸, 측면 2칸의 전후좌우 퇴집이다. 전퇴는 토방이고 중앙 3칸은 판청이고 좌우익은 온돌과 고방으로 고전적인 간잡이를 하고 있다. 지붕은 합각지붕이며 홑처마로 되어 있다.

향교의 대성전은 공자님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유교의 효사상을 가르치며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배치한다. 정의향교는 주맥(主脈)에서 백호의 자리에 입지해 있는 곳으로 아주 길한 터이다.



<사진 4-26> 현 정의향교의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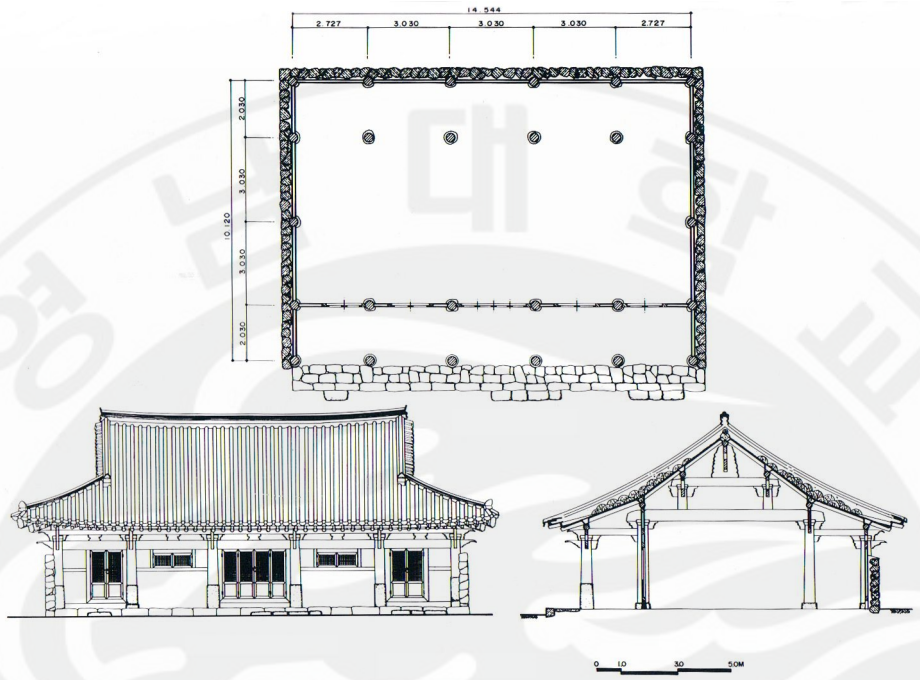
대성전의 평면 형태를 분석해 보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1 : 1.4 로써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워 산의 형태로 보면 토산(土山)에 가까워 탄탄하고 생기 있는 평면 형태가 된다.

정사각형 건물에서 벽 길이 모두가 같아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음기운과 양기운의 회전 운동이 원활해서 생기가 발생한다.

유명한 건물들은 정사각형 벽면과 둥그런 돔형 지붕으로 되어 있다.

명륜당의 평면 형태를 분석해 보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1 : 2.3 이 되므로 직사각형 평면형태가 되고 산에 비유하면 수형산에 해당되며 가로가 길면 길수록 기운이 좌우로 분산 되어 생기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대성전이나 명륜당의 지붕은 합각지붕이 되어 용마루가 밑으로 처져 있어 좌우로 기운이 분산되어 생기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림 4-18> 현 향교 대성전도

대성전의 마당 중심에서 방위를 보면 본 건물의 좌는 태(兌)좌 진(震)향을 하여 서사택 기운을 갖고 있으며 대문은 손(巽)방위에 놓여 동서사택 기운으로 맞지 아니하며 음양오행으로 분석하면 태(兌)는 소녀금이고 손(巽)은 장녀목이므로 금극목(金克木)하여 상극(相剋) 관계이므로 서로 맞지 않다. 하지만 백호 쪽에서 용맥이 들어오므로 명당의 위치에 자리 잡은 터이다. 즉 풍수적으로 해석 할때는 지세의 흐름이 방위보다 더 중요하다.

기와집 지붕은 앞면이나 뒷면이 모두 처지는 곡선을 이루고 있어 이들 곡선의 중심점 위치가 각각 다르다. 중심점 위치가 서로 상반되는 지붕은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댄 형태를 이루고 있어 의견 충돌과 분열을 일으킨다.

2. 시설물(施設物)

성곽(城郭)

조선초 읍성의 형태는 주로 원형과 방형(方形)이 주가 되어 축성(築城)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넓은 들판이 있어야 하고 들판 주변을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바람을 막아 주어야 생기가 돈다.

산에 둘러 쌓이지 않은 들판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생기가 보이지 않게 되므로 사람이 모여 살기에는 부적합 곳이 된다.

정의읍성의 성곽 주변은 전체적으로 솥뚜껑과 같이 둥글고 평탄하면서 땅 중심 부분이 언덕이나 분지(盆地)와 같이 솟아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림 4-19> 정의읍성 성곽의 방형형태

읍성은 지방 행정부가 있는 고을에 축성되며 성안에 관아(官衙)와 민가를 함께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읍성은 행정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함께 갖는

것이다.

풍수지리의 바탕이 된 삼신오제사상(三神五帝思想)은 음양설과 함께 하느님은 우주의 본원은 기라 할 수 있으며, 하느님은 삼신과 오제를 통하여 자연과 인간을 창조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삼신오제사상을 이론화 한 것이 음양오행사상이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생기(生氣)란 여러 기가 결합해서 길한 기운을 만들어 음양의 造化와 均衡이 맞는 안정된 기운을 말하며, 이러한 기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형태와 크기가 중요하다.



<사진 4-27> 남문성곽의 모습

정의읍성 성곽이 원형에 가까운 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회전운동을 일으켜 가장 큰 생기가 모일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공간의 형태에 따라 울림이나 기운의 순환하는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에서 머무는 사람 및 생명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 원형이나 정사각형 공간에서는 바람이 회전하기 쉽다. 면적이 같은 평면에서는

원형이 회전 할 수 있는 바람의 크기가 가장 크다.

정사각 평면에서도 바람의 회전이 용이 하며, 직사각형이나 “ㄱ”자 형에서는 바람이 순조롭게 회전 하지 못하고 크기도 작다.

따라서 바람의 회전 조건은 공간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큰 회전을 일으키는 공간이 생기가 큰 것으로 본다.

생명은 기본적으로 둥근 공 모양으로 되어 있다. 알이나 태반 같은 구형(球形)이 생기가 가장 밀집 된 형태이다. 구가 기운이 가장 쉽게 순환 할 수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 시키는 것은 모두 둥글다.

불교의 윤회설(輪回說)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와 변화 과정을 원형으로 보았으며, 물은 생명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면서 육각형 형태를 이루고, 음과 양의 순환 형태를 상징하는 태극(太極) 역시 원형이다.

8괘를 상징하는 팔각형 역시 생명을 상징하는 형태이며, 생기가 모이는 들판 역시 원형이며, 명당형 건물은 전체가 구형에 가까운 건물을 말한다.

결국 평면이 원형, 타원형, 팔각형, 육각형, 정사각형 이면 명당형 평면이다. 이런 평면에서는 기운이 중심에 모이며, 바람의 회전이 용이하고, 공간에서 발생하는 진동(震動)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풍수로 볼 때 이상적인 높이는 정육면체 형태의 높이를 의미 하며 평면 길이와 비슷한 높이를 이상적인 높이로 보며, 이런 형태가 기운이 회전(回轉)하기에 가장 용이하다.

정의읍성의 성곽의 평면 형태는 귀 죽인 방형 형태이므로 기운이 회전이 원활하고 중심에 기운이 모여 항상 공간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준다.

또한 성곽의 높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3.1m~4.2m 정도이고 성곽 둘레의 길이는 약 1100m 이다, 풍수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느낌이 안 들고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 기의 흐름이 원활하게 만든다.

포제단(酺祭壇)

정의현 마을에서는 유식 마을제인 포제를 지내는 곳으로 현재까지 치러지는데 매년 음력 정월 초정일에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포제동산에서 제를 올린다.



<사진 4-28> 정의현 포제단 전경

상단신(上壇神)은 포신 지위, 하단신(下壇神)은 제수 임신지위, 염질신 지위와 목동신 지위다. 제신 가운데 목동신이 끼어든 것은 정의현이 예로부터 농업과 더불어 목축업이 성행 했다는 근거라 할 수 있다.

포제동산은 정의읍성으로 들어오는 용맥이 분맥 되는 곳으로 천미천을 사이에 두고 영주산의 지세의 기운에 의해 모지오름에서 천미천을 향해 내려오던 용맥이 좌선이 되어 정의읍성 쪽으로 중출맥과 청룡, 백호가 분맥되는 서기(瑞氣)가 서려 있는 곳이다. 사진에서 보듯이 암석들로 꽉찬 기운을 내뿜어 강하게 내룡을 밀어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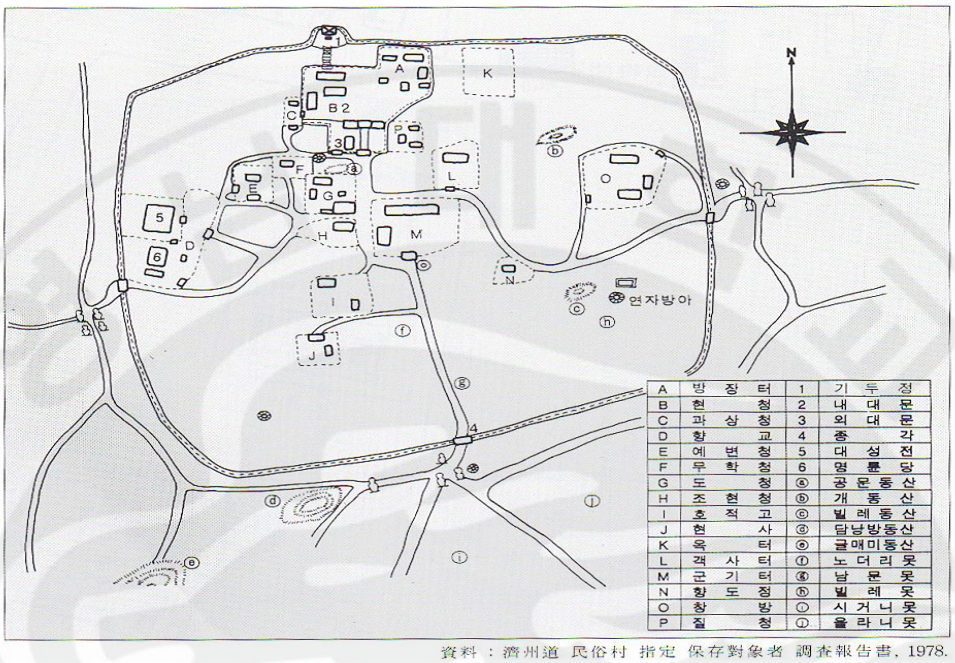
<사진 4-29> 포제단 주변의 바위모습

가로체계(街路體系)

대부분의 읍성 중 객사를 중앙 북쪽에 두어 향궐망배를 하도록 한 것이 중앙의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입지적으로 가장 지세의 중심 내룡에 있으며, 가로체계는 대부분 十자형이나 T자형이 많으며 조선시대의 간선도로 유형은 T자형이 지배적 이었다고 볼 수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도로는 바람길이 되므로 도로의 형태에 따라 생기를 만들기도 하고 분산시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직선도로에서는 바람이 빠르게 불어 생기를 만들지 못 하고 오히려 생기를 빼앗아 가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도로 주변에 있는 집은 벽면을 두껍고 넓게 하고 창문은 작게 해서 실내 기운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의읍성의 객사 앞 남북도로는 넓은 직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빠르게 흘러 감으로써 객사 앞에 넓은 마당을 두어 생기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도로 옆 민가들은 올래라는 골목을 두어 바람이 직풍(直風)으로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 부드러운 바람으로 생기를 만들도록 배치하였다.



資料 : 濟州道 民俗村 指定 保存對象者 調査報告書, 1978.

<그림 4-20> 정의읍성 가로체계의 모식도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두 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는 바람을 많이 모으기 때문에 좋은 터로 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바람이 잔잔한 도로쪽이 명당이 된다. 곡선으로 된 도로에서는 곡선 바깥쪽 대지가 안쪽 대지보다 좋다. 곡선 도로를 통과할 때 높아진 바람이 원 중심점 바깥에 위치한 대지에 들어오게 된다. 곡선 안쪽에 있는 대지에서는 바람의 압력이 낮아져 실내바람이 외부로 빠져 나가게 된다. 바람이 들어오는 대지는 기운이 모여서 명당이 된다.

정의 읍성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는 곡선 형태를 하고 있어 빠르게 부는 바람을 잔잔한 바람으로 만들어 생기를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명당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 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길 수록 바람의 속도가 빨라져 기운을 모아 줄 수 없으므로 짧은 올래를 두어 도로가 기운을 모아 주는 역할(役割)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3. 민가건축물(民家建築物)

조일훈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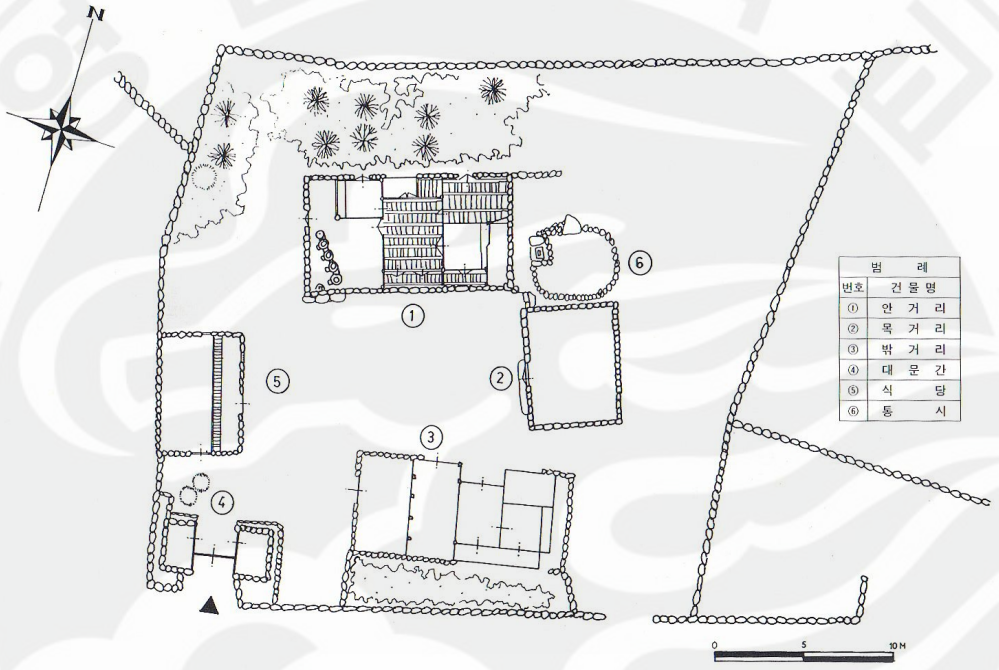
<사진 4-30> 조일훈 가옥 안거리

정의현성의 객사터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두 개의 길과 닿은 대지는 정방형에 가까운 네모꼴이고,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 밖거리, 목거리 "ㅁ"자로 배치된 이문간이 갖추어진 집이다.

거리길이 만나는 모서리를 이용하여 이문간으로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북향하여 밖거리가 있으며 밖거리 맞은편에 南向하여 안거리가 있고, 마당 좌우측 안거리와 밖거리 사이에 목거리가 배치되어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해석할 때 입지형태가 가장 좋은 것은 정사각형이 가장 이상적이다. 정사각형 모양에서는 공기 회전이 자유로워 생기가 많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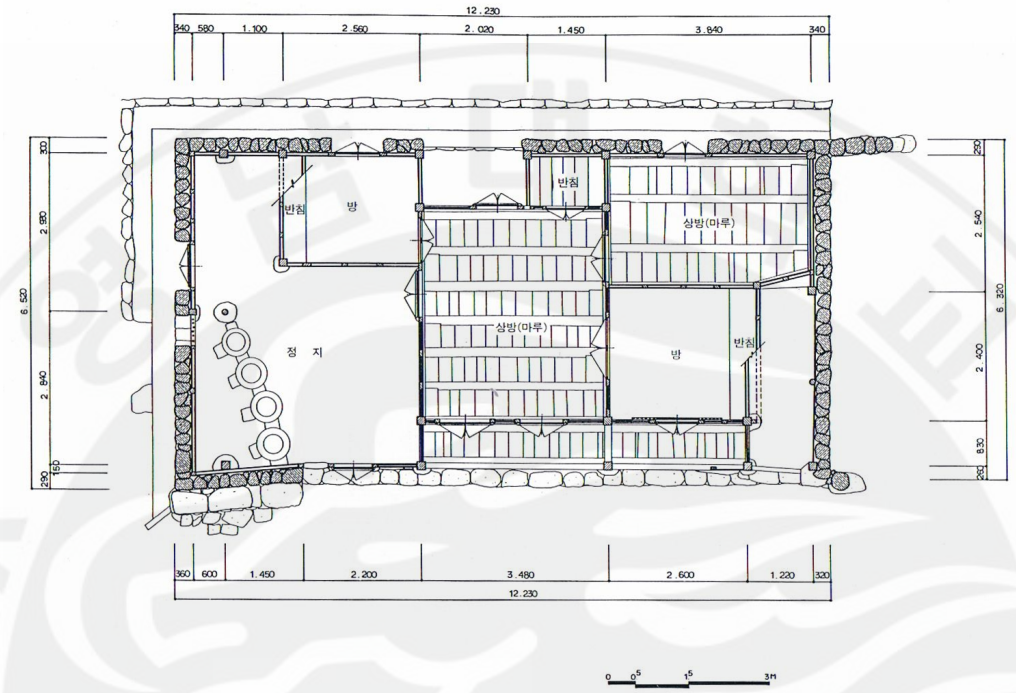
생기가 모인 입지에서는 건물의 기운과 결합하여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생기를 갖게 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림 4-21> 조일훈 가옥 배치도

조일훈 가옥은 지붕의 형태가 마치 바가지를 엎어 놓은 듯한 초가집이다. 이러한 지붕은 산의 형태와 조화를 잘 이루어 둥근 모양이 송이 같기도 하다. 명당형 지붕은 건물 중심에 기운이 모이는 형태를 말하며 원형돔이나 피라미드형 모임 지붕이 대표적인 명당형 지붕이다.

금산(金山) 지붕은 중심에 기운을 집중시키는 힘이 강해 사람들을 단결 시킨다. 초가지붕 또한 금산 지붕에 속한다. 즉, 지붕의 곡선이 중심은 높고 좌우가 낮아 기운이 상승하는 형태를 하여 벽체와 지붕이 서로 조화롭다.



<그림 4-22> 조일훈 가옥 평면도

건물의 평면형태를 풍수적으로 해석하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 : 2 미만인 평면 형태가 기를 모으는데 좋으며 특히 비율이 1 : 1.7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 건물의 평면형태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1 : 1.87 이므로 이상적인 건물의 형태이다.

풍수지리적으로 해석할 때 가장 이상적인 마당의 형태는 정사각형이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기운은 양 기운으로 이상을 추구하는 정신적 기운이다. 마당에서는 건강, 재물, 여성의 기운 같은 음기운(陰氣運)이다.

따라서 마당의 기운이 건물 안에 흡수되어 생기를 이루기 때문에 건물은 마당보다 약간 높게 짓는 것이 좋다.

안거리의 방위 배치를 보면 감(坎)좌 이(離)향을 하고 있으며 대문은 마당중

심에서 곤(坤)방위에 위치해 있어 서기운이 흐르고 있다. 안거리 건물은 동기운이고, 대문은 서기운이므로 조화가 잘 이루지 못하나 사진에서 보면 안거리 건물 뒤로 용맥이 들어오므로 명당터이다.

음양오행으로 해석해 보면 감(坎)방위는 중남수이고 곤(坤)방위는 노모토(老母土)이므로 음양으로는 맞으나 오행으로는 손님이 주인을 해하는 토극수(土克水) 상극 관계이다.



<사진 4-31> 안거리 뒤 용맥입수 모습

이 가옥은 전체적으로 명당이라고 할수 있다. 입지 형태와 지붕의 형태와 마당의 형태며 안거리 뒤로 용맥이 들어 옴으로써 명당형 건물이다.

이영숙 가옥

정의향교와 이웃하여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활꼴 거리길을 따라 들면 부정형(不定形) 대지에 이문간 없이 마당을 앞에 두고 동향(東向)하여 안거리가 자리하고 맞은편에 헛간이 안거리와 마주보고 배치되어 있다.

안거리 북쪽 측벽 앞에는 통시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안거리 뒤쪽에는 상방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담으로 구획되어 안뒤 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우영(텃밭)이 일구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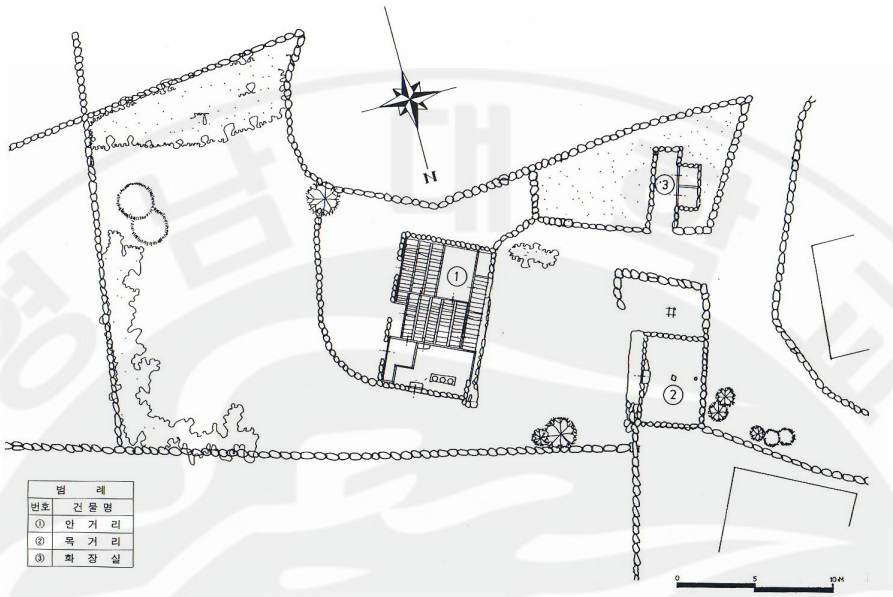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면 안거리 뒤쪽 정중앙으로 석맥(石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 석맥이 아름다울 때는 좋은 기운으로 작용하지만 이처럼 굴곡(屈曲)이 심하면 탈살(脫煞)이 덜 된 것으로 보아 나쁜 기운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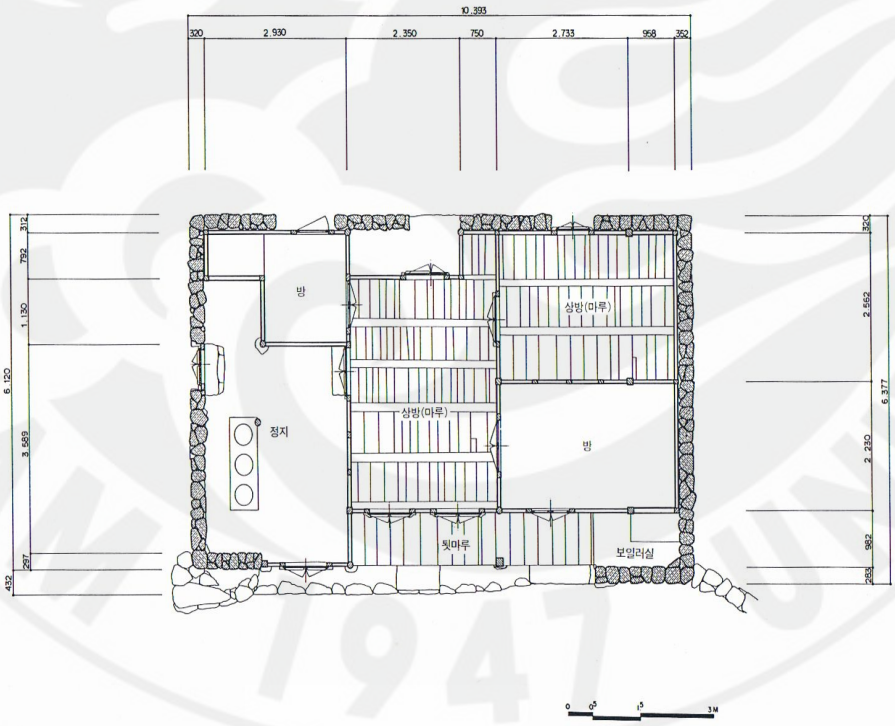
<사진 4-32> 이영숙 가옥 안거리 뒷면 석맥 입수

풍수지리적으로 해석할 때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이면 바람의 불규칙적으로 원활하지 않아 기의 흐름이 일정하지 못하여 안정된 생기를 만들어 내지 못하여 불리하다.

이 건물의 평면형태는 "一"자형으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 : 1.7 이 되므로 비록 건물의 평면이 "一"자형이지만 평면의 형태로는 명당형 건물의 형태이다. 지붕의 형태 또한 가장 지붕의 중심에 기가 모이는 금산형을 하고 있다.



<그림 4-23> 이영숙 가옥 배치도



<그림 4-24> 이영숙 가옥 평면도

이 건물을 음양오행으로 해석해 보면 안거리는 소녀금(少女金)이 되고 주 출입구는 장남목(長男木)이 되어 음양으로는 조화를 이루나 오행으로는 금극목(金克木)하여 상극 관계가 되어 불리하게 작용된다.

이 가옥의 특징은 안거리를 사이에 두고 앞마당과 뒷마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해석할 때 건물은 남성에 해당되며, 마당은 여성에 해당된다. 따라서 마당에서 발생되는 기운은 여성에게 많이 작용되며 마당에 기운이 뭉쳐 있으면 여성의 기운이 왕성하며 건물에 기운이 뭉쳐 있으면 남성 기운이 왕성하다.

마당은 여성을 의미하므로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에게 두 여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앞마당을 본처(本妻)로 보고 뒷마당을 후처(後妻)로 본다. 따라서 이영숙 가옥에서는 뒷마당이 크고 석맥이 강한 지기를 받고 있으므로 여성의 기운이 강하여 여러명의 여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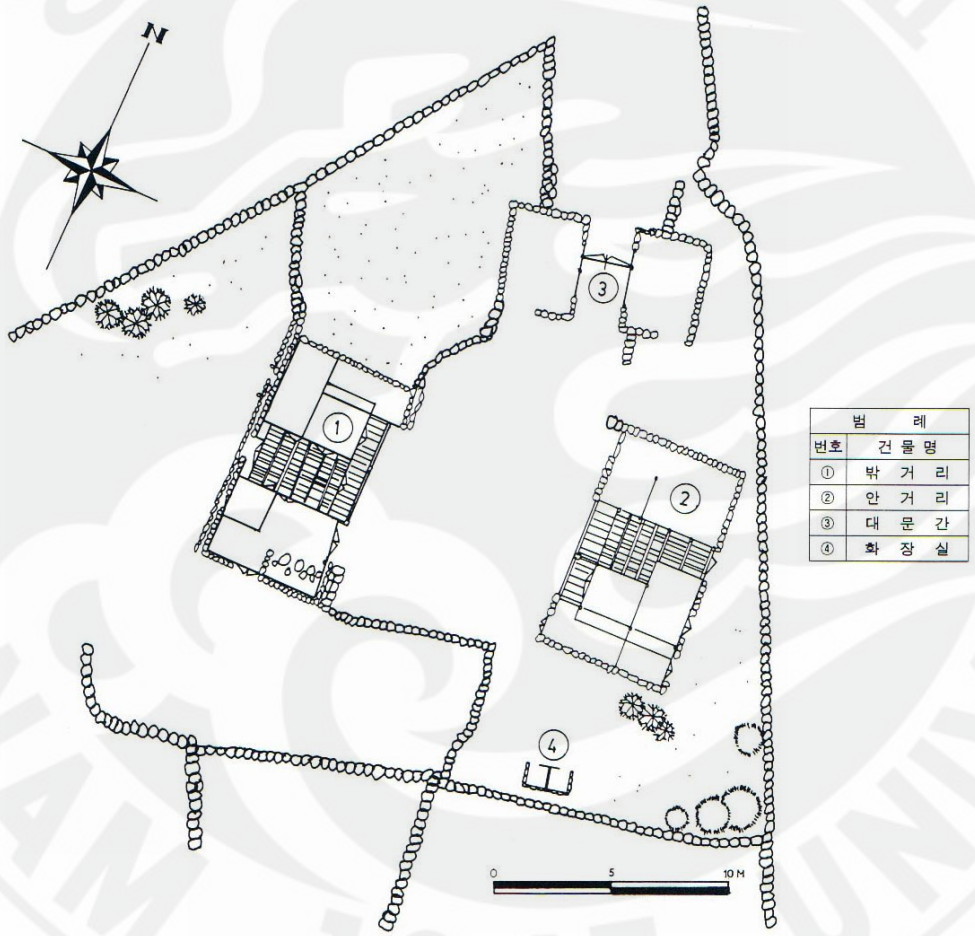
풍수지리적으로 해석할 때 마당면적은 집 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좋다. 집 앞에 있는 마당은 집 연면적의 3배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5배를 초과하면 마당이 너무 넓어 생기가 분산되어 집안에 전달되는 생기가 줄어든다고 본다. 마당이 너무 넓으면 건물 3배정도 넓이만 안마당으로 하고,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서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가옥은 풍수지리적으로 해석 할 때 서기운을 갖고 있으므로 내부구조 또한 양택 삼요인 문·주·조가 서기운이면 좋은 생기를 만들기 때문에 좋다. 안방이 같은 기운이 되지만 다른 공간들은 혼합된 기운을 갖고 있어 불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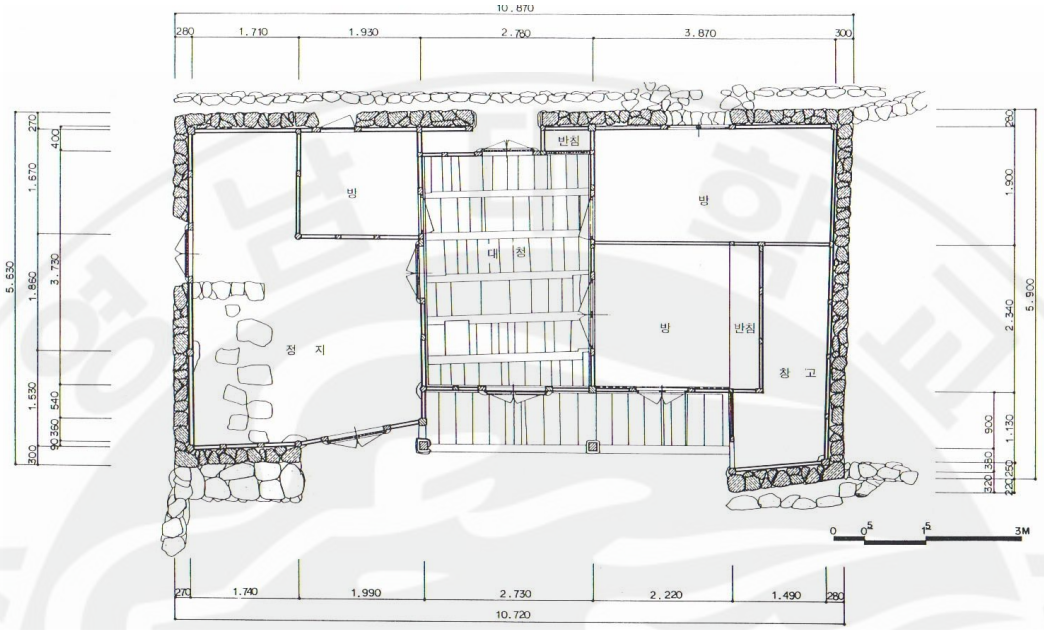
또한 주 출입구는 바람을 집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므로 좋은 바람이 들어오면 그 집에 좋은 기운이 흐르게 된다. 이 가옥은 도로에서 직풍이 불어 살풍이 들어오지 않게 짧은 올래를 두어 바람을 부드럽게 만들어 생기가 흐르도록 주 출입구를 만들었다.

한봉일 가옥

한봉일 가옥은 19세기초에 건립된 것으로 마을의 중심가에서 동쪽으로 들어선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부정형에 가까우며, 안거리 건물 또한 "一" 자형 평면을 하고 있으며, 향쪽에는 금산형태인 남산봉이 있고 바로 가옥 앞에는 천미천이 휘감으며 흐르고있다.



<그림 4-25> 한봉일 가옥 배치도



<그림 4-26> 한봉일 가옥 평면도

풍수지리적으로 해석해 볼 때 지세는 정의 읍성내 청룡끝쪽에 해당하는 빌레동산 뒷면을 좌(坐)로 하여 안거리는 건좌손향(乾坐巽向)을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풍수에서는 명당은 산의 앞면에 있으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산의 형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산의 앞면 형태는 평탄하고 안정적이며, 지면에 밝은 기운이 서려 있으며, 낮은 들판이나 물을 향하고 있다. 반면 산의 뒷면 형태는 굴곡이 심하고 험한 바위가 불규칙적이며, 지면이 어둡고 험하며 산이나 큰 강을 등지고 있다.

대지의 형태를 풍수적으로 해석하면 방형(傍形)에 가까운 정사각형 형태가 유리하다. 기(氣)의 흐름을 원할히 하고 생기를 모으려고 하면, 대지에 비해 건물과 마당이 너무 커도 안 되며 작아도 안 된다. 따라서 마당은 건물 연면적이 3배가 이상적이며 이 보다 넓은 대지는 내부 울타리를 하여 생기가 분산되지 않도록 한다.



<사진4-33> 한봉일 가옥 대문 전경

한봉일 가옥은 부정형 대지를 구획된 공간으로 나누어 기(氣)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앞에 흐르는 천미천은 곧 바람길이 되므로 생기를 분산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물의 형태를 풍수적으로 해석하면 대부분 초가집 형태의 지붕은 돔형에 가까운 외형을 하고 있어 중심에 氣를 모이게 하여 이상적인 형태를 하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一”자형으로 산에 비유하면 수산형태로 기운을 분산 시키는 형태이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 : 2 미만인 경우에는 氣를 모으는 평면이므로 한봉일 가옥 역시 평면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 : 1.75 형태가 되어 이상적인 건물형태이다.

마당의 형태를 풍수적으로 해석하면, 집 앞에 있는 마당은 건물면적의 3배가 가장 이상적이며 여러개의 마당을 두면 여성이 많은 것을 뜻한다. 또한 마당의 형태는 정사각형 형태가 氣를 모으기가 좋아 이상적이며 한봉일 가옥

또한 여러명의 여성과 인연이 있으며, 마당의 형태는 정사각형에 가깝다.

한봉일 가옥의 안거리 방위배치를 보면 건(乾)좌 손(巽)향을 하고 있으며, 대문은 마당 중심에서 간(艮)방위에 위치해 있어 서기운이 흐르고 있다. 안거리 기운 또한 서기운이 흐르고 있어 건물과 대문이 풍수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간(艮)방위에는 지맥의 어깨 부위이므로 바람의 통로가 되어 기(氣)흐름이 분산되어 불리 할 수 있다.

한봉일 가옥의 건물과 대문의 관계를 음양오행으로 해석해보면 건(乾)방위는 노부금(老父金)이고 간(艮)방위는 소남토(少男土)이므로 음양으로는 안 맞으나 오행으로는 손님이 주인을 상생(相生)하므로 좋은 기운을 불러 들인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옥을 풍수적으로 해석 할 때 좀 불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세의 뒷면쪽에 있으며 앞에는 천미천이 바람의 통로가 되어 기운을 분산시키고 대지가 부정형이 되어 마당이 여러개가 구성되므로 여성의 기운이 분산된다. 그러나 건물앞에 안산인 남산봉이 노적봉(露積峰) 형태를 하고 있으며, 건물과 대문관계가 상생을 이루며, 평면 형태가 기운을 모으는 유리한 형국을 하고 있는 장점도 있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정의읍성의 立地는 風水地理 思想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龍· 穴· 砂· 水에 의한 점지와 양택배치의 3요소인 背山臨水, 前低後高, 前窄後寬 되는 입지를 주로 選定하였으며, 공간배치로는 도성제 기법인 주례 고공기 형태를 취하여 계획적인 행정이나 군사적으로 위계질서를 지향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첫째, 일반적인 읍성 대부분의 입지는 북쪽에 主山 또는 主脈이 있으며, 서쪽에 구릉지가 있고, 동남 방향에 하천을 끼고 남쪽에 평야가 펼쳐진 곳에 주로 읍성이 축조된 것은 배산 임수와 전저후고가 잘 형성된 곳으로 양명한 기운이 서려 있다. 정의읍성 또한 북쪽으로는 영주산이 있고, 서북쪽에는 주산인 모지오름이 있으며 서쪽에는 장자오름과 벤저리 동산이 있고, 개동산 등이 구릉이 있으며 東南方向에는 역시 천미천이 읍성을 環抱하며 돌고 있으며, 남쪽편이 전체적으로 낮은 지세를 하고 있다. 풍수적으로 배산임수와 전저후고인 명당형 지세를 이루며 물은 東出 西流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읍성의 공간 배치 구성과 시설물 배치를 보면 지세의 흐름을 중요시 하고 있으나 도성제 기법인 주례고공기 규칙을 잘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풍수지리 사상의 근본인 三神五帝思想의 宇宙觀이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陰陽과 五行의 相生, 相剋의 法則을 잘 이용하고 있다. 정의읍성 또한 客舍를 중심으로 북쪽에 동헌인 일관헌이 있고 서쪽에 鄕校가 있으며 사직단 또한 서쪽에 있었다. 좌묘 우사의 규칙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모지오름에서 내려온 中出脈은 포제동산에서 分脈하여 落脈하고 경사가 완만한 지세를 이루었으며 지금의 일관헌 뒤로 龍脈을 뻗어 마치 사람의 손등처럼 가운데가 약간 높게 솟아 올라와 좌우균형을 잘 이루어 현 객사 위

쪽으로 혈을 만들고 있다고 사료 된다. 白虎는 내백호와 외백호로 나뉘어 포제동산에서 성제동산과 개동산을 흘러와 서문옆 향교로 용맥이 들어온다. 따라서 향교가 서쪽에 있는 이유인 것 같다. 과거에는 사직단도 여기에 있어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청룡 또한 마찬가지로 황통지 동산과 땅동산을 거쳐 완만한 경사로 앞내도 쪽으로 용맥이 흘러 들어온다.

넷째, 일반적인 읍성은 관아와 民家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 계획된 마을로서 정의읍성 또한 관아와 민가를 동시에 受用하고 있으며 風水的으로 양명한 땅에 위치하며 타지역과의 행정적인 교류를 용이 하도록 중앙집권적인 바탕 아래 정주지 槪念인 행정구역이다. 정의읍성 또한 성산과 남원, 서귀포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구역의 일환이었다.

다섯째, 일반적인 읍성은 성곽을 쌓아 방어적 기능을 갖고 있다. 정의읍성은 성산에서 방어와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유리한 中山間 지역을 택했으며 풍수지리적으로 非脈보다도 龍脈이 강하게 내려온 지세에 터를 잡고 배치하였다.

여섯째, 일반적인 읍성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위가 강조되기 위해서 관아 建物의 配置가 성내중앙부에 입지하여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로체계에 있어서도 T자형 가로체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의읍성의 가로체계를 보면 동서로 완만한 굴곡을 두어 풍수에서 중요한 直風을 피하였으며 바람을 부드럽게 만들어 생기를 불러들이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현지를 답사하면서 느낀 것은, 계획된 읍성을 조성하면서도 상징적인 중요 건물들을 風水地理的 原理에 입각한 배치를 하였으며, 읍성 전체의 공간에 흐르는 기운을 원활히 하여 삶의 健康에 幸福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앞으로 조성하는 계획된 도시들은 自然觀에 맞도록 계획하여, 우리 전통의 고유사상인 풍수지리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참 고 문 헌

고문헌

대 동 여 지 도

신 증 동 국 여 지 승 람

여 지 도 서

탐 라 순 력 도

탐 라 지

택 리 지

단행본

김기선 풍수실무편람, 2005, 형설출판사

풍수지리학개론, 2005, 형설출판사

김동규역 인자수지, 2008, 명문당

김두규 우리땅 우리 풍수, 2004, 동학사

명산록, 2004, 비봉출판사

김명재 무기해, 1994, 명문당

김봉우 증보제주통사, 2001, 도서출판 세림

김영돈 제주성읍민속마을, 1989, 대원사

김종철 명당요결, 2000, 오성출판사

고재희 쉽게 하는 풍수 공부, 2004, 동학사

남제주군 군제 60주년 남제주군지, 2006, 남제주군

노영준 양택풍수, 2003, 경덕출판사

박시익 한국풍수지리와 건축, 2006, 일빛

신영대 풍수지리학 원리, 2007, 경덕출판사

신 평　　풍수양택통론, 2006, 관음출판사
신 평역　지리오결, 2005, 동학사
오상익　　주해장경, 2005, 동학사
이한종　　풍수지리학, 2000, 오성출판사
오창명　　제주도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2008, 제주대학교 출판부
장영훈　　생활풍수강론, 2000, 기문당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2006, 평단문화사
제주도　　제주도지, 1993, 제주도
한국지구과학회 지구과학개론, 2006, 교학연구사
황화철　　최고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비즈니스 풍수, 2008, 도서출판 대진

학위논문

강 현　　읍성의 공간 구조 및 건축물 변환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김연호　한국 전통 지리 사상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08
김철수　한국성곽도시의 형성·발전과정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 1994
김홍식　성읍리 공간구성의 연구, 제주도 연구지, 1984
나미영　제주 성읍민속마을의 입지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7
문영식　조선시대 읍성 배치 계획에 관한 연구, 명지대석사학위논문, 1995　-진도, 장흥, 무안읍성을 중심으로-
박상구　조선시대 서원건축 터잡기 및 건물배치의 풍수지리적 해석, 영남대환경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7
-영남지방의 전통서원 중 국가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박시익　풍수지리설 발생배경에 관한 분석 연구, 고려대박사학위논문, 1987
-건축에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하여-
박찬용　조선시대 읍성정주지의 경관구성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84
-전남승주군 낙안읍성을 중심으로-
백인길　조선시대 읍성의 입지에 따른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석사학원논문, 1989
변창두　제주도 지명 및 전설과 풍수지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7
신원근　거제 향교의 풍수지리적 고찰,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심수보　우리 나라 성관 도시(도성·읍성)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1990
이상구　조선시대 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여지도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은동　전통마을에 관한 풍수지리 분석,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정광석　한국현대명문가의 풍수지리적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國文抄錄>

濟州 旌義邑城의 風水地理的 解析

金 東 燮

嶺南大學校 環境保健大學院

環境設計學科 風水地理專攻

指導敎授 朴時翼 · 朴贊龍

要 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의, 식, 주의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었다. 사람들은 적으로부터 보호 받고 최소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안정된 자연 조건에 맞는 지형을 찾아 정주지로 만들고 정착하면서 자연의 상생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다.

즉 자연관에 대한 동양적 우주관이 싹트면서 자연 법칙에 기인한 대자연이 순환하는 순행의 원리와 법칙을 일깨워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는 본연의 본질(氣)을 갖고 균형과 안정된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우주 만물의 현상을 음과 양이라는 상대적 관계로 파악하였으며 이 음양의 조화를 위해서는 우주 만물의 성질이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으로 순행과 역행의 순환 과정을 통하여 자연의 변화 과정을 풀이하는 이념적 동양 사상으로 발전 되었으며 여기서 읍성 또한 자연적 입지 조건에 맞추어 축조 되었다.

본 연구는 고문헌 및 연구 자료를 통하여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읍성을 축조

하는데 입지 선정과 공간 배치에 있어서 풍수지리 사상과 주례고공기의 도성 제기법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용, 혈, 사, 수에 의한 입지와 양택 배치의 3요소인 배산임수, 전저후고, 전착후관되는 입지를 주로 선정하였으며, 공간 배치로는 도성제 기법인 주례고공기를 통하여 계획적인 행정이나 정치·군사적으로 위계질서를 지향하려고 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읍성 축조의 가장 좋은 입지는 북쪽에 주산 또는 주맥이 있으며, 서쪽에 구릉지가 있고, 동남 방향에 하천을 끼고 남쪽에 평야가 펼쳐져 있고, 배산 임수와 전저후고가 잘 형성되어 양명한 기운이 서려 있는 곳에 주로 읍성이 축조 되었다. 정의 읍성 또한 북쪽으로는 영주산이 있고, 서북쪽에는 주산인 모지오름이 있으며 서쪽에는 장자오름과 벤저리 동산이 있고, 개동산 등의 구릉이 있고 동남방향에는 역시 천미천이 읍성을 환포하며 돌고 있으며, 남쪽편이 전체적으로 낮은 지세를 하고 있다. 풍수적으로 배산임수와 전저후고인 명당형 지세를 이루며 물은 동출 서류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읍성의 공간 배치 구성과 시설물 배치를 보면 지세의 흐름을 중요시 하고 있으나 도성제 기법인 주례고공기 규칙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는 풍수지리 사상의 근본인 삼신 오제사상인 우주관의 변형이라 볼 수 있으며, 음양과 오행의 상생, 상극의 법칙을 잘 이용하고 있었다.

정의읍성 또한 객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동헌인 일관헌이 있고 서쪽에 향교가 있으며 사직단 또한 서쪽에 있었다. 즉, 전조후시(前朝後市)와 좌묘우사(左廟右社)의 규칙을 엿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본 바에 의하면 계획된 읍성을 조성하면서도 상징적인 중요 건물들은 풍수지리 원리에 의한 배치를 하여, 자연의 기운을 읍성 전체 공간에 원활히 흐르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대는 산업 문명의 발달로 인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공간

구성으로 말미암아, 그 지형의 지세와 공간 구조의 변화가 심하게 훼손되어 기(氣)로 형성된 우주 공간의 조화가 깨졌다. 따라서 이상 기후 현상을 초래한 것은 결국, 기(氣)의 흐름을 복원하려는 우주 에너지의 조화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성하는 계획된 도시들은 자연관에 입각한 계획으로 전통적인 우리고유의 풍수지리사상을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보다 나은 정주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MS. Thesis

Interpretation by Topographic Divination of the Jeongeui Castle in Jeju

Dong-Seop Kim

Major in Topographic Divinati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Design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Health, Yeungnam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i-Ik Park and Chan-Yong Park)

(ABSTRACT)

Since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men have got all necessities of life from the nature. Men moved to find a stable place to be protected from the enemy and to get food for survival. Once they found one, they took it as a permanent abode to settle down and came to learn the natural principle of coexistence.

As the oriental viewpoint of the nature and the universe sprouted, men became aware of the natural laws and principle in which the great nature circulates and thought that all the living and nonliving things had the natural energy to try to get balanced and harmonized.

As such, the universal phenomenon was grasped as the relative relation of Yin and Yang. For the harmony of Yin and Yang, the nature of the whole creation should go through the direct and retrograde motion in the Five Elements of wood, fire, earth, metal and water. As such the ideological Oriental thought has been developed to explain the course of natural change and the castle was also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natural condition.

This study, through old documents and research materials, found out that in castle construction, the selection of location and spatial disposition was influenced a lot by topographic divination theory and the Doseongje technique of Juryegogonggi.

Especially in the selection of location, it was related to selection by Yong, Hyeol, Sa and Su, and the 3 elements of house site, BaesanImsu, JeonjeoHugo and JeonchakHugwan. In spatial disposition, it aimed at the intentional administrative, political and military hierarchial order through Juryegogonggi, the Doseongje technique.

First, generally the best location for castle is that there are major mountain or ridge to the north, hill areas to the west, streams to the south east and open field to the south. In such location, BaesanImsu and JeonjeoHugo is well formed with sunshine. In case of Jeongeui castle, there are Mt. Yeongjusan to the north, the main mountain Mojioreum to the northwest,

Jangjaoreum, Benjeori garden and hills like Gaedongsan to the west, Cheonmicheon stream to the southeast surrounding the castle and generally low land to the south. It forms geography of propitious site with BaesanImsu and JeonjeoHugo in topographic divination and water comes from the east and flows to the west.

Second, the general spatial composition and facility disposition of castle emphasizes the flow of topography and accepts the regulation of Juryegogonggi, the Doseongje technique. This seems to be the transformation of the vision of the universe in SamsinOje thought, the foundation of topographic divination theory, making the most of Yin and Yang and the coexistence and conflict laws of the Five Elements. Jeongeui castle had, centering around inn, the Ilgwanheon, a government building, to the north, the Hyanggyo and Sajikdan to the west. The regulation of JeonjoHusi and JwamyoUsa could be seen.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castle was formed on purpose and important symbolical buildings were arranged by the topographic divination theory so that the natural energy may flow smoothly through the whole space of the castle to maintain healthy life.

However, today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ized civilization and the reckless urbanization seriously damaged the topography, the geographical feature and spatial structure breaking the

harmony of space being formed as Gi(energy). At last abnormal climate was brought about and that is just the harmony of universal energy to recover the flow of Gi.

Therefore, it is our part to make a better environment to settle by deeply researching and developing our own traditional topographic divination theory based on the view of nature for the planned city of the future.